

하늘편지 첫번째 모음집

# 하늘로 보내는 편지

당신은 어디든 갈 수 있으니  
항상 아이들을 응원해 달라고 부탁을 해.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는 한 당신은  
우리와 같이 살고 있는거야.







# 목 차

---

말간사	2
천안추모공원 소개	5
하늘로 보내는 편지 _ 부모님	11
하늘로 보내는 편지 _ 배우자	71
하늘로 보내는 편지 _ 자녀	97
하늘로 보내는 편지 _ 조부모	117
하늘로 보내는 편지 _ 형제자매	153
하늘로 보내는 편지 _ 지인, 친구	165
하늘로 보내는 편지 _ 선생님	183
하늘로 보내는 편지 _ 친인척	187
유족들이 고인을 생각하며 그린 그림	195

# 발간사


광덕 밤나무골에 천안추모공원이 조성되어 운영한지도 벌써 13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우리 추모공원 직원들은 고인을 잃은 슬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며 위로와 격려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고인과 유족을 모시고 있습니다.

추모공원 개장 이래 최초의 추모 책자인「하늘로 보내는 편지」는 고인과의 추억과 그리움, 아쉬움, 고마움 등을 회상하며 '추모 목'에 남겨 놓은 유족들의 못 다한 이야기를 모아 책으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을 기리는 자녀, 자녀를 가슴에 묻은 부모, 먼저 간 배우자에 대한 그리움과 상실감, 할아버지, 할머니와의 즐거운 때를 그림으로 남긴 손자·손녀, 하늘의 별이 된 친구, 보고 싶은 형제자매 등 모든 편지를 일일이 읽어보며 유족들의 사무치는 감정들이 고스란히 다가와 가슴이 먹먹해 집니다.

회자정리 이자정회(會者定離 離者定會) 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남은 헤어짐을, 헤어짐은 또 다른 만남을 정하고 있다. 는 뜻으로 고인과의 이별은 슬프지만 우리의 인생에 펼쳐질 새로운 인연들을 기대하며 일상으로의 회복을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추모공원은 앞으로도 고인과 유족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서비스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천안추모공원을 방문  
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2023년 12월  
천안도시공사 사장 한동흠



# 천안추모공원 소개

---









## 천안추모공원 연혁

- 2004. 1. 15. 천안추모공원조성계획 확정
- 2004. 3. 9. 천안추모공원조성 기본계획수립
- 2004. 4. 28. 입지선정 공개모집 공고
- 2004. 10. 22. 입지 최종 확정 발표
- 2005. 6. 28.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
- 2006. 11. 6.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설계 인가
- 2007. 3. 5. 공사착공
- 2009. 12. 28.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 2010. 1. 28. 추모공원관리사업소 개소
- 2010. 4. 21.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 2010. 7. 29. 천안추모공원 준공
- 2010. 8. 5. 천안추모공원 개장
- 2012. 1. 1. 천안시시설관리공단 운영
- 2021. 5. 20. 장례식장 및 부대시설 (식당, 매점) 수탁
- 2021. 8. 10. 부대시설(커피숍, 유골함판매점) 운영
- 2021. 11. 15. 부대시설(식당) 운영
- 2023. 10. 16. 제2봉안시설 개관



화장시설



관망로



화장로

제1봉안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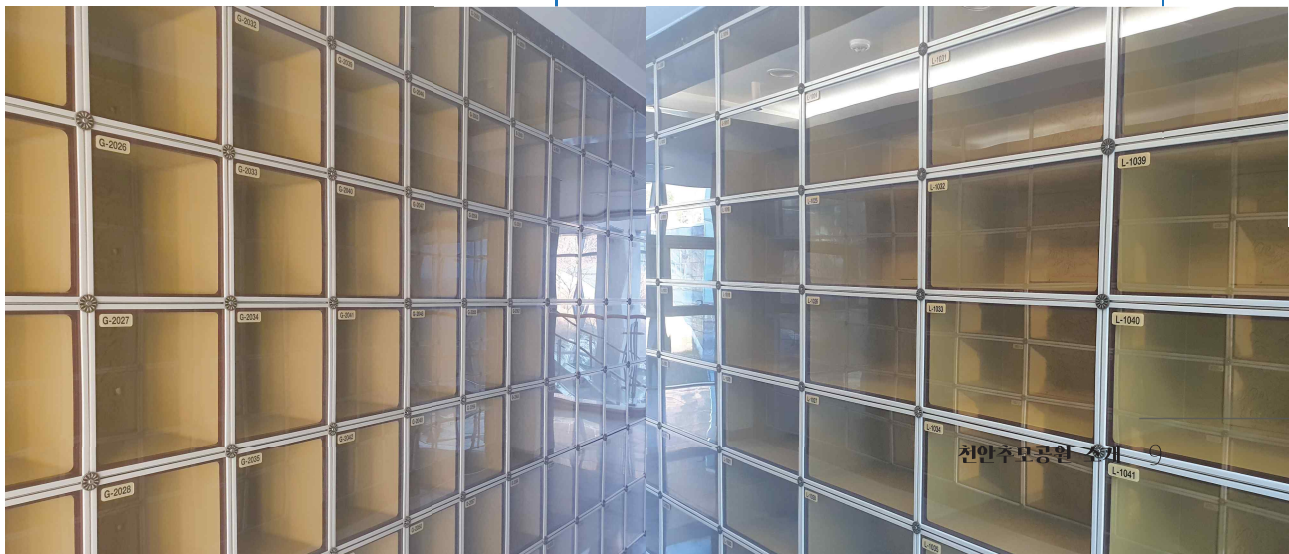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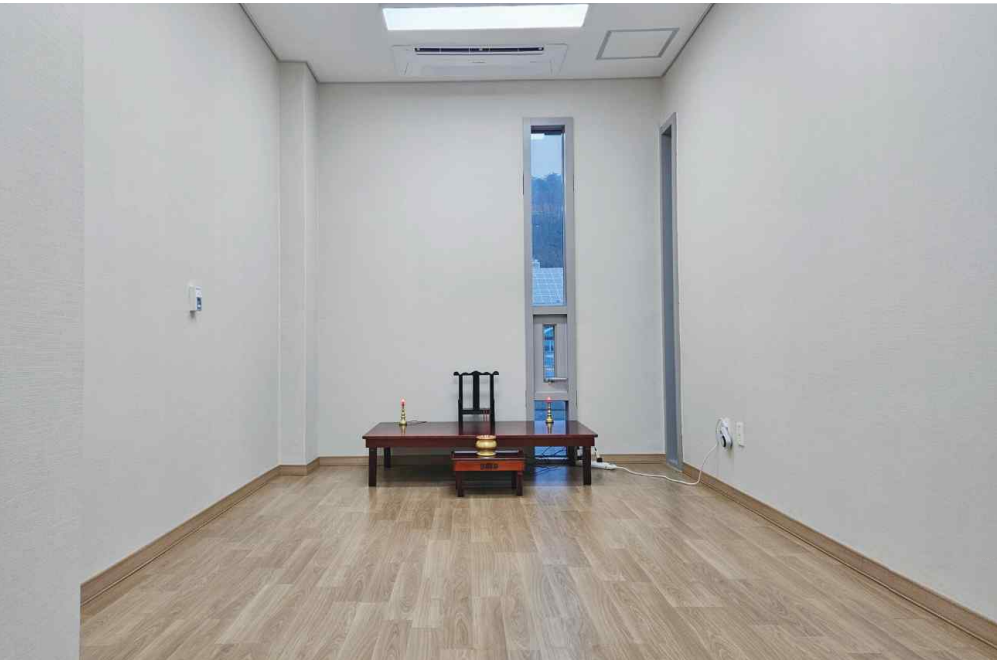
제2봉안시설



개인단

부부단





추모실



헌화대

하늘로 보내는 편지 우체통



추모목  
봉안시설



---

하늘로 보내는 편지  
- 부모님 -

---





## 그리운 엄마

엄마가 떠나신지도 벌써 4년이라니 시간이 참 빠르지요?  
 지금도 문득문득 엄마가 안 계신 게 실감이 안 날 때가 있고 많이 보고싶고 그리워요.  
 길에서 마주친 엄마 또래 아줌마에게서 엄마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TV를 보다가 엄마랑 비슷한 모습을 한 아줌마를 한참 들여다보기도 하고  
 멋쟁이 어른들은 엄마 모습이랑 비슷해 보이는걸 보면  
 울 엄마 멋쟁이였내 싶어 방긋 웃음이 나요.

엄마 없이 4년이라니 그렇게 그렇게 살아가네요.  
 엄마한테 해드리지 못한 부족한 게 참 아쉬워서 아버지한테 더 찾아뵙고  
 마음 쓰는데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지나면 언제나 부족한 것 같고 아쉬움이 남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힘 모아서 하고 있으니  
 아버지가 오래 건강하게 곁에 있도록  
 엄마가 도와주세요.  
 엄마 떠나시기 전에 병원에서 아빠 걱정하실 때  
 커가면서 봐온 모습이 엄마의 마음과 달랐단 걸 깨닫고 마음이 참 아프더라구요.  
 그런 엄마 맘 몰랐던 게 죄송하기도 했고 안타깝기도 했어요.  
 그래서 아빠에게는 그런 맘 갖지 않도록 해야겠다 생각했어요.  
 빨리 엄마 생전에 이런 걸 알았다면  
 지금 이렇듯 눈물이 나지는 않을 텐데....

어느 때가 아니라 순간순간 보고 싶고 그리운 엄마.  
 도형이는 1월에 군대에 가서 훈련받고 배치를 잘 받아서 군 생활 잘하고 있어요.



코로나19라는 병 때문에 세계가 난리라서  
도형이는 아직 휴가를 못 나와서 너무 보고 싶어요.  
그래도 저녁 6시부터 휴대폰을 쓸 수 있어서 목소리는 자주 듣고 있어요.  
이번 생일에는 선물로 콜라겐 영양제를 30분이 넘게 알아보고  
검색해서 보냈더라고요.  
엄마가 도형이 키울 때 아빠말 씌대로 많이 도와주시고 정성을 들여주셔서  
바르고 올 곧게 잘 큰 것 같아서 참 감사해요. 아버지 엄마 덕분이예요.  
도형이랑 도운이도 엄마 보고 싶다고 가끔 얘기하며 눈물이 난대요.  
이번 해에는 김장에도 도전해 볼 거예요.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 여러 가지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절임배추를 주문해서 엄마 어깨너머로 배운 김치도 도전해 보려구요.  
엄마 자식에 대한 사랑과 순수한 마음 새기면서 살아갈게요.  
너무너무 그립고 사랑합니다. 엄마

엄마의 네 번째 기일에 딸 지선이가 올립니다.





## 어머님께

어머님이 떠나신지  
벌써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큰일 없이 가족들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항상 평안히 잘 계시고  
가족들 아무 일 없이 잘 지내도록 지켜주세요.  
보고 싶습니다. 어머님

- 막내사위 올림 -





## 엄마

엄마 잘 있어? ^^  
나보고 있는 거야?  
거긴 외롭지 않지?  
힘들거나 울고 싶진 않은 거지?  
아프지는 않고?

벌써 엄마 돌아가신지 10일이 지나버렸네..?  
엄마 근데 나는 아직도 내 옆에 있는 거 같다..  
진짜 많이 보고 싶어..  
그리고 울진 않을게.. 엄마 걱정할까봐 안 울 거야..  
이해해 줄 꺼지? ^^..

나 요번주에 엄마 보러 또 갈 켜데 ♥  
엄마 살아계실 때 이렇게 자주 못 찾아봐서 미안해..  
뒤늦게 후회하고 있다..  
요번 주 주말에 꼭 보러 갈게 ^^ 그때봐요 우리..

엄마 미안해, 고마워 .. 그리고 사랑해 ♥

- 김종란 -





아빠...

나 선미야 ...

아빠 막내딸..

아빠 좋은 곳으로 잘 갔어?

아빠가 우릴 떠난 지 어느덧 보름이지났어.. 내일 어버이날인데..

난 우리 아빠 살아생전에 어버이날에 해드린 게 없네..

아빠 .. 정말 정말 죄송하고.. 잘못했고..

아빠 근데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요..

아빠 어제 우리 꿈에서 만났잖아..

너무너무 고마워.. 난 아빠가 나한테 서운해서 ..꿈에 안 나타나실까..

그랬는데 요즘 꿈에 자주 와줘서 너무 감사해요...

꿈에서 본 것처럼 실지로 볼 수 있음 얼마나 좋을까..

내가 아빠 살릴 수 있었는데..

진짜 살릴 수 있었는데..

이렇게 어이없게 무심하게 보내드려서 너무 한이 돼..

난 왜 항상 뒤늦게 후회하는 걸까..

지금의 반만 노력했어도 우리 아빠 지금 내 곁에서 십 년은 더 사셨을걸..

죄송하고 불쌍해서 어떡해..

아빠 오늘도 꿈에 나와줘... 응?

꿈에 나와줘요.. 아빠 꼭이다 !!

엄마한테 잘할게요.. 아빠가 항상 당부했던 거..

아빠 이따 보자요! 꿈에 꼭 나와야대!!

- 김선미 -



## 아버지

아버지가 가시고 오월이 왔어요  
뺨 뚫려버린 가슴  
잠자고 먹고 생활하고  
가슴에 묻고 이렇게 살아가네요  
가슴이 멍멍하다고 해야 할까  
순간순간 아버지 손길이 너무나 그리워서,  
목소리가 너무 듣고 싶어 전화기를 만져보지만..

아버지 잘 계신 거죠..  
죄송스런맘  
후회스러움  
병석에 계실 때 좀 더 곁에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래요.. 아버지..  
울지 말라 달래시며  
이별 인사 하신 것도 모르고..  
죄송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걱정 마시고 편안히 계세요  
저희는 잘 지낼께요

- 조준희 -





## 부모님에게 편지

엄마!

엄마가 저 세상 가신 지도 8년 덧없이 흘러갔네.

그곳에선 고생 마시고 편안하게 계세요!

나비처럼 훨훨 날아다니면서 시대를 잘 못 만나 고생만 하시다 가신 우리 엄마

그 고생 길에서도 7남매 굶기지 않고 먹여 살리려고

리어카도 굶고 다니면서 고생을 마다 않고 사신 우리 엄마!

그곳에선 나비처럼 날아다니면서 잘 사세요!

둘째 딸 일순이가 바라는 마음

나도 언젠가는 엄마 곁으로 가겠지!

엄마 혜정이하고 아버지한테 갔다가 엄마한테 왔네

엄마 그곳에선 편안한지 나도 마음이 급해지네

엄마 때처럼 급해져 그곳에선 편안하게 계셔!

엄마한테 갈께! 몇 번이나 더 올수 있으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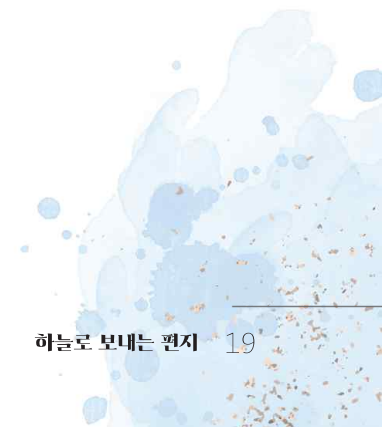
엄마 잘계셔! 또 올게

- 둘째 딸 일순이가 -



## 아들 선호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엄마 희자씨에게

사랑하는 희자씨  
엄마가 천국으로 떠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네  
문득문득 엄마가 너무 보고 싶고 사무치게 그리울 때가 있지만,  
그래도 잘 버티고 있어.  
천국은 어때?!  
곽미영할아버지랑 만나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겠지?  
아들 자랑, 딸 자랑, 사위 자랑, 며느리 자랑, 손녀들 자랑도 많이 했나?  
신나게 떠들며 웃는 엄마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린다.  
곧 엄마 만나러 또 올게.  
천국에서 지켜보며 응원해 줘.  
그리고 꿈에 좀 놀러와!  
기다릴게!





## TO 우리 송성진 아빠에게 ♡

아빠~ 안녕!

나 아빠의 하나뿐인 막내 영현이야!

너무 오랜만에 왔지?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서 매일 나왔으면 좋겠는데

왜 한 번밖에 안 나와~

보고 싶다.

아빠가 나 엄청 좋아했잖아.

시끄럽긴 해도 항상 나 재밌고 웃기다고 웃어줬는데

그런 아빠의 따뜻한 미소가 너무 그립다.

엄마, 언니, 나 잘 지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내가 꼭 우리 가족 지켜줄게

다음에는 이쁜 편지지에 써서 올게

다음 생에도 나의 아빠가 되어줘♡

잘 지내고 있어!

사랑해

- FROM 막내 영현 -



어머니! 저희 왔어요!!  
벌써 올해도 끝나 가는 건지 공기가 너무 차가워졌어요..  
곧 겨울이 올 것 같아요.  
추석은 잘 보내셨나요?!

용암이도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잘 지냈어요!  
아, 그리고 용훈이 오빠 청첩장도 받았어요!!  
용훈이 오빠도, 용암이도 정말 바르고 멋진 사람 같아요.  
어무니 저도 이렇게 멋지게 키우신 비법 좀 알려주세요!!  
지금처럼 용암이 옆에서 게임 예기를 하면 재미있게 들어주고,  
예쁜 행동을 하면 칭찬도 맘껏 해주고,  
일 끝나면 맛있는 밥도 먹으면서 많이 사랑할게요.  
그러니 아무 걱정 마시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만난 것두 많이 드세요!!  
예쁜 눈 오면 또 올게요 !!

- 세원 올림 -





## To 그리운 엄마

내 나이 벌써 50이 넘었네...

나는 살면서 엄마를 자주 생각해

그곳은 어때여? 괜찮아?

나는 나름 잘 살지만... 자식도... 내 뜻대로 안 되는 인연 속에도 굳건히 잘 살라우.

엄마! 살면서 잘해주지도...

그 흔한 사랑한단 말 못한 거 미안해....

염치없지만... 자식들 건강히 평범하게 잘 살게 해줘여...

나도 사는 날까지 엄마 역할 다할 수 있게 기도해줘여....

사랑해... 엄마.

천국에서 만날 수 있을까?

날 잊지 말아요... 그때까지 ... 안녕히.....





## 사랑하는 엄마

이렇게 편지 한번 써보게 하시네~  
벌써 가을이 다가왔는데 엄마 없는 명절을 지내게 돼 슬픈 계절이 될 거 같아요  
엄마~ 그곳은 어떠세요?  
기쁨만 있는 곳이라잖아요.  
이 생애선 서운함이 많은 삶을 살았을지라도  
편안하게 그곳에서 이제 편안한 시간을 보내세요.  
자식들 살아가는 거 지켜보며 도와주시리라 믿어요.  
아직은 엄마가 안 계시다는 것이 실감이 안 되지만  
시간이 흐르며 우리 사는 데 바빠 매일 생각할 수 없지만  
살아생전 기쁘고 좋았던 것만 기억하며 가끔 엄마 생각 잊지 않을게요.  
시간은 흘러 우리도 늙어가니 머지않아 엄마를 만날 날이 올 테니까  
기다리다 만나게 되면 웃으면서 맞이해 주세요  
엄마! 人生은 후회를 매일 경험하며 살게 되나봐...  
엄마한테 서운하게 한것만 생각나고...  
오늘도 이 편지를 쓰며 눈물 나 슬펐어요.  
우리 잘살게요. 엄마는 떠났어도, 우리 형제들 더... 열심히 살거니... 지켜보시고  
엄마는 우리 엄마니까 서운했던 거 다 용서하시고  
그곳에선 행복하세요.  
보고 싶을 때 또 올게요.  
안녕히 계세요.

- 엄마다운 딸 현옥 올림 -



## To 그리운 엄마

엄마 잘 지내고 있지?  
천안은 봄비가 내렸어.  
그래서인지 벚꽃은 많이 떨어졌지만  
엄마가 좋아하던 철쭉과 진달래꽃들은 하나둘씩 피어나려고 하고 있어.  
며칠 내에 붉고, 하얗고, 분홍의 꽃 들이 피어날 것 같아,  
마당에 철쭉과 진달래가 피면 자던 나를 깨우며 꽃이 너무 예쁘다고  
보러 나오라며 그 어느 때보다 꽃처럼 활짝 웃던 엄마 얼굴이 떠올라.  
그래서 엄마가 좋아하던 꽃들이 피어나는 봄이 오면 유독 엄마가 더 보고 싶어져.  
올봄은 나도 나이가 들었는지 엄마처럼 꽃을 좋아하고 꽃 사진을 찍고 있어.  
하지만 마냥 좋기보단 엄마 생각에 약간은 우울해져.  
10년이 다 되어가고 있고 나도 두 아이의 엄마가 됐지만...  
아직도 5살 어린아이처럼 엄마의 빈자리를 느끼면 엄마를 찾게 되고  
엄마를 그리워하게 돼  
엄마를 갑작스럽게 떠나보내고 슬픔과 함께 후회하는 감정들이 많이 밀려와.  
그래서 엄마를 떠올리며 블로그에 이런 글도 써봤어.

### 후회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거칠어진 손을 쓰다듬고  
야윈 어깨를 감싸 안아줄 걸



그녀의 슬픔을 외면하지 않고  
들어주고, 들어주고, 들어줄걸.

이해 못 해도 이해한다며  
그랬구나, 그랬겠구나, 그랬어, 그렇지...  
맞장구쳐주고

남편, 자식새끼 걱정엔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다 해결해 주겠노라고 말할 걸

좋은 옷, 좋은 음식, 해외여행이 아닌  
그저 엄마처럼, 언니처럼  
그녀가 기댈 수 있게 어깨를 내어줄 걸.

조명을 비춘 듯 햇살이  
그녀에게 너무나 눈부시게 비췄던  
마지막 그 날로 돌아간다면...  
눈이 마주치는 그 순간순간마다  
내가 그녀를 너무 사랑하고 아끼노라고 고백할 걸

하는 고백을 한다.

이런 글들을 쓰며 가끔은 아이처럼  
이 글이 엄마에게 닿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





그러면 난 이 글과 함께  
“엄마가 나의 소중한 가족이라서 나의 엄마라서  
60년이라는 너무 짧은 세월이지만 최선을 다해 열심히 잘아줘서  
그래서 엄마 없이도 이렇게 씩씩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나를 만들어줘서 고마워”  
라고 써서 엄마에게 부치고 싶어.  
이 편지가 하늘에 닿아서... 엄마에게 전해지면 좋겠다...

엄마 난 이곳에서 엄마가 열심히 살았던 세월이 무색하지 않게  
엄마처럼 나의 가족들을 지키고 사랑하며 열심히 살아갈게.  
엄마도 그곳에서는 걱정 없이 엄마 인생을 살아!!  
아빠는 나이 80이 다 되어가는데도 아직 철이 안 들었어^^  
그러니까 아빠는 포기하고, 요즘 현빈이 그렇게 멋있더라.  
현빈 같은 사람 만나 결혼해서 힘들어하지 말고 연애만 해^^  
우리 그렇게 꽃같이 예쁘게 살다 다시 만나자.  
엄마 다시 한번 이렇게 귀하게 낳아주고 키워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 엄마가 보고 싶어 지는 날 큰 딸 정애가 -



TO 아빠

잘 지내고 계시죠?  
지난주에 찾아뵈었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제삿밥도 못 챙겨드리고 기일도 못 지켰으니 이런 불효자도 없을 거예요.  
엄마는 아시다시피 어제부터 주말에 나오시는 분이 구해져서  
누나나 제가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좋으신 분이 오랫동안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저도 아직 직접 못 뵈서 잘 모르겠네요.  
항상 행복하게 잘 살겠다고 아버지 앞에 다짐을 하곤 하는데  
마음같이 쉽게 되지는 않는 것 같네요.  
항상 하늘나라에서 지켜봐 주시고 힘을 주세요  
항상 말없이 우리 자식들을 키워주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제대로 된 효도도 못해드리고 보내드려서  
늘 마음 한구석에 죄책감으로 남아있는데  
살아계신 엄마에게는 그런 후회가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볼게요  
항상 아빠를 그리워하는 하나밖에 없는 종원이가 다녀갑니다~!





## 아빠

안녕 잘 있었어?

나는 잘 지내고 있어

벌써 아빠가 떠난 지 49일이나 됐네.

늘 옆에 있는 거 같았는데 시간 엄청 빠르다

요즘 눈도 엄청 오고 엄청 추운데 그곳은 따뜻하지?

할머니 할아버지도 만나고 좋겠다.

우리 아빠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말고 아프지도 말고 편히 쉬어

아빠의 딸로 태어나서 늘 감사하고 또 감사해

다음 생에서도 우리 또 만나자

그때는 아프지 말고 나랑 오래오래 살자 사랑해

- 첫째 딸 -




## 사랑하는 우리 아빠께♡

아빠 어제 밥 맛있었어?  
엄마가 전날에 혼자 준비하느라 바쁘고 힘들었을 거야~  
그러니까 고생했다고 고맙다고 꿈에서 말해줘 ㅎㅎ  
아빠 항상 보고 싶고 그립다ㅋ  
엄마가 아빠 생각하면 요즘도 많이 힘들어해  
힘들지 않게 지켜줘  
아픈 데 있으면 호~해주고 아빠 빈자리는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으니까  
날씨가 좋으면 아빠 생각이 더 많이 나  
날씨 좋으면 아빠가 드라이브도 시켜주고 그랬는데  
아빠 사랑해 많이 사랑해♡

- 아빠 딸 미란이 올림 -





## 보고싶은 아빠에게

요즘은 아빠 생각이 많이 난다.

무서웠지만 우리 잘 되라고 하는 잔소리들이 이제는 그리울 때가 많다.

내가 결혼해서 애를 키워보니깐 이제야 알겠더라고...

다 우리 위한 잔소리였는데 그때는 왜 몰랐는지ㅠㅠ

이렇게 예쁘게 잘 키워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내가 아빠에게 받은 사랑 우리 연아 수아에게도 좋은 엄마가 되어서

예쁘게 잘 키울게!! 하늘에서 지켜봐 줘.

거기서는 아프지 말고 행복하게 지내는 우리 아빠가 됐으면 좋겠어 많이 보고 싶다

우리 아빠♥

그립다 우리 아빠.. 얼굴 목소리...

꿈에서라도 아빠 웃는 모습 보여주라. 5년 동안 작은딸 꿈에는 나타나지도 않고 머가

그리 바쁘신지! 아빠는 나 안 보고 싶은 거?

힘들 때마다 아빠 생각하면서 견디고 있어!!

하늘에서 지켜보면서 너무 속상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금 이 힘든 시기 지나면 좋은 날 오겠지...

아빠 보러 자주 갈 수 있을지 알았는데 점점 오는 횟수가 줄고 있다고 서운해하지

말아~ 은호 오면 애들 데리고 아빠 생각날 때마다 올게!!

아빠가 내 아빠여서 너무너무 좋아♥ 나도 잘 지낼게

아빠도 잘 지내~ 많이 많이 사랑해

- 작은딸 -





## 세상에서 제일 사랑했던 우리 아빠

아빠 안녕!  
세상에서 제일 이쁜 딸 희연이야.  
아빠가 떠난 지 벌써 1년이 돼가네  
다행히 처음보다는 덜 힘든 거 같아.  
아직도 1년이나 지난 시간이 믿기지 않아.  
난 여전히 아빠랑 같이 먹던 술자리가 그리고  
아빠가 해준 순두부찌개가 참 그리워  
그리고 아직까지 같이 못 갔던 마지막 단풍놀이가 그렇게 마음에 걸려 ㅠㅠ  
그래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추석이랑 아빠 기일이 가까우니까 마음이 더 속상해..  
최근에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아빠가 보내준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해줘요..  
아빠가 만났더라면 참 좋아했을 거 같은 사람이야.  
가희도 잘 지내고 있고 오빠도 엄마도 그리고 선우도 1년 사이 참 많이 컸어.  
아직도 품속에서 가끔 아빠랑 놀기도 하고 녹음된 목소리 들으면서 자기도 해..  
아직도 응석 부리나 봐 애도 아닌데..  
따뜻했던 여름이 또 다 가고 다시 추운 겨울이 오는데  
아빠가 있는 곳은 춥지 않고 계속 따뜻했으면 좋겠어  
또 올게 사랑해 ♡

- 아빠의 하나뿐인 딸 -





## To 아빠

아빠 안녕? 나 다미야!  
너무 오랜만에 보러 와서 미안해  
계속 인사하러 와야지 했는데 엄마랑 오빠랑 나랑 시간이 안 맞아서 빨리 못 왔어.  
거기는 날씨가 괜찮으려나 모르겠네  
여기는 지금 이상 기온이라 덥고 폭우 내리고 난리야!  
안 아프게 잘 지내고 있지?  
내 소식이 궁금할 것 같아서 말해주면  
난 정말 새로운 분야의 일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  
회사도 잠깐 다녀봤는데 난 회사 체질이 아닌 것 같아 ㅠㅠ  
사진을 배워보려고 하는데 벌써 재미있을 것 같고 두근거려.  
아빠가 있었을 때 배웠으면 더 좋았을 텐데, 좀 아쉽다.  
그럼 내가 우리 가족들 아빠 사진도 많이 찍어줬을 텐데.  
미안하다고 하면 아빠가 슬퍼할 것 같아서 미안해라는 말은 이제 안 할게.  
난 영화 코코처럼 아빠를 안 잊어버리고 기억해 주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미안해라고 안 할 거야.  
거기서 잘 지내고 내가 하는 거 지켜봐 주고 많이 응원해 줘~  
내가 나중에 거기 가면 최고로 멋지게 사진 찍어주고 인사할게  
편지 쓰면서 눈물이 좀 나서 난 이제 가봐야겠다.  
다음에 또 편지 써서 보여주러 올게 그동안 잘 지내고 있어!

- From 이쁜 딸 -



## To 아빠

아빠 정말 오랜만이야 너무 늦게 왔지?  
지금은 더운 여름이 됐네. 그냥 아빠가 보고 싶어서 왔어.  
너무 늦어서 미안해..  
나는 그냥저냥 잘 살고 있어. 근데 아빠의 빈자리가 너무 크네..  
요즘따라 더 많이 느껴지는 거 같아.. 왜 그렇게 일찍 떠났어..  
아직도 나는 너무 후회가 돼..  
정말 사무치게 보고 싶은 날이 있는데 그때는 그냥 나 혼자 울곤 해..  
어디선가 아빠가 보고 있을 것만 같다?  
항상 내가 다치지 않는 이유도 아빠가 지켜주는 것 같고 그냥 그렇게 믿고 살아.  
앞으로도 그렇게 믿고 살아도 되지? 근데 정말로 보고 싶다 아빠.  
아 참! 그리고 할머니랑 큰아빠 우리 가족들은 다 잘 있어!!  
요즘 엄마랑도 자주 보고는 하는데 아빠는 어떨지 모르겠네.  
그래도 아빠가 없으니까 내가 의지하고 지내는 중이야.  
다행이라고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 ㅎㅎ  
아빠. 난 꼭 우리가 다시 만나는 그날을 기다려.  
그때까지 잘 있어야 해! 너무 오랜만에 와서 미안해.  
앞으로는 자주 오도록 노력해 볼게♡  
다음에 할머니랑 같이 올게 그때까지 기다려줘.  
항상 하루도 아빠를 잊지 않았어.  
항상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해♡

- 딸 소은이가 -



## 아빠한테 보내는 편지

아빠, 편지로는 오랜만이네. 세 번째 편지일 거야 아마?  
아빠가 우리 곁을 떠난 지 1년하고 조금 더 지났네.  
아빠는 그 나이, 그 순간에 멈춰있는데  
나랑 엄마, 오빠는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가고 있어,  
그게 참 슬프다. 가끔 문득문득 아빠 얼굴이 생각나면 왈칵 눈물이 쏟아져.  
내가 철이 늦게 들어서, 아빠한테 잘해주지 못하고  
그렇게 보내야만 했던 게 가장 미안하고 또 후회가 된다.  
지난달엔 고모와 큰아빠들께서 우리 집에 오셔서 다 같이 아빠 제사를 지냈어.  
그때 이모가 아빠 위해서 음식도 정성 들여 했었는데 진짜 맛있었어!  
아빠가 살아온 삶이란 게 어떤 건지 나는 그 전부를 헤아리진 못할 거야 평생,  
그래도 다시 그날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말 한마디 위로와  
포용을 해주고 싶어. 내가 정말 정말 미안해, 아빠.  
아빠가 편히 쉬고 있는 그곳에서 나를 보고 있을 때 기분 좋게,  
나 정말 열심히 살고, 또 가족들이랑도 잘 지내고, 당차고 책임감 있는,  
봉사하며 사는 멋진 인생을 살게. 그러니까 지켜보고 있어줘요.  
가끔은 눈물 조금은 흘리는 거 괜찮지?  
매일 울지는 않을게. 난 씩씩한 딸내미니까 걱정하지 말고,  
엄마랑 오빠랑 아빠 잊지 않고 아빠 뒤편까지 살아나갈게  
조금 늦었지만 생신 축하드려요, 아빠 그리고 사랑해요.  
내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건강히 지내고 있어  
나는 아빠 생각날 때마다 영화 CoCo 보면서 아빠 얼굴 잊지 않고 있을게.  
그럼 다음에 또 편지 쓰러 올게 안녕!



## 아빠! 현주예요

옛그제 아빠 보내드리고 어제 또 그리고 오늘도 보고 싶은 마음에 아빠 보러 왔어요.  
아빠 마지막 보내는 날 날씨가 너무 좋고 눈 무신 햇살이 어찌나 서글프던지...  
지금은 가슴 한구석에 돌덩이를 얹은 듯 무겁고 아픈데 산사람은 또 살게 된다고 하니  
언젠가는 아빠가 안 계신다는 것이 익숙해지는 그런 날들이 오겠죠.  
아빠 살아계신 동안 전하지 못 했던 말들 이제 와 전달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편지를 보내요  
아빠! 나한테 미안해하지 말고 그곳에서 꼭 지켜봐줘.  
나 집도 사고 아빠 가보고 싶었던 곳 내가 엄마 모시고 다 돌아다니면서 구경하다가  
언젠가 아빠 있던 곳에서 다시 만나면 그때 다 이야기해줄게.  
그리고 아빠한테 살갑지 못한 딸이어서 너무 미안했고  
오늘 아빠의 서랍에서 낡아빠진 지갑 내가 오래전에 사줬던 그 지갑을 보고  
또 한바탕 눈물을 흘렸어. 항상 엄마 고생시킨 미운 아빠라는 이유로  
엄마 챙기느라 아빠를 뒷전으로 미뤘던 거,  
좋은 옷 한 벌 명품 지갑 하나 제대로 못 챙겨 드린 것 너무 미안해서 가슴이 메어질듯해...  
아빠 살아계실 적에 한 번도 아빠를 보고 싶다 생각한 적 없었는데  
이제 와서 왜 이렇게 그립고 보고픈 걸까?  
아빠 나 이제 며칠 뒤면 다시 미국 들어가요 그럼 한동안 아빠 보러 못 올 텐데  
아빠 보고 싶어서 가슴이 멍멍해지는 그런 날엔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먼 곳인데...  
그럼 그때는 꼭 내 꿈에 찾아뵙어야 돼...  
아빠 보러 다시 오면 그때 또 편지 올릴게요 내가 다시 보러 올 때까지 아빠 안녕...  
그리고 사랑해요..

- 딸 현주 -



## To 사랑하는 엄마

엄마 나야 송이

너무 보고 싶어서 일단 편지를 꺼냈는데

막상 쓰려니까 뭐부터 써야 할지 잘 모르겠어 엄마랑 똑같네?

엄마 나 엄마 물건 하나둘씩 아님 한 번에 많이씩 정리하고 있어

그릇이고, 반찬통이고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내가 진작에 버리라니까! 속상하게...

엄마 나 이제 면허 따려고... 엄마가 따고 싶다 했을 때 내가 흔쾌히 알았다고 했으면

엄마가 아직도 내 옆에 있었을까? 너무 미안해

돈 때문에 다 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무 미안해 나만 따서 미안해

내가 얼른 따서 엄마 보고 싶을 때마다 보러 갈게 미안해 근데 엄마 너무 보고 싶어..

원망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나 두고 왜 먼저 갔어! 엄마 힘들었던 거 아는데..

내가 이런 말 하면 너무 못한 거 아는데 엄마가 보고 싶어서 너무 원망스러워

근데 나 자신이 원망스러워서 엄마가 원망스러운지 모르겠어

나 결혼하고 아기들도 봐야지... 엄마가 나 임신하면 먹고 싶은 거 다해준다고 했잖아

약속도 못 지킬 거면서 너무해... 엄마... 너무 보고 싶어.. 사실 아직도 실감이 안 나

실감이 나는 게 실감이 안 나 나도 모르겠어 ... 오늘 너무 속상한 일이 많았는데

엄마한테 종알대고 싶은데 엄마는 내 옆에 없잖아... 엄마.. 너무 보고 싶어...

언제쯤 내가 괜찮아질까 괜찮아질 수는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엄마가 편해질까

엄마 너무 미안해 보고 싶어... 내가 많이 사랑해 너무 사랑해

우리 다음 생에 만나면 정말 걱정 없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사랑해 엄마 그리고 미안해



## 아빠에게

안녕 아빠? 잘 지내고 있어?  
 난 잘 지내고 있어. 가끔 안 괜찮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잘 지내는 것 같아.  
 나를 예뻐해 주는 장학사님이랑 좋은 선생님들이랑 같이 일하고 있어.  
 난 아직도 아빠가 보고 싶어.  
 예전엔 보고 싶다고 말하면 아빠가 마음 아플까 봐 보고 싶다고 하지도 못했는데  
 이제는 말해도 괜찮은 것 같아.  
 그만큼 편해졌다는 거겠지. 참 내가 받아온 아빠 선물은 맘에 들어?  
 내가 그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주는 선물이야. 내가 받아왔으니까! ㅎㅎ  
 아빠 이름으로 멋지게 꽃은 그렸어. 시도 한수 써줬어. 맘에 들지? ㅎㅎ  
 거기는 어때? 어떻게 지내든 여기보다 나을 것 같긴 해.  
 저번에 갔을 때 훨씬 편해진 걸 느꼈거든. 이제 울지 않지?  
 인상도 안 쓰고? 그렇다면 다행이야 ㅎㅎㅎ  
 아빠 위해서 기도를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  
 계속 기도를 하면 나도 힘이 날 텐데 바쁘고 힘(체력) 드니깐 그게 잘 안돼.  
 그래도.. 아빠가 잘 지내서 참 다행이야 허허 허허  
 그리고 아빠 가고 나서 이제 성모님이 직접 나를 돌봐준댔어! 그러니깐 걱정 안 해도 돼.  
 하긴 이제 행복하니깐, 우리보다 많은 걸 알고 있으니깐 걱정 안 하지?  
 뭘 쓸까 걱정했는데 그래도 쓰다 보니 많이 썼네. 덕분에 이어 유 ㅎㅎ  
 예수님 성모님한테 많이 위로해달라고 전해조. 엄마한테는 많이 안심시켜달라고 전해조.  
 아빠는 언제나 나한테 좋은 아빠였어.  
 최고의 아빠. 그러니까 앞으로도 잘 부탁해유~~ ㅋㅋㅋㅋㅋ

- 수현 -

P·S 이근영 짱!!



## To 천국에 계신 엄마..

엄마.. 나 맏딸 선영이에요...

요즘 천국은 어때? 여긴 벌써 겨울이 다가와요.. 제이, 제나 잘 지내요..

제나는 벌써 1학년 티가 나요...

받아쓰기도 잘하고 100점 맞고 0점 받아왔을 땐 울드라고요..

귀여워요... 공부에 욕심이 생겼어요...

제이도 욕심이 생겨서 제나가 잘하면 제이도 잘하고 싶어서 해달라고 해요..

교회는 권사님들이랑 잘 지내고 있어요.. 엄마도 천국에서 보면 아실 거예요..

조금 답답하지만.. 그래도 열심히들 노력하세요...

요즘 청년들은요.. 다들 각자 자리에서 열심히 하려 해요... 그래서 더 기특해요...

그리고 이모랑 가끔 연락하는데.. 엄마가 보고 싶어 하세요..

엄마 목소리 가끔 생각나신다고.. 그러면서 믿음에 매진하려 노력하고 있데요..

참 혜영 언니랑 같이 산데요... 그래서 애들로 전학했는데 너무 잘 적응하고 민정이,

민혁이, 민요 너무나 잘 지내고 있데요...

모두 건강히 잘 지내고 있어요.. 김서방도 잘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이 정말 많이 변했어요.. 이젠 마스크 없이 못 다니고 코로나 백신도 맞고..

정말 세상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네요...

걱정하고 엄마가 있으면 기도하자고 더 열심히 같이 했을 텐데...

엄마... 세상은 더 악해 가지만

그래도 믿는 사람이 더 열심히 기도하면 도와주실 거예요..

엄마 늘 보고 싶고 엄마의 생각과 모든 행동 잊지 않고 기억할게요.. 사랑해요~

천국에서 잘 지내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 선영 올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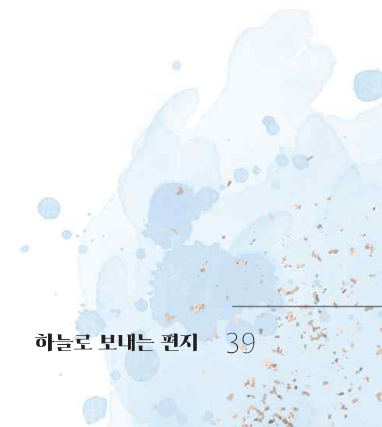





## 너무나 그리운 우리 아빠에게

아빠가 우리 곁을 떠난 지 6년이 되어가네  
훈련소 때 이후로 쓴 편지는 처음인 것 같아  
이제는.. 아빠가 갑작스럽게 우리 곁을 떠났을 때보다는 무덤덤해졌지만,  
그래도 지내다 보면 생각날 때가 종종 있어.  
오늘은 곧 어버이날이기도 해서, 찾아왔어.  
내가 자주 오지 않아서 많이 서운하지?  
아마 내가 이곳에 있었다면 아빠는 매일 같이 왔을 것이라 생각해.  
그만큼 나는 아빠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왔었고  
나도 아빠의 애정을 알고 또 잊을 수 없어.  
아빠 살아생전에도,  
지금까지도 항상 감사한 마음이야.  
아빠의 사랑으로 엄마를 늘 행복하고 건강할 수 있도록 보살펴줘.  
사랑해.  
또 올게.

- 경덕 올림 -





## 사랑하는 아빠.

아빠의 첫 번째 기일이 지나고서 더 그립고 보고 싶어요.

이제 안 계시다는 현실이 실감 나서인가 봐요.

오늘 수지랑 남대문 다녀왔어요.

코 수술한 거 실밥 제거도 해야 돼서 병원 가는 날이거든요.

기선이랑 기일 전에 꾸미려고 샀던 아크릴 박스 안이 허전하고 초라해서  
안중 집에 있는 양주 장식장이랑 똑같은 미니어처 기구에 미니어처 양주,  
액자도 새로 사고 꽃다발도 샀어요.

죄송해요 살아계실 때는 해드리지도 못했으면서

이제 와서 열심히 하는 게 더 불효 같긴 해요

하지만 저 나름 발품을 열심히 팔았어요.

이게 어울릴까 저게 나올까 신중을 가하고 고민을 하고 어여쁘게 봐주세요.

저의 이런 진심이 하늘에 닿아서 아빠도 좋아하셨으면 좋겠어요.

남대문 돌아다니면서 별천지라 구경할게 얼마나 많은지  
한 번도 못 모시고 와서 후회하고 자책하고 반성합니다.



## To 엄청나게 보고싶은 사랑하는 아빠♡♡

아빠!! 안뇽 아빠가 무진장 보고싶은 딸 헤민이다ㅋㅋ  
아빠 보러가기 전에 하고싶은 말 편지로 남기려고 열심히 쓰고 있지요  
아빠한테 전해질거라고 믿고 하고싶은말 다해야지  
딸 요즘 다이어트 열심히 하고있는 중이야  
3월 둘째주 정도부터 했는데 8Kg정도 빠진거 같아 ㅋㅋ  
아직 목표 몸무게 까지는 한참 남았지만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려구 지켜봐줘!!  
다음에 갈때는 다른 내가 갈수있엉  
아빠도 하늘에서 딸 열심히 할수있게 도와줘♡  
그리고 요즘 엄마가 잔잔바리로 계속 아픈곳이 있다..  
아빠가 위에서 엄마좀 지켜줘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아  
엄마는 아프지만 양게 아빠가 지켜주라 딸이 더 잘할게  
요즘에 약간 우울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딸은 그런거 잘 극복해가려고 노력중이야!!  
아! 딸은 남자친구랑 안싸우고 잘 만날수있게 돈좀 잘모을수있게 도와줍쇼  
딸이 아빠보러 시간될때마다 보러갈게  
꿈에도 한번 나와줘서 고마워! 자주 나오면 딸은 너무 좋아  
너무너무 아빠가 보고싶고 집에 항상 같이 있는것처럼 느껴지는데 너무보고파..  
계속 아빠한테 화내고 승질만 냈던것만 생각나서 너무 슬프고 너무 미안해  
딸 용서해줄거지?  
아빠 또 편지쓸께 너무너무 사랑해  
내 아빠라 너무 고맙고 또 태어나도 아빠딸로 태어날거야♡



## 엄마 잘 지내요?

엄마 못 본 지 벌써 일 년이 됐어요

그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어서 엄마 얼굴 보고 얘기해 주고 싶은데

엄마 볼 수 없어서 참 아쉽고 항상 보고 싶어요.

그래도 우리는 엄마 볼 수 없어도 저 먼 하늘나라에선 엄마가 우릴 지켜보고 있다고,

거기선 아프지 않고 여기같이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 없이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고 믿고 있을게요.

그렇다고 우리 완전히 잊지는 말고

가끔은 꿈에라도 나와서 얼굴이라도 보여주고 목소리 들려줘요.

우린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엄마 딸 아들로서 남부끄럽지 않게

멋있고 자랑스럽게 살아갈게요. 항상 응원해 줘요.

엄마 우리 낳아주고 길러주고 사랑해 줘서 고마워요.

항상 사랑하고 보고 싶어요

- 엄마를 사랑하는 아들 원진 올림 -



## 아빠에게..

아빠! 아빠라고 불러본 지도 너무 오래되었네 그치?  
오늘이 벌써 아빠 돌아가신지 1년이 되어버렸다 시간이 참 빠르네?!  
잘 지내? 거긴 소주랑 막걸리 없을 텐데 술 먹고 싶어서 우짤데..  
겨울에 한 번씩 감기 크게 왔는데.. 아픈 곳은 없을 테지..  
어떻게 아냐고? 술을 못마시니까ㅋㅋ  
아빠! 나는 요즘 아이 가질려고 병원을 다녀 이제 막 시작 단계인데  
엇그제 시술받는데 너무 아프더라, 잘 이겨내면 올해는 아기가 찾아오겠지?  
아빠가 딱 나 같은 딸 선물로 보내주라~ 그럴 거라고 믿어!  
아니다 아빠는 아들이 없으니까 아들로 보내줄래? 둘 다 좋아ㅋㅋ  
올해 우리 목표는 아이를 갖는 거야!!  
근데 요즘엔 뭐 하느라 꿈에도 안 와? 보고 싶은데.  
아빠 보고 싶어~~ 간간이 꿈에 나와야지~ 서운하게!!  
나는 아직도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걸 보면 아빠가 너무 그리워 봐.  
한편으론 걱정거리였던 아빠가.. 이렇게 떠나보내고 나니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네..  
그래도 아빠 나는 성공했네!!  
아빠같이 표현력 없는 사람한테 사랑한다는 말도 들어봤으니까!  
그걸로 됐어!  
아빠! 오늘 내가 준비한 음식 많이 하지는 못했지만  
정성 들어 했으니까 와서 맛있게 먹고 가 그리고 내 머리 쓰담쓰담 해주고가 알겠지?  
사랑해 아빠.. 그리고 고마웠어 건강히 지내고 항상 알지?  
영님이 하고 있어!!

- 아빠의 하나뿐인 작은 딸랑구 초롱이 드림 -



## 사랑하는 나의 아빠 장기하.

나는 당신이 사랑하는 딸 장보람  
35년을 살고, 10년을 넘게 아빠랑 지내면서 울고, 웃고, 아프고,  
행복하고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아빠가 가고 난 뒤 돌이켜 생각해 보니  
그 모든 순간이 내겐 기쁨이고 축복이었어.  
아빠에게 몸쓸 말, 행동들을 했던 나를 후회하고,  
같이 살고 싶단 그 간절한 외침들을 외면했던 날 자책하고, 또 자책하지만,  
그럼에도, 꼭, 꼭, 꼭, 다시 만나자.  
날 용서하고, 사랑했던 마음들 가득가득 담아서 잊지 말고  
가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아빠 딸로 꼭 다시 만나자 아빠.  
의미 없이 했던, 기억도 안날 말, 약속일 수도 있지만,  
이제 남은 나에겐 절실하게 하나 남은 삶의 이유가 됐어.  
아빠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는 모른다고 했지?  
다음에 만날 땐 꼭 내가 차고 넘치도록 알 수 있게 사랑해 줘.  
사랑하고 사랑하고 사랑해, 꼭 약속 지켜서 만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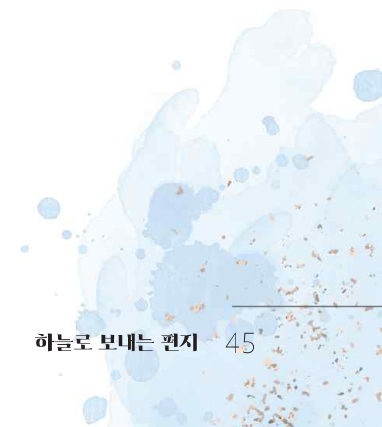
- 영원히 아빠의 사랑하는 딸 보람이가 -




## 너무 사랑하는 엄마께 엄마!

안녕 엄마가 하늘나라에 간지 1년이 됐어  
거기 어때 편해?  
나는 엄마가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좋아♡  
그렇지만 이젠 영영 볼 수 없게 됐어  
다다음 주에 학부모 수업 있거든 엄마 그때 나 보러 올 거지!  
엄마 나 그리고 학교에서 영어시험 봤는데 100점 맞았다.  
나 잘했지! 엄마 그동안 내가 못해줘서 너무 미안해  
그래도 엄마가 하늘에 있다는 거 아니 기도하니까  
나는 내 소원이 엄마 목소리를 듣고 싶어  
엄마가 떠나기 전에 마지막까지 함께 있어줘서 고마워  
엄마 그럼 나중에 또 보자 안녕!  
아! 그리고 거기에서도 편하고, 건강하게 지내♡♡  
안녕

- 엄마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나연 올림 -





## To 사랑하는 우리 아빠♡

아빠~ 나 인선이야

벌써 아빠가 하늘에 간지 8년이 되었어ㅜㅜ

그동안 안 좋은 일도 많았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나도 진희도 잘 지내고 있어..

주원이, 서원이 키우면서 내가 아빠 엄마 속 썩였던 어린 시절 생각이 많이 나~

나 잘 크라고 아빠가 했던 꾸지람들이 그립다..

다시 돌아가면 말 잘 듣는 착한 딸이 될 수 있을 거 같은데...

아빠!! 너무 빨리 우리 곁을 떠나서 아쉬움도 미안함도 많아..

자주 찾아오지 못해서 미안해~

그곳에서 아빠가 꼭 행복하길 항상 마음으로 기도할게~

아빠~ 부족한 딸 사랑으로 잘 키워줘서 고맙습니다♡ 사랑해♡

- From 큰 딸 인선이.. -





To 사랑하는 엄마♥♥  
(나의 천사)

엄마를 보내고 가슴이 많이 아프더라  
9월 초 강북 병원에서 따뜻하게 손잡아 줄걸.  
옆에 딱 붙어서 팔짱도 끼고 엄마 느려진 걸음에 맞춰 함께 다정히 걸을걸..  
우리 집에 같이 가서 하루같이 잘걸..  
고기 먹을 때도 투덜거리지 않고 한 쌈 싸줄걸..  
아들이 가슴이 미어지게 아프고 미안할 뿐이다.. 눈물만 하염없이 흐른다.  
그렇지만 이런 내 마음이 엄마를 더욱 힘들게 할 것 같아. 밝게, 활기차게 살아갈게.  
내일 아빠랑 얼굴 보러 갈게 자주 갈 거야. 내 일도 물론 열심히 할 거고.  
엄마가 나 훈련병 때 써준 편지를 봤어.  
'고난도 인생에 유익하단다' 이 말 잘 새기고 당차게 살아갈게.  
'터놓을 곳이 없다' '괴롭다'라는 멀티 프로필을 봤어.  
이젠 그곳에서 행복한 순간만 가득할 거야.  
아주 흑시라도 외롭거나 힘들면 꿈에서 만나.  
아니면 비를 내려. 내가 다독여줄게..  
한평생 날 위해 희생한 엄마.  
정말 고맙고,, 미안하고,, 사랑해.  
사랑한다는 말로 채워지지 않네.  
다음 생에도 엄마 아들로 꼭 만나자.  
제주도 여행도 가고..^^  
부디 그곳에선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하길..

- From 하나뿐인 아들 재경 -



## Dear 사랑하는 나의 아빠

아빠, 너무 오랜만에 편지를 쓰네요.  
모든 일엔 시간이 약이라고 하던데  
아빠의 부재, 아빠에 대한 그리움은 자꾸만 점점 더 커져만 가네요.  
엄마 곁에는 듬직하게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이젠 저뿐이고  
아빠의 못다 이룬 꿈을 이뤄드리기 위해서는  
예전보다 강해져야 하는데 자꾸만 약해지네요.  
한 번이라도 저에게 찾아와 지금 잘하고 있다고 해주시면 안 되나요?  
아무런 대가 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셨던 아빠의 품이 너무나도 그립습니다.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항상 엄마랑 저 보살펴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다음에 올 때엔 멋진 여성으로, 한 단계 성장한 어른이 돼서 찾아올게요.  
아빠, 진심을 다해 사랑합니다.

P · S.

이렇게 편지가 아닌 아빠의 얼굴을 직접 마주 보며  
도란도란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 편지가 제발 아빠가 계신 곳까지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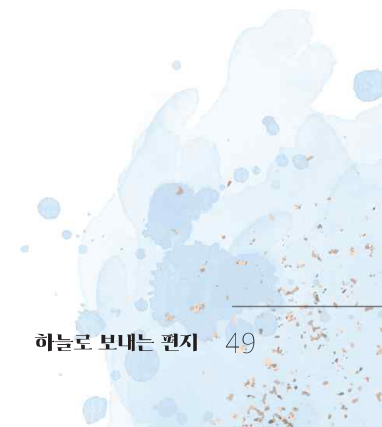
- From. 아빠가 사랑하는 딸, 나영 -




## 사랑하는 우리엄마♥

오늘 각원사에서 49재를 했어요.  
아빠가 저를 속상하게 했지만 잘하고 집에 모셔두고 쉬시라 하고서 저만 엄마 뵈러 왔어요.  
형은 오늘 저녁 출근이라서 함께 오지 못했어요.  
내일이나 모래에 형과 함께 또 뵈러 올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엄마 다들 아빠를 천덕꾸러기 취급하네요.  
엄마가 항상 걱정하셨었죠.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의 자랑스러운 아들이 있잖아요.  
항상 엄마가 보고 싶고 그리워도 사랑해요.  
왜 제 옆에 계실 때는 제가 사랑한다고 표현을 못 했을까요...  
그래도 알고 계시죠?  
아들들은 엄마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요..... ♥  
엄마는 항상 저를 응원해 주고 격려해 주시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엄마가 없으니 용기가 없어졌어요.  
그래도 엄마가 저를 지켜보신다는 걸 믿고서 힘내볼게요.  
평안하세요. 우리 엄마...  
많이 사랑해요. 보고 싶어요.  
또 만나요 우리...

- 둘째 아들 관용 올림 -





## 어머님, 아버님!

그곳에서 평안하신가요

한 번도 만나 뵙지 못해 못내 아쉽지만, 이렇게나마 인사드립니다.

병마와 싸우시며 고단했던 마음들은 다 털어버리셨겠지만,

자식들에 대한 걱정은 아직 놓지 못하셨겠지요..

아들을 두고 먼 곳으로 떠나시며 우려하셨을 그 마음을,

어떻게 감히 다 헤아릴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제 그런 걱정은 모두 내려놓으시고 편히 쉬세요

이제 저희 평생 동안 서로를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려 합니다.

제가 오빠 옆에서 늘 함께하는 가족이 되어줄게요.

하늘에서 저희 두 사람 꼭! 응원해 주시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건강한 가정 만들 수 있도록 항상 지켜봐 주세요

오빠와 저에게 큰 사랑 많이 많이 봐주세요♥


- 연수 올림 (광명) -



♥사랑하는 우리 아빠에게 전하는 편지♥

아빠! 저는 아빠가 사랑하는 막내딸 소희예요.  
이 편지를 읽으시길 바라면서 오랜만에 편지를 써 내려갑니다.  
아빠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어디 아프신 곳은 없으신지? 별일 없으신지..  
묻고 싶은 말도 듣고 싶은 말도 참 많습니다.  
최근에 제 꿈속에 너무 자주 나와서 얼굴을 비추셨는데..  
딸이 너무 오랫동안 보러 오지 않으니 많이 보고 싶으셨죠?  
아빠, 저는 어느새 28살이 되었습니다.  
어린아이 같던 막내딸이 어느새 어엿한 성인이 되었고,  
이제 한 가정의 아내가 되려 해요.  
아빠! 저 내년 5월에 결혼해요. 평생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을 만났고  
평생 발맞춰 걸어보려 합니다. 아빠가 꼭 살아계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아빠가 계시질 않으니 더욱더 보고 싶고 자리가 허전해요.  
아빠! 저는 정말 행복한 가정을 꾸려 평생을 이끌어가고 싶어요.  
비록 직접 뵈고 인사드리진 못했지만 하늘에서 잘 지켜 봐주세요.  
아빠! 어느새 7년이 되어가요. 언제쯤 아빠의 빈자리를 느끼지 않을까요?  
1년씩 지날수록 더욱 빈자리가 느껴져요.  
꼭 다음 생엔 내 아빠가 아닌 자식으로 태어나 아낌없이 무한한 사랑받으며  
외롭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빠, 저 행복하게 잘 살게요!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사랑해요 다음에 또 올게요. 아프지 말고 꼭 쉬세요

♥그리고 오늘 제가 만들어온 도시락  
맛있었죠~? 다음에 또 해올게요♥



## To 사랑하는 아빠(박승균)

아빠 이 편지가 진짜 하늘로 가서 아빠가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믿어보고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도 많은데  
아빠가 너무 갑작스럽게 떠나버려서 적어봐  
옛날에 내가 어렸을 때 아빠한테 편지 써주면  
아빠는 항상 그 편지가 낡아서 닳을 때까지 지갑에 넣고 다녔었는데  
그런 걸 알면서도 왜 자꾸 편지를 안 써줬을까도 후회가 돼 편지 좀 많이 써줄걸.  
아빠 장례식 할 때 아빠 친구분이 오셔서 나한테 아빠가 내 자랑 많이 했다고  
그러시더라고 이미 너무 많이 울어서 힘들었는데 다시 그 말을 들으니까 확  
울컥하더라고 내가 아빠한테 그렇게 잘해준 것도 내가 특출나게 잘난 것도 없는데  
나를 그렇게 자랑하고 다녔다니 낱골당에 들어갈 사진에도 적었지만  
나도 항상 주변 애들한테 우리 아빠는 내가 전화하면 주응~  
이려고 항상 사랑한다고 해줘서 좋다고 자랑 많이 했는데  
아빠가 나한테 보낸 문자들도 자랑하면서 근데 아빠는 이 사실을 알았을까?  
아빠가 나한테 정말 좋은 아빠고 나도 의지 많이 됐다는 걸  
살아있을 때 말해줬어야 했는데 그래도 알았으면 좋겠어  
아빠가 내가 자랑스러운 딸로 자랑 많이 했으니까  
정말로 자랑스러운, 내가 생각해도 떳떳한 딸이 될 수 있게 노력하고 그렇게  
위에서 내 걱정 너무 많이 하지 마 나는 아빠 딸이니까 뭐든지 잘할 수 있어 자주 올게  
외로워하지 말고 있어 꿈에도 많이 나와줘 이 편지 보면 보고 싶어 많이 사랑해  
살아있을 때 못한 말을 지금 하지만 아빠가 나한테 했던 것보다  
내가 더 많이 할 거야 잘 있어!

- 아빠의 하나뿐인 딸 주은 올림 -



## 사랑하는 나의 엄마

엄마. 생일 축하해♡  
 무척이나 덥다고 생각했는데. 여름이 길었나? 생각도 들기 전에 벌써 가을이네..  
 올해는 유독 장마가 길었어. 장마가 끝나고 나니 가을..  
 달은 가을인데, 장마가 늦게 끝나 폭염주의보네..ㅋㅋ  
 엄마, 잘 지내고 있어? 하늘에선 아픈데 없지?  
 난 요즘 엄마가 끓여주던 된장찌개가 너무 그리워 일찍 가을을 타나?  
 요즘 나는 또 외로움을 타. 그냥 심리적으로 힘들어서 그런가.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엄마가 도와준 덕분인지, 나는 곧 내 가게를 해..ㅋㅋ 엄마가 함께였으면 더 힘이 났을 텐데.  
 나는 아직도 그리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거 같아.  
 곁에서 지켜봤으면, 엄마도 정말 좋아하고 뿌듯해했을 텐데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지?  
 엄마가 착한 동생들 낳아준 덕분에, 리원이랑, 무희가 청소도 도와주고  
 리원이가 다 도와주고 해줬어.  
 그것도 내 복이지. 고마워 엄마, 잘 키워줘서.  
 6월엔 원희가 두 돌이었어. 그리고, 엄마 마지막 모습을 본 날이기도 하고,  
 7월엔 미희 생일, 근데 마냥 기쁘지만은 않더라. 내가 엄마가 되어보니..  
 엄마, 너무 그립고, 살결 한번 만져보고 싶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며 밥 먹고 싶고..  
 그래서 내가 요즘 혼자 떠나고 싶은가 봐. 곧, 오픈 앞두고, 부담감.. 그리고, 휴식..  
 잘할 수 있겠지. 난 잘할 수 있을 거야. 누구보다 난 강해.  
 고마워 엄마. 나 잘 키워줘서. 늘 미워했지만, 늘, 사랑했어.  
 참, 힘들었을 텐데, 우리 셋 놓지 않고 키워줘서 고마워.  
 내가 엄마가 되어보니, 알겠다. 이제 시작임에도..  
 엄마, 내가 사랑하는 우리 엄마. 나 지켜줄 거지?  
 용기와, 지혜와, 강한 체력.. 줘ㅋㅋㅋ  
 엄마, 너무 보고 싶고, 너무 사랑하고, 생일 축하해요, 고여사님♡

- 큰 딸 미희 올림 -



## 사랑하는 아빠

5월 첫 주를 맞아 황금 같은 연휴 내내 비가 오고 날씨가 흐려요.  
내일은 어버이날인데 예전에는 솔직히 달갑지 않은 적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많이 해드릴 수 없는 형편이 싫었던 게 제일 큰 이유겠죠  
그래서 어버이날 같은 거 없어져 버려라 막말도 내뱉었어요.  
하지만 지금에 와서 돈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진정한 대화 잠깐의 시간이라도 얼굴을 바라보고 눈을 맞추면서  
진정한 걱정과 안위와 위로, 배려, 이해 이런 것들만 잘 이어왔으면 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만 있을 뿐이에요.  
알면서도 왜 아껴왔는지...  
이 버르장머리 없는 자식이 밉지는 않으셨는지 서운하지는 않으셨는지..  
기선이가 아빠의 핸드폰을 보관하고 있더라고요  
전원을 켜서 작년 아빠 돌아가시기 전 한 달 안에 제가 전화를 한 통도 안 했더라고요.  
일주일 전 단 한 번 목소리 들은 건 고추장 얻으려고 엄마한테 전화 건 건데  
씻느라 아빠가 대신 받으셔서 통화한 게 마지막이었고 그게 다더라고요.  
이제 와서 다 부질없는 거 알아요  
아빠한테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빠 마음 못 알아봐 드려서 미안하다고 하고 싶어요





## 사랑하는 우리 아빠 김정옥♥

아빠! 하늘에서 잘 지내고 있어?  
어느덧 아빠가 하늘로 간지 2년이나 되었어.  
무더웠던 날씨가 슬슬 선선해지고 9월이 되면은 아빠 생각이 더 간절하게 나는 것 같아.  
아빠.. 엄마랑 재완이랑 나는 제법 씩씩하게 잘 지내고 있어.  
엄마도 이것저것 열심히 배우고, 재완이는 착실하게 대학원 생활하고 있고,  
나는 구시렁 구시렁대긴 해도, 회사에서 인정받으며 잘 지내고 있어.  
항상 우리 보고 있는 거 맞지??  
나는 요즘 임신 시도로 바쁜(?) 데, 부모가 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니,  
엄마와 아빠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  
특히 우리 집은 아빠 혼자 돈을 벌었는데, 아빠가 정말 대단한 거였구나 이제야 알겠더라고,  
내가 자라면서, 부족함 없이 키워주고,  
바르게 클 수 있도록 훈육해 줘서 아빠 너무너무 고마워.  
어릴 때는 아빠가 마냥 무서웠는데 다 아빠의 사랑이었던 걸 30대가 돼서야 알게 되었네...  
아빠, 많이 고맙고... 많이 많이 사랑하고...  
많이 보고 싶어요♥♥  
항상 엄마, 재완이, 태영 오빠 지켜봐 줘!

- 딸 소영 -





## 엄마

엄마. 많이 기다렸지? 미안. 너무 오랜만에 들렸네.  
엄마 내 편지 참 좋아하잖아.  
이모들 카톡 방에도 늘 자랑하고, 엄마 빈자리가 참 크다.  
요즘 들어 일이 덜 바빠서 그런가, 이런저런 고민으로 참.. 쉽지 않다.  
걱정 마 엄마.  
아들이 강인하게 잘 헤쳐나갈게.  
여자친구랑은 알콩달콩 잘 만나고 있어~  
엄마도 봤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제 겨울이 가고 봄이 오네.  
엄마랑 벚꽃 보러 간 기억이 없네.  
아마 아주 어릴 적엔 갔겠지?  
그곳에선 잘 지내는 거야?  
엄마는 늘 주변에 인기쟁이니까 잘 지낼 거라 믿어.  
보고 싶다.. 사랑해! 또 얼굴 보러 올게.

P · S. 안전안전할게!

- 사랑하는 아들이 -



## 엄마

엄마 잘 지내? 나는 아직도 엄마가 너무 보고 싶고,  
엄마라는 말이 내 입에서 나오면 눈물부터 먼저나.  
엄마가 걱정할 거 아는데도 어쩔 수 없나 봐..  
나 지난주 주말부터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해.  
힘들지 않겠냐고 주변에서 걱정 많이 하는데 아직은 힘들진 않고 재밌어 ㅎㅎ  
요즘 너무 고민이 많아, 윤이는 내년이면 졸업하는데 모아놓은 돈도 없고,  
아빠는 나한테 관심이나 걱정도 없는 거 같고, 너무 힘들어  
그런 만큼 너무너무 엄마가 보고 싶어  
엄마가 내 곁에 있었다면 좋겠어.  
지금도 내 마음속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있겠지만, 엄마도 하늘에서 우리 많이 걱정하겠지?  
올해 우리 엄마 생일 못 챙겨줘서 미안해  
대신 제사 때나 명절 때 맛있는 거 많이 해놓을 테니까 꼭 먹고 가~  
많이 부족해도 엄마 생각하며 만들 거야.  
살아생전 많이 못 해줘서 미안해  
기운이도 아빠 닮아서 그런지 평소에 내가 연락하지 않는 한 연락 잘 안 해~ 남자라 그런가.  
앞으로 엄마 자주 보러 갈게.  
매일 말만 그래서 미안해..  
그래도 엄마 사랑해  
내가 세상에서 제일 많이 사랑하고 미안해^^  
엄마 잘 자♡



##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나의 엄마 고여사님

엄마 그동안 잘 지냈어?

엣그제 왔다 갔는데도 또 보고 싶고 그리운 나의 엄마.

엄마 벌써 가을이야. 가을치고는 비가 많이 내리고 바람도 거세게 불어,  
우리 동희는 또다시 코감기 시작.. ㅠㅠ

엄마 하늘 위는 날씨가 어때? 맑아? 웬지 구름 위는 햇빛이 짹하니 맑을 것만 같은데..

엄마 오늘은 2019년 9월 10일 오후 11:50분이야

바람도 엄청 불고 빗방울도 떨어져.

무희가 온다더니 먼저 자라고 하네.

요즘 뒤늦은 사춘기인가 속 썩이진 않지만 너무 걱정을 시켜.

이 또한 내가 무희를 독립시키지 못했다는 마음에 증거겠지?

엄마, 세상을 더불어 살아간다는 게 참 어렵다 그치?

내가 잘 살아서 도와주고 품어주고 살면 참 좋을 텐데,

아직도 못한 언니라 그러지 못하고, 나도 우리 집도 어디부터 꼬이기 시작했는지,

5월... 동희 아빠가 아픈 이후로, 가장이 무너지니 모든 게 엉망이 되고

엉망이 된 게 다시 되돌아오기가 참 힘들고 멀고.. 머네..

엄마가 되고 나서 한 해, 두해가 지날수록 엄마가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는지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무게감이 얼마나 컸을지 감히 짐작이 가.

내가 엄마가 되어보고 나니..

엄마. 생일 축하해. 올해는 엄마 생일에 못 올 거 같아,

차도 막히지도 애들도 힘들고 동희 아빠도 못 가고.. 이해하지? 미안해.

명절이 생일이라. 항상 아침밥 혼자 먹게 하고 쓸쓸한 아침 맞이하게 해서 정말로

미안해. 엄마는 혼자였는데.. 늘..

엄마를 먼저 챙겼어야 했는데, 못한 큰딸은 뒤늦은 후회를 해..

그 아침이 얼마나 외롭고 쓸쓸했을까. 올 거라는 걸 알면서도.



그래서일까 미안한 마음 때문에, 엄마를 마지막으로 본 그날이 꿈에 계속 나와.  
 그렇게라도 보고 싶은 마음 때문일까,  
 하얀 천에 덮히기 전 엄마 얼굴 그렇게라도 볼 수 있어서 감사해.  
 엄마 얼굴이 잊힐까 봐 두려워. 그냥 사진 속 엄마 모습으로만 기억될까 봐.  
 엄마 얼굴, 엄마 느낌, 엄마 냄새.. 잊고 싶지 않은데.. 냄새는 잊혀 가고.  
 아직도 엄마 모습 기억에 생생해, 잊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꿈에 나타나줘..  
 사랑하는 나의 엄마,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 엄마랑 밤새 도란도란 얘기하고 싶다.  
 요즘엔 동희가 커서 이불을 덮어주고 토닥여주는데 가끔은 엄마가 보여.  
 느낌이 손이 따뜻하고 답답하니 배만 이불 덮고 자라고 하고..  
 참 많이 컸지? 우리 동희 너무 이쁘게 자라고 있어서 감사해.  
 엄마가 봤으면 정말 좋아했을 텐데 우리 윤희는 이제 제법 잘 걸어 다녀  
 치아도 7개나 났고,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어린이집도 잘 가.  
 리원이랑 태희랑 처음으로 같이 해외여행을 계획해 봤어.  
 여유가 없지만 지금이 기회인 거 같아서 무희도 물어봤는데.. 모르겠네 ㅠㅠ  
 다 같이 가면 좋을 텐데... 가게 되면 잘 다녀올게!!  
 엄마. 사랑하는 나의 엄마.  
 생일인데 다 같이 못 와서 너무나 미안하고 죄송하고, 이해해 줘.  
 엄마. 사랑해. 꿈에 와서 예전처럼 매니큐어도 발라주고 머리카락도 말려주라  
 우리 큰딸 잘 잔다고 이불도 덮어주고.  
 엄마. 밤이 늦었다. 잡시다!! 잘 자 엄마.  
 또 한 번 사랑해. 많이 보고 싶고 그리운 나의 엄마...

-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11일 새벽에 큰딸 올림 -



## 사랑하는 아빠

어제는 잘 다녀가셨는지요!

삼촌네도 오고 미정이 고모, 막내 고모도 오셨어요

아빠의 첫 번째 기일이기도 해서 모두들 오신 것 같은데

다음 해, 그다음 해 또 다음 해 언제까지 오실진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각자 나름대로 아빠를 그리워하며 회상한다는 거예요.

모두들 아파하고 그리워한 만큼 성숙한 것 같아요.

늦은 시간까지 정리해 주고 가시느라 고생들 하셨어요.

혼자서만 마음 정리하시지 말고 눈치라도 주시지

어제 제사상에 놓인 사진 보니까 너무 보고 싶어

혹시라도 저의 눈에 영가라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잠깐 이상한 생각을 했어요.

그럴 리가요 턱도 없는 소리죠.

무당을 하는 분들은 자기 부모님이나 조상을 볼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정말 좋은 직업이네요.

꿈에 보이면 안 좋은 거라는데 그래도 보고 싶어요.

오늘은 꾸려나 또 내일은 꾸려나 기대하면서 잠들기 일쑤예요.

요즈음엔 작은 초 하나 켜놓고 기도도 간단히 하는 버릇 들이고 있어요.

남은 인생은 엄마를 위해 가족을 위해 살고 싶거든요



## 사랑하는 엄마에게~~

벌써 엄마라는 단어를 떠올리니, 눈물부터 나네요.  
우리 가족들은 아직도 믿어지지 않은 현실 속에서도  
더 열심히 아버지 돌보며 잘 살고 있어요.  
지금은 엄마에게 고마운 맘이 미안한 맘보다는 더 크고,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우리 4남매 잘 키워주셔서 더욱더 감사드려요.  
너무 안타까운 것은 엄마 인생보다 가족들 챙기느라  
본인 인생을 충분히 즐기지 못한 게 너무 맘 아파요..  
하늘나라에 가서서는 아프지 마시고,  
즐겁게 건강하게 웃으시며 사시길 기도드릴게요..  
엄마~~ 항상 내 편인 엄마♠  
길러주시고 키워주셔서 감사드려요.  
당신의 끝없는 희생 우리 4남매가 가슴속에 되새기며  
아버지 모시고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천국에 있는 우리 엄마 정대운 에게 아들 한재경이 보냅니다.  
사랑한다는 말이 그곳에 닿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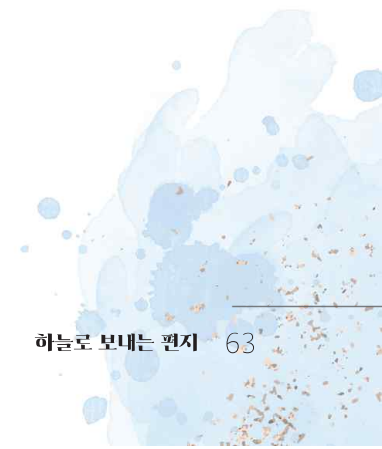
## 보고싶은 이미란씨♡

엄마 나 엄마 못난 딸땡 은서야  
편지를 써본 게 언제 적인지 기억도 안 나.  
항상 속만 썩여서 미안해.  
핑계인데 시간이 많은 줄 알았고  
항상 언제나 그랬듯이 내가 이기적이라서 그랬던 것 같아 용서해 줘.  
엄마가 아픈데도 나는 내 생각만 했어. 엄마가 나 미워해도 할 말이 없어.  
그래도 조금만 미워하고 꿈에 나타나주라.  
너무 보고 싶고 그때 화냈던 거도 사과를 못했어  
엄마 거기는 어때 더 이상 아프지는 않아?  
그만 아팠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긴 했는데  
나 때문에 엄마 이렇게 꽃다운 나이에 간 건가 봐.  
엄마 우리는 엄마가 없어도 그럭저럭 잘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어.  
아빠도 티는 안내지만 많이 힘들겠지?  
내가 짜증만 너무 내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 너무 보고 싶어 내가 엄마 건강 더 챙기고 그랬어야 했는데  
너무 무심경했던 것 같아 올 엄마 생일도 안 챙겨주고 나는 그게 너무 한이야.  
올해가 마지막 생일이 될 거 내심 짐작하고 있으면서...  
엄마 간병하기 힘들다는 핑계로 내가 너무 소홀했어..  
미안해 엄마. 다시 우리에게 오고 싶지 않을 거 아는데  
그래도 종종 얼굴 비춰주라 나 벌써 엄마가 아프기 전에 어땠는지 기억이 안 나  
나도 점점 아파지는 건가. 건강관리 열심히 할게  
나중에 너무 일찍 왔다고 엄마가 화낼 것 같아.  
사실 일찍 가고 싶어 나한테 왜 이런 일은 이렇게 빨리 일어날까





하늘이 너무 야속한데 내 탓이야 누굴 탓하겠어.  
너무 두서가 없지?  
엄마 보러 종종 간다 해놓고 지키지 못했네  
미안해 내일 꼭 갈게 보고 싶다 우리 엄마.  
많이 사랑해 엄마.  
내가 표현 안 해서 미안해 쑥스럽다는 핑계로  
엄마 너무 속 썩인 것 같아 아직 너무 실감이 안 나.  
마음의 준비도 했었거든? 근데도 힘들어  
엄마 다음 생에는 꼭 우리 근처에 있지도 말고 좋은 딸 만나서 꼭 무병장수해.  
우리 때문에 엄마 아팠던 게 분명해. 미안해  
잘 살지 못하겠지만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하지도 말고 미련 없이 우리 곁에서 떠나.  
그래도 가기 전에 간다고 말은 해주고 가야 돼.  
너무 사랑해 엄마.  
미안하고 또 미안해 보고 싶어 지켜주지 못해서 죄송해요.





## 보고싶은 엄마

엄마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네요.

하늘나라에 계신 엄마, 아버지 정식이는 잘 있는지요.

우리 이곳에는 사위를 비롯한 나 은혜 가족도 잘 지내고 있어요.

엄마 저번에 강원도 삼척 장미공원 갔는데 꽃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엄마 생각이 절로 나더라고요.

엄마가 꽃은 너무 예뻐했잖아요.

옛날 시골에 창문에 꽃을 많이 심었지요.

옛날에 엄마랑 같이 살 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그때는 왜 몰랐는지요.

돌아가신 다음에야 후회되는 건 왜 이렇게도 많은지요.

엄마 나 며칠 아팠어요.

엄마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이제는 아프지 않고 씩씩하게 잘 지낼게요.

엄마 평생을 걱정하게 만들었어요. 항상 감사해요.

엄마가 없는 세상은 이렇게 허무한 줄 몰랐어요.

엄마 아버지 항상 감사하고 정식어도 잘 있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딸 명주 올림 -



## 아버님께

아버님. 거기선 평안하게 잘 계시는가요?  
처음으로 아버님한테 편지를 쓰네요..  
벌써 2022년이 다 가고 새해가 밝았습니다.  
진작 편지를 좀 써 드릴 걸 그랬나 봅니다..  
올겨울은 유난히도 춥네요..  
아버님이 안 계시는 첫 번째 겨울이라서 그런지 많이 춥네요..  
그쪽은 따뜻하던가요??  
그리고 아버님이 들으셨으면 좋아하셨을만한 소식도 있어요  
아버님 손주 생겼습니다... 조금만 더 계셨더라면 보실 수 있으셨을 텐데...  
아쉽고 또 아쉽네요..  
저희보다는 아버님이 더 아쉽겠죠??  
하늘에서는 할머니님 만나셔서 좋으시죠?  
아마 여기서보다 훨씬 편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저희도 그만 슬퍼하려고 합니다..  
혜경이는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잘 보살피겠습니다.  
아버님 귀한 딸과 귀한 손주와 함께 잘 살아갈 수 있게 하늘에서 도와주세요..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히 잘 계셔요..  
아버님 사랑합니다..





## 어머니

아들 민규입니다.

보고 싶습니다. 있을 때 잘 해 드려야 했는데 못한 아들 죄송합니다.

어머니 사진을 볼 때마다 생각이 나고 잘 해드려야 했는데  
이렇게 편지 쓰니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갈릴리 교회로 다시 나가고 있고 청년부 모임도 하고 있어서  
좋은 사람을 많이 사귀었습니다. 거기서는 어떠신가요?

아프지 마시고 항상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세요.

보고 싶었던 아버지도 만나시고, 할아버지도 만나셨겠네요.

한자 한 글자 쓸 때마다 눈물이 나오지만 참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모도 많이 챙겨주시고

아는 형들도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하라고 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들 꼭 성공해서

엄마가 다시 살고 싶다고 한 다래 아파트 101동 602호에서 꼭 자랑할게요

엄마 정말 미안하고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엄마가 있으므로 제가 이렇게 커온 거고,

안 아프고, 30년 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엄마 생각하고 있고 많이 힘들겠지만 엄마 생각해서 견뎌낼게요  
사랑합니다. 아버지랑 같이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친구들이랑도 잘 지낼게요

정말 사랑하고 미안해 이거밖에 못해준 거 정말 죄송합니다

- 사랑하는 아들 민규가 -



## To 사랑하는 아빠

아빠 안녕하세요.  
저 아빠께서 사랑하시는 딸 자영이에요.  
아빠께서 돌아가신지 벌써 5년이네요.  
매일 보고 싶어요. 아빠 엄마에게 잘 되도록 해주세요.  
어떨 땐 하늘을 보니 아주 멋지고 이쁜 별이 있었어요.  
그 별들 중에 미지의 별이 아빠겠죠?  
저희 가족 안 아프게 하늘에서 지켜봐 주시고  
제가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하늘에서 응원해 주세요.  
빨리 4학년 단계를 지나가고 6학년 단계가 되도록 하늘에서 지켜봐주시고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2월 12일에 시험보는 한자 준4급 100점 받을수있게 응원해주세요.  
제가 엄마 할머니 말씀을 잘듣게 해주세요.  
아빠께서 돌아가신날 밥도 제대로 못드셔서 제가 떠서 드렸잖아요...  
그때라도 몇숟가락 더 떠드렸으면 그래도 아빠께서 조금이나마 든든 했었겠지?  
내가 왜 못드렸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빠께서 아프시면 병원을 가셔야지 왜.... 안 가셨어요...?  
아빠께서 저와 오래오래 같이 산다고 했잖아요.....ㅠㅠ  
하늘에서라도 힘들지 말고 편히 쉬세요  
아빠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또 사랑해요

- 아빠께서 많이 사랑하시는 딸 자영 드림 -





## 사랑하는 엄마에게

엄마~ 신학년, 새해가 밝았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그해 첫날입니다.

엄마와 함께한 추억, 기억, 더듬어 보면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하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를 이렇게 건강하고 씩씩하고 단단하게 키워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한없이 보고 싶어요. 엄마♡

크게 엄마 불러 안아보고 싶어요.

그리움은 더욱 해를 거듭할수록 커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후회 아닌 후회를 합니다.

더 잘하지 못함, 다정하게 대해드리지 못함,

맛있는 음식, 작은 손 편지,

따뜻한 포옹 등 많은 것들을 하지 못함에 대한 후회예요.

엄마께 보답해 드릴 수 없지만

아버지, 아이들에게 그리고 가족 주변 사람들에게 노력할게요.

사랑해요 엄마


- 후보 올림 -



## 사랑하는 엄마 용옥씨.

엄마 너무 오랜만이에요. 잘 지냈어요?  
 나는 잘 지냈어요. 아이들하고 싸우고, 남편에게 비상금도 걸리고, 새로운 사람도 사귀었어요.  
 곧, 이사를 가서 준비한다고 바빠 돌아다니기도 했어요.  
 나는 살아있는 사람답게 이렇게 저렇게 계속 살아내고 있어요.  
 매일 조금 더 잘 살고 싶고, 매일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려 해요.  
 엄마. 나는 엄마의 부재에 많이 익숙해졌어요.  
 여전히 찾아오는 슬픔과 눈물은 막을 길이 없지만, 막으려는 생각도 없어요.  
 엄마, 참 많이 그리워요. 그리고 많이 보고 싶어요. 엄마 내가 점점 더 엄마를 잊어가면 어찌죠?...  
 그건 너무 슬픈데.. 엄마 그래도 나는 살아가요.  
 조금만 천천히 가주지.. 조금만 천천히 잊혀주세요.. 오래오래 그리워할 수 있도록,  
 엄마 재원이가 이제 초등학교에 가요 해원이는 어쩔 저 어렸을 때 그랬을 것 같아요..  
 아빠도 잘 지내요 아마.  
 항상 물어보면 괜찮다고만 하시니.. 지영이도 산이도, 제부도, 그리고.. 그분도.  
 엄마. 거기선 행복해요? 거기에도 행복이 있나요?  
 엄마. 나는 매일 엄마라는 말을 하루에도 몇십 번씩 듣는데, 엄마라 부를 일이 없어 슬퍼요.  
 내가 속으로만 던지던 엄마를 듣고 계시나요? 듣지 않아도 괜찮아요..  
 엄마도 엄마의 새로운 삶이 있다면... 가보지 않아서 마음이 놓이지 않네요..  
 어떤 곳이든 엄마가 그리워했던 사람들과 그리워했던 계절과  
 그리워했던 시절에 머물러 계시기를 바랄게요.  
 많이 사랑해요. 많이 함께하지 못해 미안해요.  
 이런 나를 늘 염려하고 사랑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시간 지나 꼭 반드시 만나요. 제가 잘 할게요. 속 안 썩일게요.  
 우리 그땐 많이 아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요. 제가 재밌는 이야기 많이 해 드릴게요. 사랑해요

- 37살이 되어버린 큰딸 지희 -



## To 아버지께 올립니다!!

둘째 딸 영란입니다.

생각이 많이 얽은 관계로 본의 아니게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한 점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고 겸손하게 대해 드리지 못했던 점을  
기원로나마 반성의 제목으로 대신하며,

영산 정도에서 편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훌륭한 성품을 갖추신 분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인품을 늘 기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 둘째 딸 영란 올림 -





---

하늘로 보내는 편지  
- 배우자 -

---



## 나의 대빵이자 가족의 캡틴이었던 그대에게

여기 오는 길엔 평소 보지 못했던 하늘을 보게 돼.  
수많은 기억들, 하고픈 말들이 줄줄이 나오는데  
막상 형체 없는 당신을 보면 그냥 내 마음에 들어와 있어달라고...  
잠시만이라도 있어달라고 하네.  
그래서 그 그리움이 얼마나 큰지 알아달라고 원망을 하고 돌아서.  
그리고 당신은 어디든 갈 수 있으니,  
항상 아이들을 응원해 달라고 부탁을 해.  
원망과 부탁. 어찌 보면 살아서도 죽어서도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게 나구나.  
그냥 바람이 불어 날려버리고 비가 와서 묻어버리면 좋겠다. 그 소리들을.  
그래서 온전히 그리움과 여전히 사랑하는 소리만 느꼈으면 좋겠어. 당신이.  
우리는 여전히 그리움의 심지 세 개를 태우고 있어.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는 한 당신은 우리와 같이 살고 있는 거야.  
큰애가 했던 말인데 오늘 심하게 와닿는다.


또 올게.



## 사랑하는, 아직도 그리운 내 남편이자 아이들의 아빠

그곳에서 잘 지내고 있어?  
아마도 걱정되는 일이 많아 거기서도 마음 편히 쉬지 못하고 있을 것 같네,  
당신은 살아서도 가족 생각뿐이라  
늘 당신의 삶을 살지 못 했으니까 말이야.  
당신이 가고 벌써 3년이란 시간이 흘러  
큰아들은 중2, 작은 아들은 중1이 되었어.  
교복 입은 모습을 봤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들들 모습을 보고 흐뭇해할 건데,  
미소 짓고 있을 당신 얼굴이 그려지네,  
당신에게 미안할 일도 많은 나인데, 보고 싶은 건 어쩔 수가 없네.  
편하게 떠나보내줘야 하는데 끝자락이라도 잡고 싶다.  
당신을 허무하게 보내고 한동안은 죄책감에 살고, 이제는 나라도 살아야지  
하면서 미안할 일만 만드는 나라서, 정말이지 염치가 없다.  
어머니도 제대로 모시지 못하고 나 살겠다고 아이들 데리고 나와서 미안하고  
내 욕심만 부리고 살아서 미안해.  
당신이 있는 그곳에 가게 되면  
그때 당신한테 빌고 또 빌게.  
당신에게 받은 사랑만큼 그때 내가 더 사랑할게.  
외롭게 해서 미안하고 미안해. 너무 부족한 나라서 미안해.  
그래도 보고 싶고 그립다! 우리 꼭 다시 만나자!  
당신의 마누라!





## 사랑하는 우리 여보!

떠난 지 오늘이 5일째네  
벌써 보고 싶고 그리워지네  
오늘 집에서 할 줄 모르는 제사를 당신 때문에 해봤어  
다음엔 더 좋은 걸로 맛날 걸로 해줄게  
보고 싶어 했던 현주가 어제, 오늘 당산한테 꽃 사가지고 왔어.  
내일, 모레 미국으로 들어가는데 잘 보살펴줘.  
병원 입원했을 때는  
치료하고 집으로 올 줄 알았는데  
그곳에서 마지막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지  
여보 사랑해  
하루하루가 갈수록 잊히는 게 아니고  
더 보고 싶고  
가는 곳마다 당신 손때묻은 곳에 생각이 더 나는 것 같아 눈물이 난다.  
추운 올겨울 당신을 보내고  
너무 가엽고 미안하고 불쌍한 마음에 죄책감이 많이 드네  
좀 더 같이 있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가슴이 아프다.  
여보 보고 싶다.  
사랑했어  
나의 사랑하는 남편.

- 아내 연희가 -



오늘이 당신 생일인데 어떤 세상에 계시나요  
집에서 미역국 끓였어요  
당신 떠나고 없는 이곳은  
항상 변함없는 생활들이군요  
문득문득 당신 생각에 가슴속에서  
소리 없는 통곡과 눈물이 흐를 뿐입니다  
부디부디 그곳 세상에서 편안하고 행복하세요

- 상희 -






## 나의 영원한 서방님!

너무너무 보고 싶고 그리운 사람 내 신랑?  
매일매일 우리 신랑 생각에 가슴이 멍멍해집니다. 아니 뭐라 표현 못 하겠어요.  
그냥 내 가슴이 절절하다는 말밖에..  
자기야 잉킨이 잘 지켜주고 있는 거지요?  
자기가 그렇게 허망하게 떠나고 나니  
무슨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건강검진에서도 뇌혈관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걱정이었는데  
당장은 어떻게 안 되고 병원 다니면서 관리해야 한다네요  
자기가 떠나고 나서 내게 이런 일이 생기니...  
자기는 내 곁에 없고 이 무서움을 누구한테...  
그냥 자기가 있어야 하는데 영원히 잉킨이 편이라고 하더니  
기다리라고 꼭 기다리라고 하더니 그렇게 가버리고..  
자기야! 요즘은 그냥 나의 마음을 모두 비우는 연습을 하는데 아직 잘 안되네요.  
부처님 말씀에 의지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너무 어려워서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자기야! 알고 있지?  
다 알고 있는 거지 자기가 말했지 잉킨이가 하는 것은 모두 찬성이라고- 믿는다고-  
자기야, 자기가 없는 이곳에서 이제 부모님, 조부모님 제사는 지낼 수가 없어요.  
그동안 잉킨이가 16년을 지냈네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닌데..  
그냥 안 지내기에는 나의 마음이 편지 않고 죄스럽기도 하고 해서  
아버지 기일날을 잡아서 조부모님, 부모님, 우리 신랑까지  
좋은 곳에서 잘 지내시라고 천도재를 지내드리기로 했어요.



신랑 또 그럴 거지? 지 마음 편하려고 그런다고,  
그래도 그렇게 말해도 이 모두 저의 마음이니깐 괜찮아요.  
저의 성의고 저의 깊은 마음이에요.  
모두 아실 거예요.  
28일날 아버지 제사날이에요.  
자기야 자기가 잘 말씀드려  
이렇게 자기 생각을 하다 보면  
모두 지나간 과거가 되어버린 것에 너무 가슴이 미어지네요.  
나에게 시간이 주어진다면  
우리 신랑과 마지막 밤을 병원에서 너무 허무하게 바보 같은 잉킨이,  
그렇게 빨리 내 곁을 떠날 거라고 생각 못 하고  
내 생각만 했었던 게 너무 신랑한테 미안하고 또 미안해요.  
그날 하루만 다시 주어진다면..  
매일 그런 생각을 해도 소용없는 일이지만 자기이고 나 용서해 줘.





## 잉진이 남편 권인원씨 받으세요.

잉진이 신랑!

서방님! 지금쯤 우리 신랑은 무엇을 할까

잉진이 바라보고 계실까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너무 보고 싶고 너무 그립고 어떻게 해야 좋을까

시간이 가면 좀 더 나아질까.

자기가 기다리라고 하고서 왜 안 오는 거야 난 계속 기다렸는데

너무 힘들게 자기를 보내서 내 가슴이 너무 지금도 이파.

자기야 난 다 알아 노래 불러줄 때 자기는 다 알고 있었지

잉진이 곁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난 겁이 났어 자기한테 무슨 말이든 해야 하는데,

그러면 내 입으로 말하면 사실이 되어 버릴까 봐 너무 겁나서 아무 말도 못 했어

자기가 부르던 그 노래 속에 자기의 마음이라는 거 난 너무 잘 알아

둘이서 아무 말도 못 하고 그렇게 이별을 했으니, 지금은 아쉽고도 미련이 남아요.

그런데 그 상황이 오면 우리는 그런 선택을 할 것 같아 그치 자기야?

지금도 너무 아픈 건 수술을 하면 위험해질 거라는 생각은 단 한 번도 안 했는지

나 자신이 너무 한심스럽고 미워

그래서 이렇게 일찍 떠나게 한 것 같아서 너무 속상해.

자기야 내 마음 알지 그곳에서는 제발 아프지 마 그리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세요.

신랑 잉진이 갈게 또 올게.





## 이원봉님

여보~

생신 축하해요.

오늘이 당신 66번째 생일인데

미역국은 다음에 천국에서 끓여 드려야겠네요.

이제 고통도 아픔도 없는 천국에서

편안하게 주님과 함께 복락을 누리시는 당신.

너무 보고 싶고 너무 그립습니다.

가끔씩 꿈속에서라도 당신을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한 가정에 아들들이 태어나 한 사람의 남편으로 두 아이들의 아빠로

너무 훌륭하고 멋있게 살아오셨던 당신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존경하고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 당신의 마눌 드림 -





## 수현아빠.

당신이 황망히 내 곁을 떠나가 것이 벌써 일 년이나 되었네.  
나는 아직도 당신한테 하고 싶었으나 하지 못했던 말들이 목에 걸려있는데..  
늘 가족에게 최선을 다해준 당신 너무나 고맙다고.  
내가 출근할 때 당신이 티브이 보다가 일어나 잘 다녀오라고  
오늘은 야간에도 일해야 돼서 못 들어온다고 할 때  
내 목에 걸려 있던 말.  
“가족끼리는 얘기가 못할 게 없어 무슨 일 있으면 얘기해 줘”  
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말해주고 싶었는데..  
“그냥 무슨 일 있는지 아니지? 무슨 일 있어?”라고만 말했던 것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네..  
루카 생일에 메시지 예약한 내용을 그제 나에게 보내는 마지막 말이었지..  
“염치 없지만 잘 지내지? 당신 진짜로 사랑했었어 잘 지내 안녕”  
당신이 진짜로 나를 사랑했던걸 내가 왜 몰라  
그 사랑을 모른척했었기에 지금 이렇게 마음이 아픈 것을  
내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고 산 것에 안타까움을..  
늘 당신은 요셉 성인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당신은 나와 애들 빼면 없는 사람이었다.  
그것이 나는 아파서 당신이 행복하길 바랐던 것인데 내 생각이 짧았다.  
당신의 행복은 내가 무시했어.  
그 사랑받아주면 당신은 행복했던 건데, 내 생각이 정말 너무나 짧았다.  
행복은 그리 크고 멀리 있는 게 아니었는데..  
뭔가 획기적인 무엇이라 없었나 봐.



나를 용서해 줘. 그리고 나는 당신 많이 많이 좋아하고 사랑했다.  
내가 너무 욕심이 많아 미안했어.  
이 카드가 당신한테 쓰게 될 줄이야..  
사랑하는 근엽씨  
나를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해 준 사람.  
사랑해요.  
고마워요.  
미안해요.  
부디 행복해요.  
정말 미안했어  
당신이 나에게 준 사랑 간직할게 당신한테  
당신을 너무나 외롭게 해서 미안해.  
그러나 너무나 고마운 사람. 나를 한없이 사랑해 준 사람  
마치 나를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것처럼..  
이제는 이 세상에 빛진 거 없으니까 이제는 당신 행복 찾아서 행복하게 지내.  
이 세상 인연에 메이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 내 부탁이야.  
당신은 내 말이라면 다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 마지막 부탁도 들어줘  
부디 이 세상 인연에 메이지 않고 부디 행복해.  
좀 더 편안해졌다니 너무나 기뻐.  
감사하고 사랑해 고마워





## 내 사랑 김교상씨 보세요.

교상 씨 잘 지내고 있지?

어머님. 아버님 만나서 좋겠다.

그리고 아프지도 않아서 다행이다 싶다가도 울컥울컥 자기 생각이 많이 나네  
좀 더 잘해줬더라면 어땠을까의 아쉬움.

당신한테 약속했지?

열심히 씩씩하게 살 거라고 약속했잖아.

울지도 않고 잘 살고 있어.

형민이 가람이도 나한테 잘해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런 행복을 당신하고 같이 누리야 하는데 미안해 정말 미안한 말뿐..

아 맞다. 고맙고 사랑해 내가 정말 당신을 많이 사랑했는데 왜 표현을 못 했을까?

사는 거에 바빠서 서로 등한시켰던 것 같다.

그곳은 아프지 않은 곳일 테니 엄마, 아버지랑 잘 지내고 있어.

나도 정말 열심히 살아 당신 옆으로 갈게 정말 보고 싶다.

보고 싶어. 정말 보고 싶어.

볼 수도 없으니 생각은 조금 덜 해볼까 해.

교상 씨.

정말 사랑해 ~♥

자주 올게

아이하고 같이 가족사진 놓고 갈 테니 매일 봐.

그리고 내 꿈에 나타나주고 형민, 가람이 그리고 나 잘 지켜주고

잘 있어.

천안추모공원 앞에서



여보 고마워요.  
사랑하구요.  
뜻대로 이루고,  
편하게 지내요.

오늘은 아이들처럼 당신 만나러 왔어.  
당신 없이 1년 살았네...  
많은 일이 있었고 아이들도 많이 컸어.  
혼자 어떻게 살까 했는데...  
365일이나 버티고 살고 있네.  
미안해  
미안해  
후회만...  
여긴 여름이야 거긴 어때?  
또 올게.  
보고 싶다.

- 당신 반쪽이가 -





## 하늘에 계신 유준님.

건강히 훨훨 나래를 펴시오.

하늘에 계신 유준님

이승에 인연으로 만나, 참 고락도 많았는데

때론 유준님에 빈자리 안타깝구려.

그저 그곳에서는 편히 훨훨 다니고 나래를 펴시오 건강히 계십시오.

이승에 있는 우리 삼 남매

항상 가족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승승장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나 정재선도 보살펴주세요.

건강히 두루두루...



## 천국에 계신 남편.

여보 사랑합니다.

보고도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립습니다.

죄송해요.

당신 없는 이 세상에 나 혼자 서러워요.

후회해도 소용없네요.

내가 잘못된 것 다 용서해 주세요.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해~

- 나기자가 유남준에게 -





## 보고 싶은 우리 남편 우리 아이들 아빠.

당신이 떠난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가네.

처음엔 빨리 시간이 흘렀으면 했는데 지금은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 무섭네...

올겨울은 얼마나 추울지 당신 없는 겨울을 어떻게 지내야 하나..

당신도 살아있는 동안 춥게 겨울을 보냈는데

지금 당신이 있는 곳은 이런 추위는 없겠지.

거기서는 마음 편안하고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네.

우리 사랑하는 딸들도 잘 지내고 있어.

아빠가 저 하늘에서 걱정 안 하시게 열심히 살고 있지!

유리, 송이, 승희, 승연 속이 깊은 아이들이야.

엄마 아빠 걱정하신다고 항상 밝게 생활한다고..

보고 싶네 우리 멋진 남편, 아이들 아빠.

아이들 걱정하지 않고, 거기서는 건강해야 돼.

우리는 잘 지내고 있고,

항상 당신을 마음속에 담고 살고 있어.

조금 있음 당신 생일이네.

다음 생에는 우리 식구들 다시 만나 이승에서 못 했던 것

다음 생에는 다해보자 여보!

우리 아이들과 그때는 화목하고 행복하게 살자.

많은 추억 남겨주고 떠나서 고맙고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울 신랑님.





## 사랑하는 남편께


당신이 그 먼 곳으로 간지도 1년이 다 되어가고 있네요.  
순간순간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그립고 또 그리워하며 지내는데  
1년이 다 됐어요.

오늘은 우리가 결혼하지 31년이 되는 날이네요.  
그곳에서는 알고 있나요. 오늘이 결혼기념일이라는 것을,  
작년 오늘 당신이 나가서 맛있는 저녁 먹자고 했는데  
내가 거절한 것도 많이 후회하고 또 후회했네요.  
나 힘든 것만 생각하고 당신 때문에 내가 힘들다는 생각에  
당신을 막 대한 것도 많이 후회합니다.

그곳에서는 아프지 않고 편안한지 묻고 싶네요.  
좀 더 몸도 챙기고 건강에 신경 쓰고 살았으면  
지금 나 혼자 남겨 두지는 않았을 텐데,  
지난 일 년 원망도 했었고 미워도 했는데 그런 것도 점점 무뎌지고,  
보고 싶고, 그리운 마음이 점점 커지네요.

당신 자식들도 잘 있고 나도 열심히 힘든 시기 잘 이겨 내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당신도 그곳에서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곳에서는 절대로 아프지 말고 건강하길 바라  
평소에는 한 번도 표현 못 했는데 정말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해 잘 지내고, 건강하길 바랍니다.





## 박재관 야고보 귀하


사랑하는 재관 씨에게  
하늘 같은 남편 나의 친구였던 사람,  
나를 한없이 아껴주었던 당신을 내일이면 하느님 나라에 보내줘야 하네요.  
너무 늦게까지 잡고 있어서 미안해요.  
당신과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다니 아직도 믿을 수가 없어요.  
재관 씨가 어디선가 나타날 것만 같은 환상 속에 찾고 있어요.  
재관 씨, 100세 시대를 꿈꾸며 열심히 운동했고  
당신의 말처럼 몇 안 되는 남자 중의 남자였죠.  
나에게는 한없이 베풀고 내가 최고 예쁘다고 늘 말해주던 재관 씨,  
아들에게는 친구 같은 아빠였죠.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늘 최선을 다했었죠.  
재관 씨, 만약 6월 23일에 자기가 직접 119를 불렀으면 어땠을까요?  
회사에서 가슴 통증을 호소한 당신에게 의식이 있다는 이유로  
대화를 한다는 이유로 그 누구도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회사에서 위급함을 느꼈을 때 당신은 급히 구조를 요청했는데  
당신의 노력이 처참히 짓밟혔어요.  
재관씨께서 약 20분 의식이 있었을 것 같은데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를 생각했을 재관씨를 생각하면 가슴이 무너집니다.  
살고자 노력했던 재관씨의 노력이 처참히 짓밟힌 것 생각하면  
재관씨가 너무나 불쌍해서 눈물 밖에 나지 않아요.  
재관씨, 저도 당신 곁으로 빨리 가고 싶지만  
당신이 남겨준 숙제를 하려면 적어도 85세까지는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당신 곁으로 갈 동안  
재관 씨는 하느님 나라에서 부모님과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걱정을 하지 말아요.  
재관 씨를 위해 씩씩하게 살려고 노력할게요..  
이렇게 허망하게 긴 당신을 어떻게 위로해야 할까요?  
당신은 끝까지 우리를 위해 살려고 노력했는데.  
당신의 울타리가 필요한 저희를 위해 끝까지 노력한 당신께  
존경스럽다는 말과 사랑한다는 말과 고맙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네요.  
재관 씨, 정말 고맙고 사랑해요.

- 사랑하는 애화 드림 -





to. 자기

자기야. 안녕 잘 지내고 있어?

아직도 자기가 하늘나라에 있다는 게 잘 믿어지지 않는지만  
옆에서 챙겨주는 가족들 덕분에 슬퍼도 잘 참고 지내고 있어.

자기 말처럼 행복하게 살아볼 테니까

자기도 하늘나라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쑥쑥이랑도 만나고 있어.

그런 선택을 한 게 너무 밋고 아쉽지만

나 평생 고생할까 봐 그렇게 한 거니까

내가 잘 살고 행복하게 잘 살아볼게

어머님, 아버님, 도련님, 엄마, 아빠, 상문이, 현슬이 하늘에서 지켜주고

나도 여기서 잘 챙겨드릴게.



## 사랑하는 당신께.

여보!  
미안하고 사랑해.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는 것도  
당신이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준 덕분이야  
너무 고마워.  
당신이 이렇게 내 곁을 빨리 떠날 줄 알았다면  
당신한테 더 많이 잘해주지 못한 게 아쉽다.  
여보, 당신한테 여러 가지로 당신 마음 아프게 한 것도 미안해  
내가 살아있을 동안 늘 감사해하고 미안해하면서  
당신 만나는 날까지 열심히 살게.  
고맙고 사랑해 여보.  
다음에 만날 때까지 잘 지내♥





## 그리운 명회씨

여보 당신은 좋은 곳 갔으리라 믿어요.

여보 미안하고 고마워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편히 쉬세요.

하늘나라에서 한수, 도영, 선영, 영진 사남매 우애 좋게 살게 도와주세요.

항상 내 가족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들 되게

나도 사는 날까지 건강하고 치매 없도록 지켜 주세요.

먼 훗날 만남시다.

그때는 좋은 친구 되어 제발 말 좀 하시구려.

지금은 시대가 너무 많이 바뀌어

이승에서 전 세계가 나쁜 병이 퍼져 왕래도 못하고 생활하고 있어요.

모든 걸 용서하세요. 고마워요.

하늘나라 가서 좋은 친구를 많이 사귀고 놀고 많이 다니시오.

그리고 영진이 아들이 하나 예쁘게 커요.

당신 손자 하나 건강하게 도와 주시오.

공부도 잘하게 친구도 좋은 친구들 만나게, 그리고 여보 나도 한글 많이 배웠어요.

그동안 당신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생각하네요.

나 이승에 있을 날까지 건강 지켜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모든 가족들 도와주세요.

당신의 영원한 안식을 기도합니다.

당신에게 발길질한 것 용서하시오. 정말 미안해요.

- 김옥자 올림 -



## 보고픈 내 반쪽 (정규씨)

올해 4월 29일이면  
당신과 검은 머리가 흰 파뿌리 되도록 변치 않고 백 년 약속을 한지  
38주년이 되었네요.  
여보 당신 보내고 하루도 방황하며 살고 있네요.  
어찌 그리 빨리도 가셨나요.  
마음이 메이도록 아프네  
이 아픈 마음은 누가 알아주나 여보 죽도록 보고 싶다.  
꿈에도 안 나오고 당신 자손들은 3자녀 모두 잘 살고 있어요.  
내 마음이 아파서 그렇지 당신이 나 사는 동안 힘들지 않게 해놓고 갔는데,  
이렇게 힘드네. 모든 걸 내려놓고 잘 지내고 있지요?  
당신 마눌 마음에 안 들어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아이들 지키며 열심히 살다 당신 곁으로 갈게요.  
사랑해요. 하늘만큼 땅만큼.

- 당신마누라 철없는 마누라 최미숙 -





보고 싶어도 볼 수 없고 방 안에 누워있다가도 어디선가 당신이 여보하고 부르면서 들어올 것 같은 생각에 마음이 아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내가 당신의 마지막 10분 전의 모습을 안 보고 이렇게 되었다면 조금은 마음이 덜 아프겠지만, 13분까지 나와 일반 병실에 내려왔다고 좋아하고 여러 가지 말들을 하고 당신을 위로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5분 못되어 당신을 하늘나라로 보내고, 마지막으로 납골당으로 모시고 간 이후도 너무나 갑작스럽게 당한 이 일에 지금도 날이 새면 꿈같이 느껴져 눈물이 마를 새가 없어요.

부부가 나란히 시장을 보고 장사를 하고 아내가 남편은 위하며 식사를 만들고 반찬을 만드는 일들을 바라보면 가슴이 미어지고 슬퍼요.

두 번 다시 당신의 모습을 볼 수 없다는 생각에 나를 아프게 하고 미칠 것만 같습니다.

마음속으로 허공에 대고 여보 보고 싶다는 말을 하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고통스럽고 무서워도 잘 참고 용기를 내며

조금이나마 나의 얼굴을 더 보고 행복해하던 당신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항상 당신을 사랑하며 걱정스러워하던 당신을 생각하며

아픔이 없는 곳에서 환한 모습으로 내가 당신에게 갈 때까지

건강하게 병에 걸리지 않고 있다가 당신을 만나서 더욱더 당신을 사랑하고

즐겁게 지내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내일도 해맑은 당신의 모습을 그려보면서

변함없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할게요.

이은자 당신을 영원히 사랑 사랑합니다.

- 당신 남편 제상도 올림 -





사랑하는 당신  
오늘도 또 만나고 싶고 보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8시 30분에 와서 기다립니다.  
너무너무 그립고 보고 싶어요.  
그런데 당신은 내 곁에 없지요.  
그러나 이곳에 오면 당신과 함께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이렇게 찾아옵니다.  
오늘은 당신이 좋아하는 계란, 냉커피, 수박 이렇게 가져오니  
맛있게 드셔주세요.  
전 토요일만 기다리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사랑해요

- 넘숙이가 -



## 사랑하는 남편!

우리 가족 모두 보고 싶어 해요.

하늘에서는 아프지도 말고 신경 쓰지도 말고 편안하게 지내세요.

고모부님도 만나서 두 분이 재밌게 좋은 시간 보내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 힘이 되게 지켜주세요.

당신이 그립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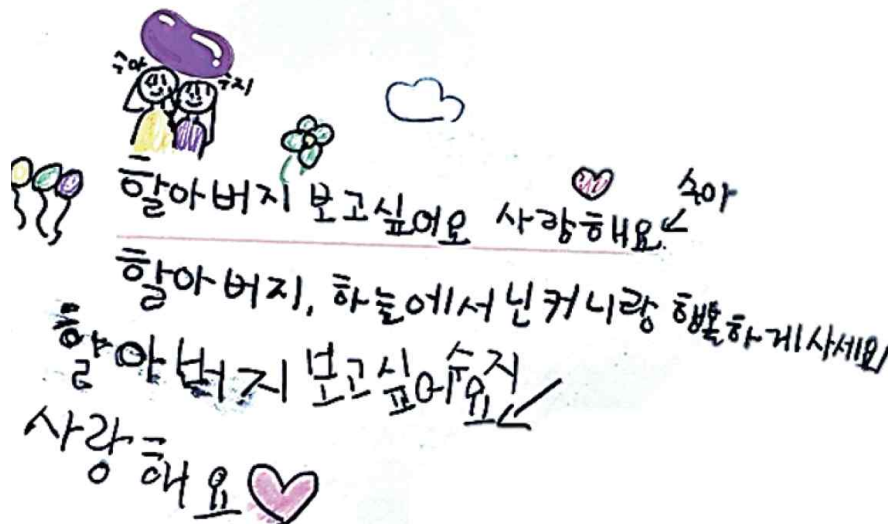
사랑하는 명숙이가


할아버지 보고싶어요. 사랑해요(<-수아)

할아버지 하늘에서 닌커니랑 행복하게 사세요!

할아버지 보고싶어요.(<-수지)

사랑해요♥






---

하늘로 보내는 편지  
- 자녀 -

---



## 우리 세상에서 제일 이쁜 딸

아빠야 너무 오랜만에 편지를 보내는구나  
아빠가 우리 시은이 보러 자주 가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 딸 아빠 곁에 항상 있는 거지?  
그래 아빠 가슴에 항상 우리 딸이 있으니

시은아 아빠 우리 시은이 너무 많이 보고 싶고  
아빠가 시은이 동생 하준이 보다 보니  
우리 딸한테 너무 표현도 못 해준 것 같네  
우리 시은이 아빠한테 1번인 거 알지?  
아빠는 우리 딸이 제일 이쁘고 사랑스러워

하늘나라 가서 우리 같이 재밌게 놀자  
아빠가 다시 만나서 표현 못 한 사랑 많이 많이 할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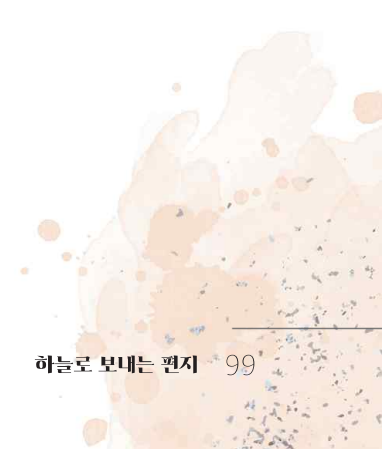
우리 딸 정말 많이 사랑하고 아빠가 잊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줘요

사랑해 딸



이제 곧 겨울이 올 건데 ~  
너 앞에 앉아있는 아빠 엉덩이가 이렇게 시린데  
    넌 얼마나 추울까  
올 딸 함 앞이 너무 쓸쓸해 보여 사진 하나 꽂아두고 왔는데  
    이 사진 보고 있으니 왜 이리 눈물이 나는지  
누군가가 널 기억해 주길 바라는 아빠 맘 간절하기만 하다  
    보고 싶다 올 딸 오늘따라 더 ~~~~~~  
    사랑한다 우리 딸 ♥

- 김재용 -






허망하게 너를 보낸 게 벌써 일주일이나 지났구나~  
엄마 텅 빈 가슴에 찬바람이 돌아다닌다.  
보고 싶구나 내 새끼ㅜㅜ  
동생이 방학이라서 들어왔어,  
너 소식 듣고 많이 놀라고, 많이 울고 또 울고 오빠 얘기하면서 또 울고...  
엄마는 아직도 믿기지가 않는단다.  
모두 거짓말 같아, 누가 아니라고, 거짓말이라고 현실이 아니라고 말해주길 바라지만...  
아빠도 꼭 네가 어딘가에 있을 것 같다고 하시고,  
엄마는 네가 원주에 잘 있을 것만 같아!!  
꿈에라도 한번 나와주겠니??  
보고 싶구나 내 새끼...  
믿을 수 없는 이 허한 느낌을 어찌 표현할 수 있을까?  
유찬아!  
내 소중한 아들!!  
너무 보고 싶어,  
정말 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안아주고 싶어  
사랑한다 내 새끼!!



## To. 사랑하는 우리 아들 준이에게

준아~ 우리 이쁜 준이 잘 지내니?  
그냥 엄마는 준이가 많이 보고 싶단다.  
엄마라고 해주는 소리도 너무 듣고 싶구나.  
엄마 오늘 처음으로 레진 아트 했다? 생각보다 어렵네~!  
우리 준이 생각하면서 만들었어..  
준이 잘 있는 거 맞지? 김화경, 채신 아들입니다~ 하면서  
목걸이라도 걸고 땡겨!! 아무도 못 건드리게 +\_+  
엄마한테 서운한 거 없어?  
말해도 돼~ 근데.. 엄마는 사람답게 살게 해주고 싶었어.  
우리 준이 병원에 그만 가두고 나와서 다른 걸 느끼게 해주고 싶었던단다..  
근데 그게 힘들었다면 미안해.. 우리 준이 엄마가 그냥 마구마구 사랑한단다.  
우리 준이 힘들었으니까 고통은 엄마가 감수할게  
엄마는 요새 무기력했다가~ 조금 살아났다가 그래 ㅠ^ㅠ  
사실 준이가 없어서야..  
화낼 땐 언제고 그치?  
뭘 먹고살아야 하나 고민도 해~ 전엔 '준이를 위해서! 뭐든 할 수 있다~!!'였는데..  
지금은 얘기가 다르니까.. 괜찮아 준아.  
엄마는 아직도 우리 준이 생각하면 준이 피부 결, 온도~ 다 기억나.  
엄마한테.. 인사하러 와줘.. 잘 있는 준이가 보고 싶어..  
엄마 악필인데 또! 글 쓸게.. (편지 > <)  
사랑해 우리 이쁜 아들 누가 괴롭히면 엄마한테 와 ^^

- 엄마가 -



## 하늘나라에 있는 병호에게

네가 많이 보고 싶구나.

네가 떠나고 첫 추석을 맞이하는 오늘 왠지 허전하고 슬프구나.

너의 밝고 착한마음이

하늘나라에도 모든 이에게 광명을 비추어라.

아빠는 평생을 너를 가슴에 안고

그리움을 마음에 담고 살테니 ..

너도 하늘나라에서 스트레스 받지말고 행복하게 지내거라 .

다시 만나자 안녕~

- 아빠가 -






## 사랑하는 딸 선미에게

그동안 잘 지내고 있었지?  
엄마가 너무 오랜만이라서 많이 기다렸지?  
그동안 엄마는 너무도 많은 일들이 있었어.  
엄마 혼자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일이라 많이 힘들었어.  
하지만 주안에 있어 하나님 의지하며 견디고 있어.  
우리 선미가 있었으면 위로를 많이 해주었을 텐데..  
우리 딸을 지켜주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보내놓고  
엄마는 성격이 이상해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은 가기 싫고  
티비는 더욱 음악채널은 지금까지도 보지 않아.  
요즘은 아무것도 하기 싫고 일이 손에 잡히질 않는구나.  
우리 선미가 너무 보고 싶고 그리워.  
엄마가 자주 오지 못해 미안해.  
우리 선미가 세상에서 제일 예쁜 우리 딸  
선미야 다음 세상에서는 좋은 엄마 만나서  
우리 선미만 바라보고 예뻐하는 부모 만나야 해.  
엄마가 또 올게.  
우리 선미가 좋아하는 거 사 왔어.  
선미야 잘 있어.

-엄마가-





## 사랑하는 엄마가 딸 진아에게

진아한테 오랜만에 편지를 쓰네 잘 지냈지?

엄마는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냈어.

코로나 때문에 구정에 갈 수 없어서 미리 왔다가.

진아야~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께서 네 곁으로 가셨어.

하늘 나라에서는 만날 수 있을까?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진아 외롭지 않게.

엄마 곁을 떠난 지 벌써 만 6년이 되어가네.

21살에 머물러 있는 울 딸 모습에서 더 이상 어떻게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떻게 생활하는지 알 수가 없네.

진아를 생각하면 늘 과거에 머물러 있어.

진아의 미래를 상상할 수가 없어.

엄마가 할 수 있는 건 하늘나라에서는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지내길 빌지.

그리고 엄마가 힘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마음속으로 진아한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더라고. 울 딸 힘들게.

그래도 엄마 씩씩하게 잘 지내고 있지?

요즘 엄마 갱년기라 좀 힘들어.

근데 외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엄마 곁을 떠나서 더 힘들지만 잘 견뎌볼게..

울 진아랑 얘기도 많이 하고 안아주고 싶다.

예전에 안아주던 느낌은 아직도 생생해.

그런 느낌들을 지금은 느낄 수 없어서 좀 아쉽지.

예구. 엄마가 쓸데없는 이야기를 했네.

이만큼 진아가 많이 보고싶다는 얘기야 알지 딸♥



근데 진아야 주완이는 자기가 할 일 조만간 찾겠지?  
주완이 꿈에 나와서 정신 좀 차리라고 해줘. 애궁, 또 부탁했네.  
진아한테 올 때 꽃밖에 못 가지고 오지만  
예쁜 꽃을 사다 주고 싶어서 예전에 살던 곳에 가서 샀어.  
꽃 이름이 “르네브”라고 하네 꽃 이름을 들어도 잃어버리는 나이가 됐네.  
밑에 놓고 갈게 내려와서 보고가 잘 지내고 있어 딸.  
사랑해 진아야 다음에 또 올게.

PS. 아빠는 회사가 바빠서 출근해서 같이 못 왔어  
아빠가 많이 미안해할 거야 ㅎㅎ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진아를 사랑하는 엄마가-





## 민혁아 엄마 왔어-

넓은 우리 집 두고 넌 작고 작은 벽 속에 유리 벽 안에 홀로 있네-

내일 엄마 생일인 거 기억하니?

가족들 생일 챙긴다고 정작 엄마 생일에는 정신이 없으면

아침에 학교를 가면서 수줍게

“엄마 생일 축하해요” 하고 학교를 가던 착한 엄마 아들 민혁아.

너무 보고프고 그립다.

그런 널 엄마가 “사랑해♥ 아들!” 하고 왜 꼭 안아주지 못했는지.. 미안하다..

이렇게 그립고 보고프고 아픈지.. 그때는 몰랐다..

엄마 손가락 10개를 다 불 밝혀 태우는 아픔이 있어도..

꼭 한번 너를 엄마 품에 안고 “아들 사랑해♥” 하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아픔 고통도 달게 받을 것 같은데-

아들.. 민혁아.. 미카엘아!!

너를 매일, 매일 이렇게 부르며 깨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



## 보고 싶은 아들 성혁아.

모든 곳에 함께 있는 너를 매일 만난다.  
사랑하는 아들 성혁아.  
조금만 기다려.  
곧 갈 거니까.  
예수님 생신 축하파티!  
천국에서도 하니?  
즐거운 성탄과 복된 새해?  
우리 함께 맞이하자.  
사랑해♡

-엄마가-

사랑하고 보고 싶은 성혁아 언제,  
어디서나 너의 웃음이 생각난다.  
천국에서 볼 때까지 서로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자

-아빠가-





## 엄마 아들 경호야!

오랜만에 편지를 쓴다.

늘 엄마 맘속에 너하고 얘기하지만..

잘 지내고 있지? 엄마는 너하고의 좋은 추억만 기억하려고 해.

이젠 울지 않을게.

운전을 하다가, 샤워를 하다가 맛있는 걸 먹다가도

네 생각에 1초도 안 돼 눈물을 흘리고 미친 여자처럼 소리도 질렀지.

네가 있어 행복했고, 너무 짧게 엄마 곁에 있어서 많이 아쉽고 가슴 아프지만

엄마는 널 만날 날만 손꼽아 기다려.

언젠가는 엄마도 하늘에서 널 만날 테니까.

너무 늙어서 못 알아보면 어찌지?

엄마 예쁜 모습으로 씩씩하게 잘 살고 있을게.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도 너무 울어서 편지지가 다 젖었었어.

지금도 좀 그런데. 이제는 웃을게.

너 보러 오늘 가도 울지 않고 너 나중에 만나면 엄마 꼭 안아줘. 보고 싶어 아들.

착하고 멋진 경호야. 사랑한다. 아주 많이.

- 이 세상에서 널 제일 많이 사랑하는 엄마가 -



## 별이 된 아들에게

너무너무 보고 싶은 우리 아들 호야.  
무더운 여름 어찌 지냈어?  
지난번 엄마 꿈에 와줘서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  
꿈에서라도 만나보니 엄만 너무 행복했어.  
네 손을 잡고 너를 품에 안아보니  
영원히 꿈에서 깨고 싶지 않았어.  
하루도 너를 잊은 적 없지.  
늘 엄마 가슴속에 살아있단다.  
부디 그곳에서 아프지 말고  
아빠랑 외삼촌이랑 외할아버지랑 모두 만나.  
잘 지내.  
엄마가 담에 또 쓸게.



## 사랑하는 올 지원이에게

지원아 안녕!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구나.

이렇게 올 지원이에게 편지를 쓰는 게 얼마 만인지..

오늘이 벌써 올 지원이가 엄마와 떨어진 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

시간은 참 빠르게 흘러가네..

지원아 영의 세계에서는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

엄마의 바람은 지원이가 웃으면서 씩씩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어.

외롭지 않게 많은 천국 천사들과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며 행복하게

세상에 살다 보니 가끔은 올 지원이를 생각 못 하고 바쁘고 힘들게 지낼 때도 있어..

엄마에게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지만 이해해 줘..

어떻게 엄마가 올 큰딸을 생각 안 하겠니..

언제나 매일 올 딸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알지?

짧은 기도지만 엄마는 늘 올 딸 생각한다는 거..

정말 보고 싶구나.

올 딸이 지금쯤 19살이 되었는데..

며칠 전 지원이가 꿈에 나왔는데 꿈의 내용은 크게 생각 안 나지만

그래도 엄마는 올 지원이 얼마나 좋았는지..

보고 싶다.

올 지원이의 빈자리는 허전하지..

올해가 2023년.. 윤성 오빠가 20살, 연아가 14살, 올 지원이가 19살..

엄마의 자식들이 이렇게 성장했구나.

지원아, 올 가족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해줘.

엄마도 올 가족을 위해 기도 많이 할게.






그리고 우리 자식들을 위해 응원할게.  
있는 곳이 다르지만 빛을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아픈 기억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니.. 힘들지..  
우리 하나님 안에서는 웃으며 있자..  
엄마 딸 장지원.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엄마품에 있으니 울지 말고 씩씩해야 해. 늘 응원할게.  
사랑한다. 지원아.. 운아야 또 편지할게. 잘 지내고 있어.

-엄마가-





## 나의 천사 최울에게

울아, 엄마야 :)

그곳에선 안 아프고 잘 지내고 있지? 내 사랑.

엄마는 아직 울이가 엄청 많이 보고 싶어..

그래도 우리 아가 그곳에서 안 아프고 새로운 친구도 많이 사귀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거 생각하면서 엄마도 힘내보려고..

어제는 엄마 아빠 9주년!

오늘은 엄마 아빠가 결혼한 지 4년 되는 날이라서

이쁜 울이 보러 가기 전에 편지 써

어제 너무너무 보고 싶더니 할머니가 울이 음력 생일이라

미역국 했다던데 맛있게 먹었어?

할머니가 최고네.. 엄마는 우리 아가 음력 생일인지 몰랐어.

우라 아가 곧 오는 9일 맛난 미역국 해둘 테니 놀러 와서 많이 먹고 가 :)

엄마 아빠는 우리 빵떡이 아직 가는 길마다 눈뜨면 너무 보고 싶어.

아직 산책하는 길 맛난 거 먹을 때 빵떡이 이야기 많이 하는데,

울 꼬맹이는 꿈에도 안 나오는 거 보고 놀이터에서 친구들이랑 노느라 바쁘다 했는데..

우리 울이는 너무 엄마 생각 안 하고 행복하면 좋겠어.

그래도 가끔 꿈에 놀러 오고 그래.

우리 딸. 내 보물. 엄마가 처음이라서 우리울이 더 아프게 한 게 아닌가.

우리 울이 속상하게 한 건 다 잊고 엄마 아빠랑 행복했던 기억만 가지고

나비처럼 별님처럼 빛나길 엄마가 기도할게.

너무너무 사랑하고 보고 싶어 :)



## 사랑하는 아들

아들 윤식아~~~  
한번 불러보내. 우리 아들  
엄마는 못해준 것이 가슴이 미어지는구나.  
아들, 우리 아들한테 맨날 가고 싶어도 마음뿐..  
윤식아, 우리 아들도 간지가 2년이 되는구나.  
아들,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것과 먹는 것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아들 생각이 나는구나.  
우리 아들 다음에 올 때 또 쓸게 차 안에서 쓴 거야.  
아들 잘 있어..





## ♡사랑하는 우리 재욱이에게♡

안녕 재욱아 너를 태어나게 해준 엄마야~~

우리 재욱이 잘 지내고 있지?

잘 지내고 있을 거라고 믿어!

혹시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 엄마 때문에 못지 나고 있는 건 아닌지 너무 걱정이 된다.

또한 엄마 때문에 서운한 거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때의 일은 너무 미안해. 용서해 줘.

그런데 엄마가 생각을 해도 재욱이 생각에도 쉽게 용서가 안될 거 같다고 생각해.

엄마는 우리 재욱이 생각에 잠도 못 자고 우울증에 시달리며 힘들게 살고 있다.

정말 너무 힘들다.ㅠㅠ

이젠 엄마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다.

진욱이, 다정이까지 키워야 되는데 엄마가 과연 잘 키울 수 있을지 너무 걱정이 된다.

잘 키울 수 있겠지?

하늘나라에서도 엄마가 진욱이, 다정이 잘 키우는지 지켜봐 줘.

재욱아, 엄마한테도 꿈에 나타나줘.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어서 참 힘드네.

아빠한테만 나타나고 너무 서운한 걸 ㅠㅠ..

엄마한테도 나타나줘, 아빠한테만 나타나지 말고.

아빠한테 꿈에 나타나서 서운하고 울고 갔다며?

너희 아빠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아빠한테 나타나니.

죄를 지은 엄마가 너한테 그러면 안 될 짓을 했는데..

차라리 엄마한테 와서 얘기하지.

내 잘못인데. 왜 아빠한테 가서 꿈에 나타나..

아빠도 지금 많이 힘든데..



재욱이가 엄마가 많이 미안하고 또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아 맞다. 재욱아, 엄마가 우리 재욱이 장례할 때 같이 있어야 되는데..

못 치러줘서 너무 미안해~~

또다시 우리 재욱이가 상처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  
엄마가 우리 재욱이한테 많은 상처를 준거 같아 마음이 너무 아프다.

어떻게 해야 우리 재욱이한테 상처를 안 주게 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될까.

아니면 사랑을 많이 줘야 상처를 주는 일이 없었는가.  
아무튼 재욱아, 엄마가 표현을 못 해줘서 너무 미안하고 사랑한다.

♡♡♡♡♡♡♡♡♡♡♡♡♡♡♡♡♡♡♡♡♡♡♡♡

♡♡♡♡♡♡♡♡♡♡♡♡♡♡♡♡♡♡

- 재욱이를 사랑하는 엄마가 -





## 사랑하는 아들

아들 하늘나라에 간지 1년하고 6개월이 넘는가 보구나.  
코로나 때문에 이일피일 저일피일 재보다 우리 아들한테 가보지 못했구나.  
아들, 보고 싶지만 엄마 가슴에 안고 살아가야겠지.  
많이 아프지만 우리 아들이 많은 선물을 주고 갔으니까.  
맨날 생각이 나는구나. 목소리도 모습도 만지지도 못하는구나.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윤식아 그립구나.  
아들, 사진으로만 보는구나.  
대답 없는 사진으로만 엄마는 편지로만 하는 게 없구나.  
미안~~

---

하늘로 보내는 편지  
- 할아버지, 할머니 -

---





## 할아버지께

할아버지♡~ 이제 할아버지 돌아가신지 벌써 1년이에요...

그곳에서 아프시진 않으시죠?

우주는 잘 지내고 있어요.

할아버지도 잘 지내고 계시죠?

우주가 할아버지 애착인형하라고 기린 인형 샀어요. 잘했죠?

가게는 잘하고 있어요.

그곳에서 해피랑 잘 지내고 계시면 좋겠어요. ♡

오늘은 수요일이에요.

빨리 토요일이 왔으면 좋겠어요.

우주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할아버지랑 같이 울고 웃고 할 거예요!

사랑해요♡♡

우주는 벌써 5학년! 12살이에요

할아버지는 83세♡

- 우주가 -





## 할머니

할머니, 한솔이에요.  
직접 뵙고 싶지만 아직은 조금 아파요.  
엄마가 할머니 곁을 지켜드리지 못한 것이 저 때문인 것 같아 용기가 안 나요.  
신은 모든 곳에 있을 수 없어 어머니를 보냈다는데  
나이를 한 살씩 먹어갈수록 구절에 느끼는 바가 많아집니다.  
나는 너무 부족한데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적으로 받는 사랑이 이젠 조금씩 무겁기도 해요.  
온전히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되는 인생인 란 건  
있을 수 없다고 늘 생각하면서도  
그 그늘 아래서 벗어나지 못한 제가 밉기도 합니다.  
엄마가 훗날 할머니를 만나게 되었을 때,  
‘많이 힘들었다’가 아니라  
‘잘 살다 왔다는 말을 먼저 건넬 수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엄마가 여생을 복된 사람으로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도 힘낼게요.  
할머니, 엄마를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한솔이가 -





## 할아버지께

할아버지! 벌써 2023년이 되었어요.

제가 졸업하고 이제 곧 고등학교 입학해요!

제가 가는 고등학교는 오성고인데, 제가 1지망에 쓴 곳 붙었어요!

할아버지가 제 소원 들어주신 걸로 생각할게요.

감사합니다♡

이제 2번째 차례인데, 한번 해서 그런지 저번보다 조금 더 나아진 것 같아요.

이번 전은 제가 진짜 안 하고, 할머니가 다 하셨는데 입에 잘 맞으셨어요?

간은 안 보셨다고 해서

오늘 차례 때 맥콜을 깜빡해서 나가려고 했는데 아빠가 딱 사 왔더라고요.

저번 추석 때 제가 매번 소정리 갔으면 있던 엑셀런트 아이스크림 샀는데

깜빡하고 못 올려놨어요...

다음 여름에는 꼭 올려드릴게요!

요즘 들어 봉명 청솔아파트를 자주 보는데 그때마다 할아버지 생각도 나기도 하고

예쁜 하늘을 올려볼 때면 저 어디선가 할아버지가 절 보신다고 생각하고 지내요.

할아버지도 제 생각 하시죠~~?

저번에 머리 감고 수건을 딱 쓰려고 하는데 할아버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2023년도 저 잘 봐주세요!!

사랑하고 보고 싶어요. 할아버지♡

제가 또 다음에 편지 쓸게요.

진짜 꼭 자주 가고 싶은데 실천을 못해서 죄송해요.

- 할아버지의 하나뿐인 손녀 진영이가 -



## 보고싶은 할머니께

흘러가는 시간은 얼마나 야속한지 1년의 시간이 벌써 지나가다니..  
2023년은 더 빨리 흘러가는 것 같아서 요즘의 저는  
더욱 정신없게 보내고 있는 중이에요!  
그곳에서의 할머니는 안녕히, 또 평안하게 지내고 계시나요?  
이제는 더 이상의 아픔과 걱정, 슬픔 없이  
할머니가 좋아하는 것들과 하고 싶은 일들만 가득하며 지내고 계시길 바라보아요.  
사실 지난 1년은 남겨진 가족들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벌이고  
또 그것들을 수습하느라 몸과 마음이 많이 지치고 아팠던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부디 할머니께서는 1년의 순간들을 보지도 듣지도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부디 이생에 남겨진 것들을 뒤로한 채  
다음번에 맞이할 할머니의 다음 여생에서는 예쁜 꽃들도 맘껏 보시고  
맛있는 음식들, 멋있는 여행지들을 맘껏 돌아다니면서 사랑받고,  
사랑 주고, 온기가 가득한 그런 세상 속에서  
눈물보다 미소 가득한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젠가 역겹의 시간이 흐르고 흘러 우리 다시 만나면  
그때는 제가 할머니의 할아버지로 태어나서  
할머니께 맛있는 것들 많이 사주고 해드릴게요♡

- 준수가 -





## 할머니께♡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 지윤이에요.  
벌써 할머니가 돌아가신지 1년이 됐어요.  
저는 할머니가 많이 보고 싶어요.  
할머니 저 지금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내고 있어요.  
할머니! 혹시나 해서 여쭙보는 건데 거기서 잘 계시죠?  
거기서 외할아버지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저 가끔씩 할머니 납골당에 갈 때마다 할머니 생각이 나요.  
지금 생각해 보면 할머니 뵙지 못한 게 1년이 됐어요.  
예전에 할머니랑 있을 때가 가장 좋았는데 말이죠...  
할머니 거기서는 아프지 마시고 사랑해요♡♡  
안녕히 계세요.

- 지윤 올림 -



## 할아버지께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저 예빈이에요!

할아버지 너무 오랜만인 거 아니에요?

그동안 잘 계셨죠?

저는 학원 반도 올라갔어요!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는 실감도 안 나서 눈물이 잘 나지 않았는데  
생각해 보니 할아버지께 정말 마지막 인사가 그때뿐이었던 것 같아요.

정성을 다해 마지막 가시는 길 인사드릴 걸 그랬어요.

정말 후회됐어요. 하늘나라는 많이 편하신가요?

오늘 할아버지 49재 지냈는데 진지 맛있게 드시고 가셨죠?

앞으로 할아버지 자주 뵈러 올게요.

할아버지 편히 쉬고 계세요~

정말 정말 사랑해요♡♡

- 손녀 소예빈 올림 -





## 사랑하는 할머니께

할머니, 우리 예쁜 애기가 나를 잊어버리진 않았는지 걱정되네  
나 할머니 손녀 지수인데 기억하시죠?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나는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는데  
할머니 말처럼 죽으면 다 끝이라던 말처럼 될까 봐 무섭네  
나는 생각보다 잘 지내고 있어요.  
밥도 먹고 잠도 자고 평소처럼 지내려고 노력 중이에요.  
그러니까 내 걱정은 너무 안 했으면 좋겠어  
먼저 간 할아버지랑 못다 한 얘기들 나누시고, 나중에 나와 꼭 다시 만나셨으면 좋겠어  
마음 약한 우리 할머니가 울지도 아프지도 않았으면 좋겠어  
우리 할머니 매일 화내고 소리 지르고 못나게 굴었던 것들  
그때 다시 제대로 사과할게요. 평생 부러먹어도 좋으니까 옆에만 있게 해줘요.  
내가 뭐든 다할게 출근하느라 바빠서 씻고 있는 할머니께 화낸 것도 미안하고  
할머니가 괴롭고 힘들어할 동안 나는 내 할 일이 먼저고  
내 볼일이 먼저였어서 계속 내가 너무 원망스러워.  
내가 꼭 할머니한테 잘못된 것들 갚을게.  
이제부터 아빠한테 잘하고 할머니가 걱정하지 않도록 누구보다 성공해서  
할머니 손녀딸인 거 자랑스럽게 생각되게 만들게요 키워주셔서 감사했어요.  
앞으로도 누구보다 할머니를 사랑하고 많이 애뜻해 할 거예요.  
보고 싶고 그리운 할머니 그곳에서 꼭 행복하기를 바라요.  
사랑하고 또 사랑해요.

- 할머니 손녀딸 지수 올림



신수아가 변선분 할머니에게 편지 ♡  
이 편지가 꼭! 하늘로 가길.

예쁜 손녀가 변선분 할머니께

할머니!! 저 수아예요  
저도 못 보고 하늘나라 가셨는데 저 얼마나 울었는지 알아요?  
하늘나라에서 가족들이랑 재미있게 놀아요.  
저희는 건강하게 잘 지낼게요.  
저희는 건강하게 잘 지낼게요.  
연준이도 할머니가 보고 싶대요. 저도 할머니가 보고 싶어요.  
하늘나라에서도 건강하고 진지 잘 잡수세요.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만나요.  
연준이랑 저랑 연서랑 가족들이랑 같이 건강하게 잘 지낼게요.  
건강하세요~~~ 항♥상 사랑해요

- 할머니 친손녀 신수가 올림 -

이 편지가 꼭 하늘로 가기를 빌어요.





## 할아버지께

할아버지! 수지예요.

얼마 전 어렸을 때 비디오테이프를 봤어.

날 안아주시던 포근한 품.

바라봐 주시던 사랑스러운 눈빛, 손수 내 기저귀를 빨래해 주시던 다정한 손길  
오래되어 기억 안 난대도, 난 다 느낄 수 있었어.

오늘이 어버이날이거든.

그래서 오늘 할아버지께 전화할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글로나마 적어요.

직접 들려드리지 못해 아쉽지만

사랑하는 사람에게 닿는 편지는 원래 똑딱 써지는 게 아니라

늘, 그리고 오래 생각해서 가장 좋은 말들만을 골라 상대방에게 보내는 거니까.

할아버지께도 아끼는 마음만이 닿을 수 있을 거라며 슬픔을 달래보아요.

참 따뜻하고 다정하셨던 나의 할아버지

엄마도 나도 민지도 할아버지를 만나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태어났어.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심어 남겨주고 간 이 마음 잊지 않고 살아갈게요.





## 영원한 내사랑 할머니께

영원한 내 사랑 할머니께  
나 왔어. 오랜만이지?  
마음 같아서는 자주 와서 한창 떠들다 가고 싶은데  
내가 여길 오면 할머니가 더 이상 여기 없다는 게  
실감이 나버려서 그게 무서워서 못 왔어.  
걸으로는 할머니 생각 안 하면서 잘 웃고 잘 먹고 떠들면서 지내야 하거든.  
그래서 평소에는 할머니가 떠났다는 생각 안 하면서 지내.  
그래도 할머니는 나를 제일 좋아했었으니까.  
나를 제일 보고 싶어 할 거니까  
앞으로는 용기 내서 자주 와볼 수 있게 할게.  
할머니 거기선 행복해?  
평생을 모진 풍파 맞아가며 어렵게 살던 우리 영례씨  
거기선 부디 고요하게 안정적으로 있었으면 좋겠다..  
내 생각도 좀 많이 하면서..  
할머니.. 너무 그립고 또 그리워요.  
언제 한번 꿈에 나와서 나 안아주고 갈래?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할머니.... 더 이상 아프지 말고 슬프지도 말고  
봄에 피는 예쁜 꽃처럼 여름에 선선하게 부는 바람처럼  
가을 내리는 비처럼 겨울 따뜻한 햇살처럼 나에게 와줘.  
사랑하고 또 사랑해요.





## 보고 싶은 우리 할머니

할머니, 지운이에요.

너무 오랜만에 왔다고 할머니가 서운해하면 어찌나 하면서 편지를 써요.

나는 매 명절마다 오자고 했는데

엄마가 시간이 안 된다고 어찌고 하면서 그동안 오려고 못 했어.

엄마를 탓해요(농담)

할머니 나는 대학을 어찌어찌 들어가서 4년이나 다니고 이제 졸업반이 됐어요.

시간이 정말 빠르지?

할머니가 입에 달고 살았던 '사는 게 전쟁이다'라는 말이 딱 맞는 요즘인 것 같아.

사는 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그럴 때마다 할머니가 자꾸 생각나요. 할머니가 등 긁어주면 스르륵 잠들고,

설탕물에 재운 토마토(도마도 라고 읽었던) 꺼내서 할머니랑 여름밤에 먹고,

할머니 표 장조림, 김치랑 밥과 함께 김에 싸 먹던 그때가 너무 그리워.

할머니가 보고 싶어요.

세영 첼시빌 구조도 가물가물해지는데 할머니 얼굴은 또렷이 남았어.

베란다에서 화분 가꾸던 모습이 눈에 선해서 가끔 꿈에도 나와요.

오늘은 할머니 보고 살아갈 힘 좀 얻으려고 왔어.

힘내서 열심히 다시 살아보려고. 할머니도 하늘에서 응원해 줘.

시간 나면 꿈속에도 찾아와주고.

할머니 사랑해요.

- 할머니를 사랑하는 손녀 지운이 -



To. 김영숙 할머니께 ♥♥

할머니 저 손녀 아란이에요.  
시작 전에... 글씨가 너무 못생긴 거 이해 부탁드립니다 ㅎㅎ  
정말 너무 오랜만에 뵈러 온 느낌이에요.  
저는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재수학원도 그만뒀고 당장 수능이 한 달 남았는데도 맨날 집에 있어요.  
할머니는 다 보고 계셨겠죠.  
어떡하지 걱정은 하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스스로 좀 한심하긴 해요.  
잘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히히 할머니는 잘 지내고 계시나요.  
제가 할머니 딸을 너무 힘들게 하는 거 같아 죄송해요.  
그렇지만 그만큼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요즘 들어 자꾸 시골에 내려가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할머니가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보고 싶어요.  
할머니 너무 염치없지만... 하늘에서 지켜보시면서 응원도 부탁드립니다 ㅎㅎ  
설에 저의(망할 것 같은) 수능 후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사랑해요 할머니

- 첫째 손녀 이아란 드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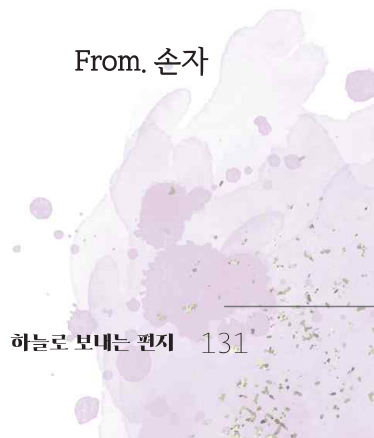
## To. 할머니께

할머니 만나러 온 거 아셨는지 도착하자마자 눈이 소복이 오네요.  
찾아뵙는다고 노력하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오지 못해 죄송해요.  
어제까지 열심히 일하다 문득 할머니 생각이 났어.  
여자친구랑 헤어졌거든.  
누군가랑 헤어진다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닌 거 같아.  
할머니랑 헤어질 때도 정말 힘들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조금씩 괜찮아지는 중인데 옆에 밭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게 참 슬프네.  
눈물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그날은 어쩔 눈물이 그렇게 나오던지  
할머니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고모들 연락받고 갔을 때  
그렇게 힘든데도 아빠 기다렸잖아.  
내가 그 생각만 하면 아직도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렇게 힘든데 아빠가 보고 싶었던 거야?  
그런 마음도 모르고 진작에 설득해서 데리고 가지 못해서 너무 죄송한 마음뿐이야.  
그래도 할머니가 두 번 이런 일 안 만들려고  
위에서 지켜보시면서 나를 가족이랑 화해시켜주셨나 하는 생각이 들곤 해.  
참 생각해 보면 살아생전에 잘하라는 말을 듣고 살아가는데 왜 다 그러지  
못할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내가 그러고 있네.  
그래도 이번 설날에는 좋은 거 사들고 집에 다녀오려고.  
물론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보러 올 거니깐 걱정하지 마.  
지난번에 왔을 때 편지를 쓰면 참 좋겠다는 생각하면서 오늘 편지지 사 왔는데  
사 오길 참 잘했다. 할머니랑 얘기하는 기분이 드네.  
여기는 추운데 그곳을 참 날씨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할머니 할아버지 있는 곳 오면 기분이 좋아.



산소보다 여기가 공기도 맑고 풍경도 좋아서 그런가.  
그리고 할머니에게 자랑하고 싶은 게 있어.  
저번에도 누구보다 먼저 와서 자랑했지만 이제 손자 좋은데 취직했어.  
다 할머니가 신경 써주고 있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해.  
이제 돈도 벌고 집도 얻고, 차도 사고하는데  
우리 할머니 옷 한 벌 좋은 음식 한 번 못 사드려서 그게 죄송하네.  
그 못 해드린 거 가족한테 잘하고 살게.  
할머니로 인해서 다시 우리 조카들이랑도 오랜만에 만나서 친해지는 중이야.  
동혁이는 군대 갔잖아 다 알고 있지?  
이 추운 날씨에 나라 지키겠다고 고생하는데  
할머니가 다치지 말라고 잘 보살펴 줘~  
할 말이 많은데 생각이 안 나네.  
할머니가 나라를 꽃을 피워주려고 거름이 되어주었다는 사실에  
하루하루 감사해하며 살아가려고 해.  
오늘은 로비에 앉아서 편지를 쓰는데 너무 추워서 오들오들 떠느라 글씨가 안 이쁘다.  
다음에 또 와서 이쁘게 하나 써줄게.  
우리 할머니 이 편지 받고 환한 웃음 지으며 흐뭇해하셨으면 좋겠네.  
좀 있음 설날이라 맛있는 거 고모들이 해서 같이 올게.  
그때 동안 몸 건강히 꽃밭에서 뛰놀으셨으면...

From. 손자





## 친할아버지께♥

할아버지 잘 지내고 계셨죠?

저는 방학 동안 한식조리기능사 필기 공부 열심히 해서

한식조리기능사 필기시험에서 합격했어요 ㅎㅎ 잘했죠?

이제 겨울방학 때는 한식조리기능사 실기 열심히 해서 자격증 취득하려고요.

동생은 공부 열심히 해서 성적이 항상 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요번에 대학교에서 처음 시험 결과가 나왔는데

엄청 잘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처음 치고는 잘한 거래요 ㅎㅎ

요번 2학기 때는 더 열심히 해서 10등 안에 들어보려고요.

할아버지가 항상 응원 많이 해주세요~!!

할아버지도 항상 잘 지내고 행복하셔야 해요.

그리고 저희 가족도 잘 지낼게요~

할아버지가 든든하게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저희 모두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할아버지 항상 많이 사랑해요~ ♥

다음에는 자격증 들고 갈게요!! 파이팅~

- 할아버지의 첫 손녀딸 올림♥ -



## 할아버지께

할아버지 그곳은 어떠세요?  
아! 그리고 저는 둘째 손녀 민정이에요.  
그곳은 편하세요?  
그곳에서는 아프지 않죠?  
그곳에서 아프지 말고 먹고 싶은 것도 마음껏 드시고 노세요.  
좋아하는 노래도 듣고 춤도 추고 마음껏 꾸미고  
아! 그리고 요양원에 계실 때 서연이라는 아이가 태어났어요.  
삼촌 아이예요. 요양원에 데려갔었는데 많이 울었어요.  
삼촌 닮아서 어찌나 귀엽던지 여자예요. 아직은 2살이에요.  
전 10살이에요 3학년. 저희 오빠 6학년 13살이에요. 3살 차이예요.  
재은이 언니는 16살, 재운이 오빠는 18살이고 재원이 오빠는 22살이에요.  
우리 엄마 41살, 아빠 42살 1살 차이가 나요.  
저는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거기에서는 편하게 지내세요.  
사랑합니다.  
우주에서 땅 끝까지 사랑합니다.  
우리 가족들이다 생각하고 사랑해요.

- 민정 올림 -





## 할아버지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할아버지께 편지를 써요!

자주 찾아가지 못해서 죄송해요! 앞으로는 자주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보고 싶네요

할머니도 잘 챙겨주고 엄마랑도 아빠랑도 잘 지내고 민성이랑도 사이좋게 지낼게요.

진짜 보고 싶네요♡ 천국에서 볼 수 있다면 ㅎㅎ

할아버지 사랑해요 진짜 보고 싶네요♡

거기서는 행복해요? 거기서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서는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살아요.

전 여기서 행복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화날 때도 있고

거기서는 할아버지는 행복하게 슬프지도 말고 화나지도 말고

그냥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요♡

별로 쓸 게 없어서 말이 돌려 돌리도 내 사랑 돌리고 ㅎㅎ

그냥 재롱떨고 싶었어요 이 편지 읽을 수 있겠죠????

거기서는 맛있는 거 먹고 지내요? 거기서는 다 먹어서 배부르게 살아요.

근데 벌써 3년인가... 그 정도 왔네요. 보고 싶네요. ♡

사랑해요. 항상 하늘에서도 잘 봐주고 지켜줘요♡

나도 가족들 잘 지켜주고 나도 지키고 진짜 고마웠었고 사랑했고

미안했던 손녀딸이 되어서 미안하고 사랑해요♡

- 할아버지가 보고 싶은 손녀딸 태희 올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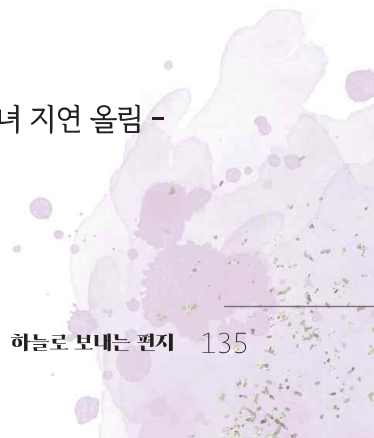




## 사랑하는 할머니

할머니 나 지연이야!  
1년 이상이 지났는데 편지는 처음으로 쓰네.  
천안에 올 때마다 편지지를 사는 걸 잊어버려서 이제야 편지를 써.  
예전에는 할머니가 꿈에 많아 나왔는데 요즘에는 한 번도 안 나왔어..  
내가 서울로 이사 가서 집을 못 찾는 거야??  
나 미용하려고 서울 올라와서 벌써 1년 버티면서 일하고 있어 ㅋㅋ  
손도 다 찢어지고 겁나 힘들어.  
할머니도 손 다 찢어져서 내가 핸드크림 사다 주고 그랬는데,  
핸드크림을 발라도 쉽게 낫질 않네..  
근데 나 아토피는 다 나았다!? 서울 올라오자마자 다 나았어.  
근데 할머니는 녹슨 물 때문에 그런 거 아니라고 했잖아.  
그거 녹물 때문에 안 나은 거 맞았어 ㅋㅋㅋ  
할머니 빨리 서울로 나 보러 와. 나 일하는 것도 보러 오고.  
내가 파마도 맡아줄 테니까 나 파마하고 있을 때 앞에 앉아있어!  
아무튼 이제 나 보러 서울 많이 와.  
집은 6월에 이사 가니까 그때 알려줄게.  
다음에도 꼭 편지 쓸 테니까 글씨 안 보이면 옆 사람한테 읽어 달라 해 ㅎㅎ  
할머니 사랑해  
아프지 말고!!!

- 할머니 손녀 지연 올림 -





## 할머니

할머니 보고 싶다..

할머니 잘 도착했을까?

거긴 어때 할머니? 할머니 떠나던 날 너무 추웠어.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우리 할머니 가는 길 미끄럽진 않을까 걱정했어.

할머니 이제 아픈 없는 곳에 가서 편히 쉬세요..

이가 아파서 못 먹는 것도 없고 숨 쉬는 게 고통스러운 날도 없을 거야.

우리 할머니 이제 행복할 거야..

할머니 그런데 있잖아.. 나는 너무 보고 싶다..

살아오며 언젠가 할머니가 먼저 떠날 거란 생각은 했는데,

막상 할머니가 떠나니까 너무 공허하고 보고 싶어 할머니..

못생긴 손녀딸 발이 최고로 예쁘다며 신데렐라 유리 구두를 선물해 준 할머니.

본인은 아무 옷이나 사 입어도 내 옷은 늘 백화점에서만 사주던 할머니.

같이 목욕탕에 가면 꼭 한 손에는 바나나우유를 쥐여주고

통통한 내 몸에는 비싼 요구르트를 잔뜩 발라주던 우리 할머니.

철없던 내게 아빠 몰래 첫 휴대폰을 사주던 할머니.

사춘기 소녀에게 쌈짓돈을 모아 쌍꺼풀을 선물해 준 우리 할머니.

키우던 거북이가 죽어 세상이 떠나간 듯 울던 나를 달래려

먼 서울까지 가서 예쁜 거북이 세 마리를 사다 준 우리 할머니.

태어나 처음으로 타국으로 떠나게 됐을 때,

공항에 내려 혼자 무서웠을 때,

가장 먼저 잘 도착했냐며 전화를 걸어주었던 우리 할머니..

그때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은데..



할머니,  
할머니가 나한테 어떤 존재였는지 생각해 봤어..  
긴 세월이 지남에 따라 할머니가 나에게 준 무한한 사랑을 너무 당연시했나 봐.  
할머니는 나에게 이렇게 아낌없이 사랑을 주고 떠났는데,  
나는 할머니한테 해준 게 하나도 없네..  
우리 할머니랑 했던 마지막 인사도, 대화도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아.  
바쁘다는 핑계로 걸려오는 전화를 무시했던 날도 있었던 것 같아.  
할머니.. 너무 미안하고, 너무 고맙고, 너무 보고 싶고, 너무너무 많이 사랑해.  
할머니.. 우리 꼭 다시 만나자.  
다시 만나서 곶감도 나눠먹고 옛날이야기하며 수다도 떨고 그러자.  
곶감 씨를 할머니 얼굴에 붙이고 웃겨 죽는다고 깔깔 웃어도,  
늘 그랬듯이 인자한 미소로 날 보며 웃어줘.  
세상에서 가장 작은 발을 가진,  
세상에서 제일 큰 나의 우주 우리 할머니 사랑해.

- 큰 손녀 -





## 할머니께

그간 잘 지내셨나요? 이유진입니다.  
올해로 스무 살이 되었어요. 대학도 꽤 좋은 곳에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걱정 없이 한가한 날들을 보내고 있어요.  
곧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지겠지만요. 어제는 졸업식을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부모님 없이 저희끼리만 하는 단출한 행사가 되었지만  
그래도 기쁘고 슬픈 건 같았습니다.  
노래 가사처럼 ‘안녕은 영원한 헤어짐은 아니겠지요.’  
꾸준히 다시 만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우리도요,  
할머니, 결국에는 다시 보게 되겠지요?  
그렇게 생각하니 문득 떠오르는 그리움도 견딜만한 것 같아요.  
책을 많이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쓰다가도 이게 아닌가 싶어 여러 번 멈춥니다.  
저 혼자만 보는 일기보다 신경 쓸 부분이 많으니깐요.  
더군다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쓰는 편지는 더 그렇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다니 믿기지 않아요.  
시간은 빠르고 원망스럽고 또 그러면서도 감사하네요. 생신 축하드려요.  
항상 사랑합니다. 오늘은 춥고 맑은 날이 될 것 같아요.  
겨울이라 아직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꽃은 피지 않았지만  
그저께 산책을 나갔다 목련 나무에 봉오리가 맺힌 것을 보았습니다.  
봄은 생각보다 금방 올 것 같습니다. 꽃이 피면 또 만나요. 안 펴도 만나고요.  
최근에 본 영화에서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날 움직이는 것은 두려움인가 사랑인가?’ 둘 중 무엇이든 나쁘게 볼 건 없지만  
저는 사랑으로 움직이고 싶어요. 부디 계속 그럴 수 있길 바라요. 할머니도요.  
사랑으로 가득한 새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생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제가 될게요.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 유진 올림 -

추신. 할아버지께도 안부 전해주세요.



## 사랑하는 할아버지께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저 까꿍이에요.  
아장아장 걷던 까꿍이가 벌써 22살이에요.  
할아버지, 22년 동안 엄마한테 효도도 못하고 속만 썩여 죄송해요.  
우리 할아버지가 사랑하고 아끼는 딸을  
제가 자식이 되어 이렇게 불행히 하며 죄송해요.  
우리 엄마 사는 동안 할아버지를 많이 보고 싶어 했어요.  
할아버지 생각에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우리 엄마 저 때문에 이렇게 일찍 갔지만  
내가 준 상처 우리 할아버지가 다 괜찮다고 눈물 닦아주시고  
저 대신 우리 엄마 많이 안아주세요.  
할아버지가 그렇게 예뻐하시던 까꿍이가 엄마를 상처 주고 못되게 커서 죄송해요.  
할아버지. 우리 엄마 꼭꼭꼭 끌어안아주세요.  
우리 엄마한테 수고했다고, 고생했다고 꼭 말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정말 그리워하고, 죄송해하고, 보고 싶어 하고, 항상 사랑하고 있다고,  
그리고 혹시라도 나한테 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다고 전해주세요.  
엄마도 할아버지도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 22살 까꿍이가 -





## 할아버지께

할아버지! 저 진영이에요.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날부터 얼마나 보고 싶은지..

또 며칠은 울다 잠든 적도 있었어요.

처음에 할아버지 부고 소식 듣고선 너무 놀라서 울음도 나지 않았는데,

막상 장례식 가보니 서서히 눈물이 나더라고요..

할아버지 저랑 가족이 된 지 16년밖에 안 됐는데, 너무 짧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할아버지께 제가 결혼하는 모습도 너무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못 보여드려서 너무 죄송해요.

할아버지 살아계실 때 전화 한 번이라도 할걸 그랬어요.

너무 후회되더라고요.

할아버지 소정리 계실 때 저한테 양치하라고 하셨을 때 너무 무서웠는데

할아버지랑 기억할 수 있는 추억이 별로 없어서 슬퍼요.

할아버지 입관식 하실 때 마지막으로 뵈 할아버지가 처음엔 좀 안 믿겼어요.

무엇보다 할아버지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리고 화장하니 이제 막 실감이 났어요. 할아버지 좋은 천국 가셨길 바라요.

거기서 진우까지 기다리다가 같이 또 환생해서 할아버진 제 할아버지 다시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할아버지랑 작별했을 때 할아버지랑 안았잖아요.

그때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할아버지 조금 더 뵈고, 전화도 할걸..

할아버지 자주 뵈지 못해 죄송해요. 나중에 제가 성인이 되면 꼭 자주 갈게요.

지금은 거기까지 혼자 갈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요. 할아버지 사랑해요♡

- 할아버지의 한 명뿐인 손녀 진영이 올림 ♡ -



##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 안녕! 오랜만이지? 하늘에서는 잘 지내?  
거기에서 그동안 먹고 싶었던 음식들 다 먹으면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지?  
아무 걱정 근심 없이 행복하게 잘 계실 거라고 믿어.  
가끔 일상생활 속 할아버지 생각이 문득 들어.  
그럴 때에는 마음이 쓸쓸하네.  
할아버지를 못 본다는 게 아직까진 믿기지 않네.  
오늘이 바로 49일째 되는 날이네? 이따가 할아버지 만나러 기분 좋게 갈게.  
내가 일상 속 힘들 때마다 날 지켜줘서 고마워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날 지켜주실 거라고 믿고 나 용기 내서 잘하고 있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를 계속 지켜봐 주실 거라고 생각해.  
나의 할아버지로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못 했던 것들만 떠올라서 죄송한 마음이 커..  
내가 먼 훗날 할아버지에게 가게 되면 지금보다 더 잘할 게.  
내가 점점 많이 좋아지고 있어서 할아버지에게 감사해.  
앞으로도 이 멋진 손녀 잘 지켜봐 주세요 ㅎㅎ  
나도 힘들 때 할아버지 생각하면서 힘낼게.  
그리고 시간이 되면 엄마랑 할아버지 보러 자주 가보도록 할게!  
나에게 많은 사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하늘에서 보고 싶었던 사람들과 함께 평생 아무 걱정거리 없이 아프지 말고 잘 계셔야 해!  
나중에 또 편지 쓸게. 사랑합니다.  
나의 할아버지♡

- 할아버지의 첫 손녀 화연이가 -



## TO. 할머니에게

할머니 안녕? 요즘은 잘 지내고 있어? 난 이제서야 할머니의 빈자리가 느껴 지나봐.  
49재가 다가오면서 진짜 할머니를 보내야 하는 시간인 것 같아서 그런 걸까?  
일상에 아무렇지 않게 젖어들다가도  
홀로 있는 시간만 되면 할머니 목소리가 너무 그립고 듣고 싶어서 미쳐버리겠어.  
너무 그리워서 마음이 너무 아파. 이제서야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에  
너무 무섭고 힘이 들어 모든 게 내 탓인 것 같아.  
내가 할머니를 너무 힘들게만 한 것 같은 죄책감이 마음속에 깊이 남는 시기인가 봐.  
할머니가 내가 너무 꼴좋다고 할머니가 나를 그리워한 몇 배를 대갚음해 주는 것 같다고도  
생각하고 반성하고 후회하고 자책해.  
매일을 눈을 뜨면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내야 할까  
혼자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 너무 두렵고 무서워졌어.  
왜 시간은 이토록 빠르게 흘러가는 것인지.  
할머니가 그리운 그 마음이 점점 깊어져서 더 나아질 줄 알았던 시간들이 더 힘들어져 가는  
것 같아서 무서워. 나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 곧 진짜 보내줘야 한데 왜 난 더 그리움이 깊어지는 걸까 시간이 약이라던데.  
나에게는 그저 쓸 뿐 소용이 없어.  
출근을 하다가도 혼자 생각 정리를 하다가도 그냥 그저 눈물만 날뿐 나아지지 않아.  
미안해 오늘도 또 내 이야기만 하네. 너무 보고 싶다.  
너무 미안하고 사랑해. 나중에는 내가 할머니 할게.  
꼭 내 손주 딸로 태어나서 더 더 많이 사랑 줄게.  
미안하고 사랑해.  
제발. 꿈에 나와주라 할머니.

- 헤인-





## 사랑하는 우리 할머니에게

잘 지내고 계셨죠?  
벌써 4년이 지났고 많은 게 달라졌어요.  
저는 아빠가 됐고 엄마는 할머니가 되었답니다.  
할머니가 남겨 주신 사랑 덕분에  
우리 아기 도라는 애정을 듬뿍 받으며 자라고 있어요.  
변하지 않은 것들도 있답니다.  
홍익이랑은 오늘도 국밥 한 그릇 하고 할머니 뵈러 왔어요.  
여전히 우리는 사이가 좋고 술은 더 좋아해요.  
할머니 집 앞 주점에서 놀던 때가 그리네요.  
할머니 항상 너무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  
감사하고 사랑해요.

- 기쁨조 양재현 드림 -





## 할머니

나 할머니 예쁜 손녀딸 혜령이에요.  
할머니가 아프지 않은 천국으로 간지 벌써 49일이 흘렀네.  
아직도 주말에 천안 가면 할머니가 계실 것 같고  
할머니가 안방 침대에 누워 내가 할머니~! 하고 가면 벌떡 일어나  
제일 반가운 친구가 왔네! 하면서 손 꼭 붙잡고 한참을 반겨줄 것 같아.  
같이 누워서 옛날이야기도 하고, 동영상도 찍고 노래도 하면서  
아기처럼 웃는 할머니 얼굴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전히 실감이 나지 않지만  
사실 할머니 가시고 짧은 기간 동안  
희한하게 계속 나한테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할머니가 내 옆에서 계속 돌봐주고 있는 기분이 들어서  
따뜻하고 행복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너무 슬퍼서 문득문득 눈물이 나기도 했어요.  
나는 내가 눈물이 많지 않은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직 더 단단해지려면 멀었나봐 ㅎㅎ  
할머니 병원에 계실 때 반찬 투정하는 올 함미 아기처럼 밥 한술 뜸 때마다  
반찬 올려 드려가며 다 먹여드리고 누워있는 할머니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  
할머니 앞에서 절대 울지 말아야지 하고 꼭 참았다가 할머니 잠든 모습 보고 있으니  
그냥 눈물이 주룩주룩 흐르더라고. 종종 할머니 몰래 울었는데  
이제는 다 보고 있을 거라 생각하니 그러지 말아야겠다 생각이 드네 ㅎㅎ  
나 우는 모습 보면 할머니도 마음 아플 거 아니야 그치! ㅎㅎ 라고 하면서  
지금도 눈물이 나네 정말 ㅎㅎ 오늘 그리고 내일 할머니 49재까지만 봐줘 ㅎㅎ 조금만  
울게요! 그만큼 할머니를 사랑한다는 거지 ~ ㅎㅎ 못 본 척해 줄 거지? 앞으로는  
바보처럼 울기보다 즐거웠던 추억 생각하면서 더 많이 웃을게!  
할머니도 내가 항상 웃고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랄 테니까! 그치?  
나도 할머니처럼 강하고 유쾌하고 멋있는 사람이 될게요♡



나는 엄마도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6.25때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그 때부터 홀로 7남매를,  
그것도 누구 한명 빠짐없이 잘 키워낸 할머니가 정말 대단하고 존경스러워.  
너무 멋있는 사람이야 할머니는 ♡ 그 모습을 엄마가 닮아서 엄마가 멋있고,  
그런 엄마 보면서 나도 멋있는 사람이 되도록 항상 겸손한 자세로 노력하며 열심히 살게요.  
할머니. 여태까지 너무나 큰 사랑 주셔서 감사해요♡  
바쁘단 핑계로 잘 해 드리지 못해서 너무너무 후회스럽고 죄송하고,  
할머니가 한없이 주신 그 사랑에 평생 보답하지 못하지만  
앞으로도 지금껏 해온 것처럼 한 발 한 발 성장하면서 할머니한테 내가 이만큼 멋있는 사람이라는 거,  
잘 살고 있다는 거 보여드릴게 ㅎㅎ♡  
할머니가 매일 오빠보다 빨리 가도 좋으니  
빨리 남자친구 만들어서 결혼하라고 했었는데 ㅎㅎ 조금만 기다려주지!!  
그래도 곁에서 다 보고 있을 거지?  
나중에 결혼해서 예쁘게 알콩달콩 사는 모습도 얼른 보여드릴게♡  
할머니도 아픈 곳 없이 행복하게 잘 있어야 해요  
나중에 만나면 꼬옥 안아줘.  
할머니 보고 싶어요. 사랑해♡

할머니 49재를 하루 앞둔 날,

- 예쁜 손녀 혜령 드림 -





## 할머니께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 준형이에요.

요즘 코로나19바이러스 때문에 못 찾아보는데

할머니께서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학교도 잘 다니고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어요.

할머니는 어떻게 생활하세요?

할머니를 마지막까지 뵈고 싶었는데 그때는 어려서 마지막에 못 뵈었는데...

진짜 벌써 돌아가신지 5년인데 시간이 참 빠르네요.

할머니 저희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열심히 살게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날 할머니가 저를 찾았다고 했는데

그때 못 가서 죄송해요. 아직도 마지막 날이 생생한데...

옛날이 준수 아플 때 천안도 같이 가고 했었는데 아쉽네요.

그래도 항상 기억할게요.

준수도 이제 건강하고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니 걱정 마세요!

- 할머니를 제일 사랑한 홍준영 올림 -



## 사랑하는 할아버지께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수아예요.  
제가 옛날이 편지에 붙인 벚꽃잎도 시들었지요?  
벌써 여름이 다가오고 있어요. 너무 덥네요.  
할아버지도 더우시죠?  
너무 보고 싶어요.  
할아버지가 약 드실 때 물 가져다드리면  
저한테 활짝 웃으시며 고마워요라고 하신 게 계속 생각이 납니다.  
또 포비를 보면 암전해서 좋다고 하셨던 것도 떠오르고요.  
계속 할아버지가 보고 싶습니다. 아빠도 그런 거 같아요.  
갤러리를 보다가 할아버지 사진이 나오면  
얼굴을 가리고 울컥 이라고 외친 뒤에 얼굴을 드러내요.  
많이 보고 싶으신 것 같아요. 할아버지 저 너무 오랜만에 왔지요?  
아빠가 자꾸 재아랑 가거나 혼자만 다녀오셨어요.헉  
오랜만에 할아버지 뵈러 오니까 더 보고 싶어요!  
할아버지 이번 시험은 망쳤지만 다음 시험은 잘 볼 수 있게 끈기와 성실함을 주세요!  
할아버지가 항상 보은에서 천안으로 차 타기 전에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고 열밤자고 만나자!라고 하시면서  
만 원을 주셨는데 공부 열심히 안 해서 죄송해요.  
이제부터라도 할아버지 생각하면서 열심히 공부할게요.  
할아버지가 건강하셨을 때 같이 여행 못 다닌 게 후회되어서 그땐 슬펐지만  
재아가 너무 춤을 요란하게 춰서 슬픔이 조금 가셨어요.  
할머니 칠순 잔치 때에도 춤출 테니까 꼭 봐주세요!  
사랑해요. 할아버지 또 자주 올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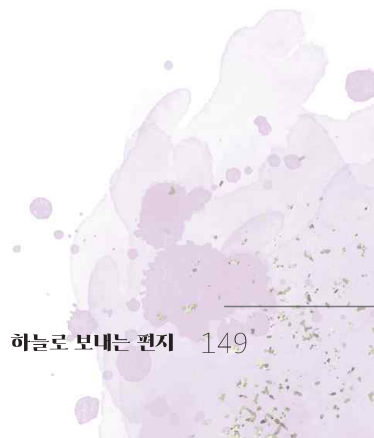
## 할아버지께


할아버지 잘 지내고 계세요? 잘 지내고 계셨으면...  
저희 식구들은 별다른 게 없이 똑같이 지내고 있어요.  
할머니는 간혹 작은 엄마께서 보내주시는 사진으로 뵈고 있는데  
먹는 것도 잘 드시고 많이 움직이시고 활동적이라고 하시네요.  
노래 부르실 때가 참 많이 보이시는 것 같아요.  
코로나 예방접종 1차라도 맞으면 비대면이라도 면회를 갈까 생각 중이에요.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시면 참 많이 답답하시죠? 많이 많이 맘에 안 드실 거예요.  
특히 제가 그렇겠죠! 아기 때 그리 예뻐를 받았던 나라는 데 왜 이렇게 커버렸는지...  
저도 제가 한심스러워요.  
할아버지 할머니랑 가까이 살았으면 좀 더 살가운 손녀가 되었을 거예요.  
명절인데 예쁜 꽃도 못 드리고 아직까지 가족들 사지 하나 제대로 준비를 못 해서  
할아버지 혼자 외롭게 두고 있네요.  
다음번에는 가족사진 준비해서 오도록 노력할게요.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예쁜 꽃도 사다 드릴 수 있게 되길...  
아무것도 못해 드리고 오는 거라 마음이 참 죄송스럽습니다.  
아무 걱정 마시고 그곳에선 행복하시기를...  
다음에 또 올게요.  
할아버지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 하늘에 계신 할머니에게

할머니 나 윤서야!  
할머니가 엄청 사랑했던 윤서야!  
나 안 보고 싶어?  
근데 벌써 기일이네... 목소리 쉴 때까지 울고 싶다.  
그리고 할머니가 만들어 준 음식도 먹고 싶고  
할머니 품에 안겨보고 싶고  
냄새도 맡고 싶고 놀러 가고 싶고  
같이 하고 싶은 거 많은데 벌써 가면 어떻게 해!  
목소리도 기억 안 나...  
그리고 나 태어날 때 기억나?  
나는 울고 할머니는 웃었지, 기뻐했지.  
이젠 내가 웃어 줄게!  
커서 어른이 되면 효도해 드리겠다고 한거  
못 이루어 주어서 미안하고  
그땐 뽀뽀하고 싶으면 하고 안고 싶으면 안고  
같이 티비도 보고 했는데  
이젠 그걸 하고 싶어도 못하니까 슬퍼지고 보고 싶고....  
그거 알아? 지금 편지 쓰고 있는 중에도 계속 할머니 생각만 난다는 거?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





## 너무 사랑하고 보고 싶은 외할아버지께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할아버지가 사랑하는 손녀 혜진이에요.

진짜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늦게 찾아뵈어서 죄송해요.

할아버지 잘 지내시나요?

할아버지 손녀 혜진은 대학교 잘 입학해서 잘 지내고 있어요,

저번 학기에는 학과에서 1등도 해서 상도 받았어요.

할아버지가 들으시면 제일 좋아하실 것 같아서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는 남자친구도 생겼어요.

둘 다 축하해 주실 거죠?

할아버지는 편하게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나요?

거기서는 아프지 마시고 걱정 없이 지내시면 좋겠어요.

저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것들 잘 지키고 있어요.

힘들거나 슬플 때는 거울보고 환하게 웃고는 해요.

그리고 그때마다 할아버지 생각이 나요.

마지막으로 뵈었을 때 할아버지가 옛날 얘기해 주신 거 저 위로해 주신 거죠?

정말 감사했어요. 그 순간은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할아버지 정말 너무 보고 싶지만 너무 오랫동안 붙잡아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정말 자주 그리지만 가끔 그리워할게요.

정말 정말 사랑해요.

- 혜진 드림 -





## 사랑하는 할머니

어느덧 할머니가 긴 여행을 떠난 지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  
그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할머니 다 보고 있었어?  
올해는 유난히 더 더울 거라는데  
생각해 보니까 작년 여름에 할머니가 병원에 있는 동안에도 진짜 더웠어.  
도희 언니는 복숭아를 보면 할머니가 생각날 것 같다는데  
나는 작년 여름만 생각나! 거긴 어때?  
지민이는 가끔 할머니가 꿈에도 나온다고 그러던데  
어떻게 내 꿈에는 한 번도 안 나와?  
내가 아무리 속을 썩이고 말도 안 듣는 못된 손녀 딸이어도 그렇지!!  
한 번쯤은 내 꿈에 나와줘!!  
그래야 내가 할머니를 오래오래 기억하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  
듣고 싶은 말도 너무 많아!  
하늘나라에서 잘 지내다가 우리 나중에 만나면 오래오래 얘기하자.  
사랑해 우리 할머니!!  
다시 만날 때는 내가 재미있는 이야기 엄청 많이 가지고 가서 해줄게.  
어릴 때 할머니가 나한테 그려줬던 것처럼..  
진짜 너무 많이 사랑해

- 지현 올림 -





## 할아버지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저 준호예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지 많은 시간이 흘렀네요.

저도 중3이고 은호도 중학교 올라가고요.

있을 때 잘해 드리지 못해 정말 죄송하고요 후회합니다.

할아버지 거기서는 잘 지내고 있죠?

공부를 잘하지는 못하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한 사람이 될게요. 할아버지!

엄마랑도 많이 싸우는데 그런 것들도 전부 줄이면서 생활할게요.

할아버지 저 지켜봐 주시면서 저희 가족들 전부에게 응원해 주세요.

할아버지 정말 그립습니다.

나중에 할아버지 만나러 갈게요.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몰라도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사랑합니다.

- 김준호 올림 -

---

하늘로 보내는 편지  
- 형제 · 자매 -

---





## 예지야

언니 왔어. 벌써 2020년이 곧 끝나가.  
그만큼 우리 예지가 간지 시간이 조금 흘렀어. 언니는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어.  
이번 해가 어떻게 시간이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언니 시간을 잘 보내보려고 자격증도 따고 친구한테 목도리도 떠주고  
지금은 언니 남자친구 손가락장갑을 뜨고 있어.  
나름 취미도 생기고 시간 잘 보내고 있지?  
우리 예지가 나를 바라보고 있다면 내가 하는 생각들로 인해  
너를 너무 속상하게 만들까 봐 미안해.  
언니가 이제는 더욱 긍정적으로 잘 살고 잘 지내보다가 그때는 너를 보러 갈게.  
그래도 가끔 내 꿈에 나와 줘서 너무 고마워.  
언니는 꿈에서 너를 봐도 너무 울지만  
다음에 꿈에 나왔을 때는 재미있게 행복하게 놀면서 웃어볼게.  
항상 언니가 너무 울어서 미안해.  
내 세상 너무나도 소중한 내 동생이었던 네가 없음으로써 언니의 삶은 너무 변해버렸어.  
나는 이제 누구의 언니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항상 같이 상의하고 또 서로의 고민을 이야기했던 내 동생이랑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혼자 생각해야 되는 거,  
우리 예지는 언니에게 제일 소중한 단 하나뿐인 내 동생이자 친구, 그리고 딸이었어.  
언니는 항상 챙겨주고 싶었던 너에게 도움 되는 이야기도 많이 해주고 싶었는데  
철없던 언니라 너무 잘못해 준 거 같아서 미안해.  
많이 부족했던 언니라 우리 예지 언니 챙기느라 고생했겠네.  
그래도 내 기억 속에 우리 예지는 항상 웃고 있어서 웃는 모습이라 언니는 너무 다행이야.



많이 보고 싶은 내 동생 예지야.  
오랜만에 편지를 써서 좋은 말만 가득하게 쓰고 싶었는데  
또 말 정리 하나도 못하고 적은 거 같아.  
다음번에는 좋은 말만 가득하고 정리해서 말할게.  
언제 어디서나 언니는 항상 너를 사랑해. 알고 있지?  
언니는 죽을 때까지 잘 살고 그러고 너 보러 갈게.  
너한테 혼나지 않게.  
이런 언니 모습 보면 영영 울겠다 우리 예지.  
진짜 언니가 너무너무 보고 싶어.  
언니라고 부르는 너의 목소리도 너무 듣고 싶어.  
언니가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언니가 면목이 없다..  
그래도 언니 동생이어서 너무 행복했어.  
엄마, 아빠도 내가 잘 보살필게.  
언니가 너무너무 고마웠어.  
예지야 진짜 너무 보고 싶어.  
사랑해.

- 너를 사랑하는 너의 언니 강지가 -

PS. 그래도 너가 맞추던 퍼즐 다 맞췄어!! ㅎㅎ 잘했지?





## 사랑하는 내 동생 소은이

사랑하는 내 동생 소은아

언니가 지켜주지 못해서 너무 미안하다 울 애기

인사도 못하고 보내서 너무너무 미안하다

혼자 가는 길이 얼마나 무섭고 힘들었니

하늘로 가는 길이 길고 무섭겠지만 착하게 산 우리애기 좋은 곳으로 갈 것이다

언니가 믿는다 울 애기 씩씩하니까 그 먼 길 혼자 잘 갈 수 있지?

먼저 가 있어 언니는 할 일이 남았으니 다하고 나중에 하늘에서 만나자

다음 생애엔 좋은 부모 형제 돈 많이 있는 좋은 집으로 태어나서

아프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

49일 동안 가서 그곳에서 편히 기다리고 있어

그날 언니랑 인사하자 울 애기

불쌍한 내 동생 이젠 다 잊고 그곳에서 아프지 말고 편히 지내

동생아 사랑한다 언니가 너무 많이 미안해



## 사랑하는 내 동생 동우에게

자주 연락만 하다가 편지로 쓰려니까 이상하다.  
아직도 동우의 모습, 행동, 목소리 다 뚜렷하게 생각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못해준 게 너무 많더라.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누나가 되어 주지 못한 게 제일 미안해.  
좋은 소리 하나 해주지 않는 누나도 누나라고,,  
무뚝뚝한 누나 옆에서 막내답게 장난도 치고  
장남답게 씩씩하게 있어줘서 너무 고마웠어.  
동우야 내 동생 동우 너무너무 보고 싶다. 평생 잊지 않고 살 거야.  
자주 동우 보러 가지 못해도 항상 생각하고 있으니까 서운해하지 말고  
우리 지유, 뱃속에 있었던 지아, 우리 동우가 참 예뻐해 주었을 텐데  
그립다. 너무,,  
엄마, 아빠는 누나가 잘 챙길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아직도 옆에 사는 거 같고 아직도 믿기지 않지만  
동우한테 할 얘기가 생길 때마다 편지 써서 갈게.  
정말 너무너무 사랑한다 내 동생  
내 동생이랑 있던 시간들 너무 행복하고 재미있었어.  
내 동생 동우로 지내줘서 고마워  
고맙고 미안하고 사랑한다.  
하나뿐인 내 동생 김동우





## 지영이♡

지영아, 잘 있냐! 엄청 보고 싶네. 벌써 너 떠난 지 한 달이 넘었어.  
시간이 빠른 것 같기도 하고 막연하게 흘러가는 시간이 야속하기도 하네.  
사실 잊고 살다가도 문득문득 생각나.  
어제는 페이스북 보는데 크러쉬랑 조이 연애설이 터진 거야.  
그래서 당연히 네 생각이 제일 먼저 나더라고.  
카톡하고 폐북 언급하고 싶는데 할 수가 없어서 또 속상하더라.  
네가 달 찍는 거 엄청 좋아했잖아. 그래서 이브닝 끝나고 퇴근할 때 달 보면  
또 너 생각이 나고.... 언니 일상에 지영이 네가 엄청 많더라고, 되게 보고 싶다.  
그날 이후로 큰엄마, 큰아빠 한 번도 못 뵈는데 잘 계신지 궁금하다.  
지영이 네가 하늘에서 잘 보살펴드려 승중이도 그렇고 다 지영이 너를 그리워해.  
물론 언니도, 9월 4일에 선영이랑 승중이랑 제중이랑 같이 너 보러 갈게!  
그전에 언니 꿈에 나와줬으면 좋겠다. 처음에는 너 힘든데 언니한테 연락도 안 주고,  
혼자 그런 나쁜 생각한 게 밉고 연락 한 번 더 못한 언니 자신이 싫고 했는데  
이제는 그냥 너무 보고 싶을 뿐이야.  
지영이 너랑 이미지 그런 거 찍길 잘한 거 같고 더 잘해주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한 거 같아서 미안하고 그래. 엄마한테 그 연락받았을 때 정말 안 믿겼어.  
시간이 갈수록 실감 나니까 너무 보고 싶는데 못 보고  
이야기하고 싶는데 못하는데 속상했어 다음 생에도 언니 동생으로 태어나주라.  
언니가 지금보다 더 잘해줄게 예뻐해 주고..  
하늘에서는 아프지 않고 있는 거 맞지? 약도 안 먹고, 토토도 있고,  
지영이가 하고 싶은 거 다하면서 행복했으면 좋겠다. 많이 보고 싶어.  
언니 꿈에도 나와 주고, 큰엄마, 큰아빠, 승중이가 더 이상 힘들지 않도록 지영이가 도와줘.  
언니는 너 잊지 않을게. 오늘도 우리 지영이 사랑해♡





## 사랑하는 큰 누나에게

엄청 오랜만에 편지 쓰네.  
큰누나도 알겠지만 나 말주변도 없고 글 솜씨도 없어서 편지 잘 안 쓰잖아.  
그래도 써 줘야 하는데 미안해.  
이번에 외할머니 댁 사촌들끼리 외할머니 댁으로 놀러 갔을 때  
큰누나 생각이 많이 났어. 큰 누나도 같이 놀았으면 좋을 텐데...  
요즘 계속 누나 생각나고 엄청 보고 싶어.  
항상 무언가를 하다가도 누나 생각나고 진짜 보고 싶다.  
요즘 엄마는 계속 무릎 아프다 어디 아프다 계속 그래.  
큰누나가 잘 지켜주라. 난 돈 벌어서 엄마 건강검진 시켜드리려고 좋은 생각이 있지?  
누나 오늘 나랑 엄마만 온 이유는 누나도 알겠지만 아빠랑 작은 누나는 출근해서 못 왔어.  
그래서 나랑 엄마만 왔어.  
그래도 작은 누나는 토요일에 오고 나랑 아빠랑 엄마는 일요일에 다시 올 거야.  
아 맞다. 나는 평일 오전 7시에서 오전 10시까지 편의점 아르바이트 시작했어.  
그래서 일 끝나면 영어 공부하고 컴퓨터 학원도 가려고,  
그래야 취업할 때 편할 것 같아.  
이제 열심히 살아야지.  
앞으로 지켜봐 줘.  
항상 미안하고 사랑해 보고 싶다.





## 보고 싶은 우리 오빠

오빠 저 넷째예요.

저 멀리 계시지만 항상 가까이 계시는 것 같아요.

오빠 살아생전에는 셋째 언니만 예뻐해서 시기도 많이 나고  
한때는 오빠를 미워해 본적도 있어요.

오빠가 저한테 고맙고 미안하다는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진짜 오빠 마음이 그러시면 단 한 번이라도 제 꿈에 보여주세요.

보고 싶어요.

잠시도 잊어 본 적 없고 살아계실 때 더 신경 쓰고 잘 해 드릴걸 후회도 해요.

오빠 비록 이 편지는 하늘로 보내는 편지지만 오빠한테 배달되리라 믿어요.

오빠 우리 자매들 걱정 마시고

그곳에서는 부디 아프지 마시고 잘 지내셔야 돼요.

얼마나 될지는 몰라도 언젠가는 우리 오빠를 뵈 날이 있겠지요?

그때 만나서 못했던 얘기 많이 나누고 그때까지 잘 지내세요.

오늘은 오빠가 돌 아기 신지 만 2년이 됐어요.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고 다음에 또 올게요.

- 오빠를 너무 보고 싶어 하는 넷째 정애 드림 -



## 우리 언니에게

언니 잘 지내지?  
내 꿈에 나오는 거 그냥 나 보고 싶어서 나오는 거지?  
언니한테 뭐 안 좋은 거 없지?  
거기는 어때? 언니 친구는 만났어?  
거기에서는 언니가 행복하기만 했으면 좋겠다.  
꿈에 자주 나와줘서 나랑 놀아줘서 고마워!  
그래도 언니가 너무 그립다.  
언니랑 이제야 더 잘 지내보고 싶어서 차도 사고 여행도 다니고 싶었는데...  
언니 설 때는 내가 용돈도 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해주고 싶었는데...  
그걸 못했네. 후회된다.  
언니 학교 다닐 때 내가 언니 용돈이라도 줄걸...  
언니 보고 싶다. 같이 놀고 싶고  
언니 부탁해서 미안하지만  
아빠가 노년에는 돈 걱정 안 하고 그래도 행복할 수 없지만,  
편안하게 여태 고생하신 거 보상받았으면 좋겠어. 도와줘 언니.  
언니 행복만 빌어야 하는데 부탁해서 미안해.  
언니 거기서 외롭지 말고 할머니도 만나고 친구도 만나고 행복하게 보내.  
사랑해!

- 세상에서 제일 언니 행복을 빌고 언니를 제일 좋아하는 하나뿐이 없는 동생이 -





## 사랑하는 내 동생 유재철!

하늘의 별이 된지도 오래되었지만  
하루도 네 생각을 안한 날이 없구나!  
그곳은 돈도 필요 없고 술 담배도 없이 살 수 있지!  
항상 지나고 나서 후회하게 되는구나.  
안나 엄마, 안나, 정선이, 효민이 잘 되게 해주고  
먼저 가서 아빠, 엄마랑 아프지 말고 외롭게 지내지 말고  
하루하루 웃으며 지내고 있어.  
미안하고 사랑한다는 말 너무 늦게 말해서 미안해.  
재철아! 오랜만에 불러본다.  
다음 생에는 네가 오빠로 다시 만나서 제대로 살아보자.  
마지막 너의 문자  
“누나 사랑해요”  
죽는 날까지 가슴에 새기며 살게.  
내가 더 사랑해



## 언니야

벌써 일 년이다.  
시간 참 빨라. 그치?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다.  
나는 잘 지내고 있어.  
아이들도 쑥쑥 크고, 오빠랑은 싸우다 좋다 반복하면서  
때로는 친구들 만나서 술도 마시고...  
언니는 어떻게 지내?  
잘 지내고 있는 거지?  
마음만큼은 편안했으면 좋겠어.  
이곳에서의 힘든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있었으면 좋겠어.  
나의 바람은 오직 이것뿐이야.  
그러니까 부디 마음 편하게 있기를...  
들려주고 싶은 소식들이 참 많은데  
언제나 그랬듯이 나보다 먼저 알고 있을 것 같아서.. 그렇지?  
언니 보고 싶다. 전화 통화하면서 몇 시간이고 수다도 떨고 싶다.  
맛있는 파스타집에도 가고 싶고 커피도 마시고 싶다.  
나중에 우리 다시 만나면 꼭 하자!  
날 좋은 날 우리 또 만나  
부디 편안하길,,  
그리워 언니





## 사랑하는 태중오빠!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펜을 들었는데  
무슨 말을 먼저 해야 할지 모르겠네.  
내가 좀 더 많이 신경 썼어야 했는데 미안하고 죄스럽고,  
내가 무슨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어.  
조금만 기다려 주지. 잘하려고 했어 오빠.  
이렇게 허망하고 급하게 떠날 줄 알았다면 맛있는 밥이라도 사줄걸...  
너무 외롭게 보내서 미안해 오빠 나 용서하지 마!  
다음 생에는 나 같은 동생 만나지 말고 좋은 집안, 좋은 부모 형제 만나  
멋있고 폼 나게 행복하게 살아. 내가 매일 기도할게.  
꼭 그렇게 될 거야.  
엄마, 아빠도 오빠 생각에 많이 아파하셔...  
오빠가 하늘에서 지켜줘. 엄마, 아빠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오래 사시라고...  
남은 가족들도 오빠 없이 행복할 수는 없겠지만 잘 되라고 지켜줘.  
오빠 대신 우리 가족을 내가 잘 챙길게.  
힘을 실어줘 오빠  
많이 그리울 거야.. 아주 많이 많이  
오빠한테는 미안하지만 나 잘 살아도 되겠니?  
너무너무 미안하고 죄스러워 행복할 수 없을 것 같아.  
오빠! 모든 힘든 일, 근심 걱정 떨쳐 버리고 그만 아프고 편히 쉬세요.  
미안하고 그립고 아쉽고 아깝고... 사랑해 태중 오빠

- 죄를 많이 지은 동생이 -

---

하늘로 보내는 편지  
- 친구 · 지인 -

---





## 승민이에게

승민아 추석이 끝나고 학교에 가고 싶어서 있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와서 좋지 않은 소식을 듣게 되었어.  
그걸 듣고 우리 반이 아닌 것 같았는데 근데 그게 너였네...  
추석 전 주에는 우리랑 같이 게임도 즐겁게 하고 했는데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었나 봐  
그 마음을 알지 못했지만 네가 항상 밝게 있어줘서 몰랐거든  
그리고 이번 시험을 열심히 준비하던 것 같은데  
그 노력은 헛되지 않았고, 우리와의 좋은 추억이라 생각해  
또 다른 생각으로는 너의 장례식을 가서 너무 무덤덤하게 있지 않았나 싶어 미안하고  
내 뒤에서 몰래 폰 하던 승민이를 볼 수 없어서 그리운 마음도 있고,  
더 좋은 선택이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  
비록 오래 보진 못했지만 넌 내 친구였고 너무 좋았어.  
서로 의지해가면서 고등학생 시절은 보내나 싶었는데 먼저 갔네.  
나는 너의 뒤통까지 열심히 살아줄 거고 기억할게  
가끔 보고 싶을 때 찾아갈게.  
네가 내 친구로 와줘서 너무 고맙고 잘 지내야 해.  
나도 언젠가 그곳에 갔을 때 다시 만났으면 좋겠고, 반겨줘  
꼭 이제 아프지 말고 또 보자  
보고 싶다.  
승민아.

- 경범이가 -





## 지영이에게

지영아 안녕? 나 아현이야!  
 그동안 잘 지냈냐는 안부도 못 물어볼 만큼 멀리 떠났구나.  
 나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아니, 그보다 더 힘들었구나  
 우리 지영이. 이 말을 곁에 있을 때 해주었어야 됐는데  
 알아주지 못해 너무너무 미안해.  
 나 살기에 너무 바빴나 봐. 나 혼자 너무 재밌었나 봐.  
 중학교 졸업하고 정말 자주 보진 못했지만,  
 오랜만에 봤을 때에도 여전히 재미있고, 같이 있으면 마냥 즐겁더라.  
 벌써 일 년이나 지나고 와서 미안해.  
 이것도 상윤이가 중학교 때 단톡방에 얘기해서, 갈까 말까 잠시 고민하다 오게 되어 미안해.  
 지영아 네가 있는 곳은 어떤 곳이야?  
 거긴 분명 내가 살고 있던 삶보다 편안하고 행복하지?  
 오랜만에 보고 싶다!  
 우리 이제 스물셋이고, 아직 어린데, 뭐가 그리 괴로웠을까.  
 뭐가 그리 급했을까.  
 또 모여서 술 마셔야 되는데~  
 지영이랑 상윤이랑 장난으로 티격태격하는 모습도 그립고,  
 스무 살 되자마자 대천에서 자취하며 멋지게 직장 다니다 퇴사한  
 용기 있는 지영이의 모습도 생각나네.  
 지영아! 거기에서 네가 하고 싶던 거, 눈치 보지 말고 다 해!  
 나도 널 생각하며 덜 눈치 보며 열심히 살게. 안녕!  
 지영아 꿈에서라도 꼭 또 보자!!

- 아현이가 -



## 보고 싶은 내 소라야

오랜만이지?

몇 달 만에 와서 미안해.

그저 보고 싶다는 말 밖에 표현이 안돼.

너무 보고 싶고 보고 싶다. 잘 지내고 있어?

여기는 그냥 더운 여름이 서서히 잘 지나는 중인 것 같아

올해 너무 더웠다 그치?

네가 지내는 곳은 어때?

행복하게 지내는 중이지?

항상 좋은 것만 좋은 풍경만 보면서 지내야 하는데

그렇게 잘 지내고 있을 거라 믿어

너무 몇 달 만에 와서 보고 싶었지?

나도 그저 속상하고 스스로한테 화가 나

내 일상에 바빠 너를 찾아오지 못한 게 화가 나기도 해

이렇게 매번 시간 내서 꼭 올게.

시간이 안 나도 올게.

나 가끔 너와 지냈던 시간들, 장소들을 잊지 못해 다 기억하고 한 번씩은 찾아보게 돼

너무 보고 싶어 미칠 것 같아.

아침에 눈 뜨면 네가 만나자고 카페 가자고, 밥 먹자고 할 것 같아.

몇 달이 지나도 아직 이렇게 생생한 너인데

나 진짜 어찌면 좋을까?

그러니까 꿈에 자주 나와줘

그럼 우리 다섯 시간 동안 수다 떨자

잠도 자지 말고 하루 건 이틀이건 같이 떠들자 외롭지 않게. 알았지?



아직 너와 할 것이 많아서, 하고 싶은 게 많아서 널 못 보내나 봐  
벌써 반년이 지났는데 나 진짜 미련한가 봐 그래도 이해해 주라~  
봄이 되면 벚꽃을 보자고, 여름이 되면 호캉스를 가자고,  
가을이 오면 예쁜 야외 카페를 가자고, 겨울이 되면 홈 파티를 하자고 했던 너였는데  
네 몫까지 열심히 살면서 이뤄줄게.  
항상 보고 싶은 내 소라야 그곳에서는 내가 보이나?  
나 열심히 사는 중이야.  
심심하면 내 꿈에 나와도 좋고.  
항상 기다리는 중이니까 걱정 말고 천천히 나와도 돼. 천천히  
소라야 나 그래도 너가 스스로 행복한 선택을 했다고 생각할게  
그저 네가 잘 지내고 있다고, 그만큼 행복하다가 생각할게.  
나는 항상, 언제나 네 편이야. 운소라 편.  
그러니 마음 놓고 편히 쉬어.  
또 보자 자주 보자 사랑해 운소라!!!

- 지영이가 -





소중한 친구야 잘 지내는 거지?

어느덧 겨울은 지나가고 여름이 왔어. 근데 마음 한구석이 아직은 쌀쌀하고 추워

어느 때는 볼 수 없다는 생각이 들면 막 가슴이 답답해 소리 지르고 싶고

보고 싶은데 볼 수도 없고 그냥 사진으로밖에 못 보고

친구 휴가 나와서 분대장 견장 받았어 너한테 꼭 달아주고 싶고..

사진도 크게 만들어놔서 얼른 액자 갖다 놓고 싶은데

요즘 일 끝나고 면허학원 다니느라고 못 가고 있어 ..

홍 씨는 오늘 입대한다더라 이제 다 가네 ㅋ

나도 이제 곧 가야지 동반 입대가 취소가 돼 가지고...

맘먹었을 때 딱 가버려야 하는데 또 취소되니까 망설여지고 ...

..그리고 항상 내 옆에 네가 있다고 느껴지고 항상 같이 있는 거 같고

친구들 모이면 너도 같이 놀고 있는 거 같고 ..

나는 가수라는 프로에서 임재범이 여러분을 부르는데 울컥하더라 ....

이렇게 너한테 이런 편지 쓸 줄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는데

항상 밝은 미소만 보이던 너라서 지금 이 상황이 참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

자고 있으면 예전처럼 밖에서 나 불러서 이야기하고

집 앞 소파에서 이것저것 이야기하고 그럴 거 같은데

아무쪼록 행복해야 돼

아픔, 슬픔 없는 한없이 행복한 곳에서 잘 지내고 있어

아주 나중에 나도 거기 가는 날 내 얼굴 못 알아보고 그냥 지나치면

아주 욕을 그냥 속사포로 날려줄 테니까

거기서 잘 지켜봐 주고 있고 난 이만 일하러 갈게 바쁘다.. 휴

그리고.. 보고 싶어

사랑한다 내 친구야

또 올게

- 김태균 -



## 사랑하는 내 친구 우리 연아야!

어느덧 22년도 지나서 새해가 되고, 연아의 생일이 돌아왔어.  
 작년에 우리 연아 보러 자주 못와서 미안해.  
 그래도 우리 연아 잊은 적은 한번도 없었어.  
 올해는 우리 연아 외롭지 않게 내가 더 자주 올게!  
 언제나 내 첫 번째 친구는 연아인거 알지?  
 너무나도 보고싶구나 내 친구.  
 네가 있는 곳은 여기처럼 춥지는 않지?  
 어디서 뭘하든 항상 행복하고 아프지 않았으면 해.  
 너는 나랑은 달라서 집에만 있는 거 심심해하고 답답해 했잖아.  
 그래서 자유롭게 멀리멀리 다니려고 내 곁을 일찍 떠난거니?  
 나느 지금이라도 연아가 불러만 준다면 당장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는데  
 너무 늦은거겠지?  
 난 벌써 일한지 5년이 넘어가고, 어느새 진급도 해서 7급도 됐어.  
 내가 가장 축하받고 싶은건 연아인데 연아도 알고 있지?  
 그리고 우리 연아 생일도 내가 가장 빠르고,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싶단 것도  
 연아랑 같이 커피도 먹고 싶고, 도란도란 얘기도 하고 싶어.  
 우리 같이 했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지금은 내가 연아를 마주하면서 축하해 줄 수는 없지만,  
 내 진심은 너한테 닿길 바랄게...  
 생일 진심으로 축하하고 사랑해 연아야.  
 정말 너무 보고싶다.  
 행복한 하루가 되길...

- 연아의 짱친 지혜가 -



## 미치도록 보고 싶은 손선희

언니가 가고 나서 편지 처음 쓰네..?

처음엔 언니가 없다는 게 전혀 실감조차 나지 않았고

점점 언니의 빈자리가 느껴질 때쯤에 원망스러워지고 그러다가 나를 자책하다가

지금엔 손선희 이름만 생각해도 눈물만 난다.

보고 싶어 죽겠어.

언니가 이 편지를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본다 믿고 언니한테 하고 싶은 말 다 할 거야!

거기는 편하냐?! 우리 다 올리고 그렇게 가니까 편하냐?! 우린 보고 싶어 죽겠는데?!

난 아직까지 언니 웃음소리가 생생하다!

내가 언니한테 괜히 감정 쓰레기통 같다느니 그런 소리 해서

언니가 주위 사람들에게 말도 제대로 못 하고 짐만 된다고 생각하다가

이렇게 된 건 아닌지.. 난 아직까지도 너무 생각이 많아 언니..

우리 손선희 가기 전날 인형이고 뭐고 정리할 때 봤다는 얘기 듣고 어떤 심정이었는지..

내가 왜 그때 알아채지 못했지.. 전화라도 한번 왜 안 해봤지..

왜 카톡이라도 한번 안 해봤지.. 아니 그전에 목소리라도 한 번이라도 더 들어볼걸..

사진이라도 더 같이 찍어둘걸.. 한 번이라도 더 만나둘걸..

그냥 모든 게 다 후회야. 내가 언니 힘들었던 거 몰라줘서 너무 미안해..

보고 싶다 손선희. 낮도 많이 가리는데 처음 역삼에서 만나서 나랑 제일 친해져서

내가 다른 사람이랑 다 친하게 지낸다고 불여우 같다고 질투도 해주고

우리 순수한 손선희♥ 우리 손선희 진짜 언니 장례식장에서도 눈물 한 방울 안 흘렸는데

언니 입관식 때도 눈물 한 방울 안 흘렸어 나. 그때 나한테 손선희는 생생했거든..

근데 요즘엔 언니 이름만 생각해도 울고 들어도 울고 사진만 봐도 울고

보고 싶어서 자주 울어. 너무 보고 싶어 언니. 이제 언니가 간지 2년이 다 돼가.

언니한테 가기가 무서워서 여태 못 갔는데.. 언니 보러 가려고..

언니 보러 갈게.. 나 가서 언니 앞에서 하루 종일 붙잡고 울고 있는 거 아니겠지?



쫓겨나는 거 아니야? ㅋ 여하튼 언니는 거기서 편안했으면 좋겠다.  
행복했으면 좋겠고..제일 바랐던건.. 언니의 마지막이 고통이 아니었길 바라.  
그리고 하양이하구 까망이는 걱정 마.  
하양이는 혜인이가 키워주고 있고 까망이는 내 친구 지인이 키워주고 있는데  
아주 적응 잘해서 잘 지내고 있어. 보고 있으려나? 후..  
우리 손선희랑 닭발 한 번 더 먹었어야 했는데 약속 안 지키고 갔어! 흥  
그러니까 꿈에 한 번이라도 나와줘.. 진짜 너무 보고 싶단 말이야.  
뭐가 그렇게 비싸서 꿈에 한번 안 나오나!  
언니 해바라기 좋아하니까 해바라기 가꾸갈게!  
국화 말고 해바라기 가져가도 되나?  
안 혼나나? 몰르겠넹ㅎ  
암튼 조만간 언니 보러 가겠다. 딱 기다려라 손선희!  
나의 친구이고 언니 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평생 언니 잊지 않을 거야.  
보고 싶다.  
사랑해 손선희 ♥

- 손선희 이빠 동생 혜진이가 -





## To. 준혁이 ♡

준혁아 내가 너무 늦게 왔지. 미안해. 다 핑계고 그냥 내가 잘못했어.  
서운해서 내 꿈에 안 나와 준 거냐? — 그건 내가 서운해  
어디서든 내가 부르고 데려다 달라 하면 와줬던 년데  
이젠 이렇게 멀리까지 너 보러 와야 되네. 너 진짜 미워..  
점점 네가 무뎌져가는 거 같아서 너무 미안해.  
그렇게 잊지 않겠다고 너한테 약속하고 다짐했는데 사람이 진짜 간사하긴 하다.  
너한테 너무 미안하다 준혁아 너무 보고 싶어. 왜 그렇게 일찍 갔어?  
너 가고 남은 사람은 어떡하라고? 너무 보고 싶은데 그렇게 큰 네가  
그 작은 데 들어가서 얼마나 답답할까 상상도 안 가. 넌 지금 어디서 뭐 할까.  
내 옆에 있어줄까? 네가 간지 벌써 한 달이 넘었네. 시간이 참 밉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지나가면서 서서히 잊게 만드는 게 참 미워.  
얼마 전에도 너 너무 보고 싶어서 울었다. 다 지켜보고 있지?  
우리 셋이 꼭 성공해서 놀러 가기로 했잖아. 그 약속 꼭 지키기로 했으면서 네가 먼저 깼다.  
나중에 정연우랑 꼭 성공해서 찾아갈게.  
울 애기 뭐 먹고 싶은 건 없는지 춤지는 덤지는 않은지 걱정이 많다.  
똥손이라고 콩고인이라고 놀려도 아무 말 안 할 테니까 내 옆에 있어줘.  
니 목소리 행동 하나하나 너무 그립고 보고 싶어.  
대체 왜 넌 나한테 힘들다 소리를 하나도 안 했을까.. 내가 몰라줬던 건가?  
못 해줬던 것만 생각나 미안해. 교정했는데 이거 보면 네가 나 놀리겠다 보고 싶어.  
쉬는 날 간간이 올게. 내가 가는 날 나 마중 나와 줘. 웃으면서 힘들었다고 네 애기  
주야장천 하면서 안아줘. 이젠 내가 너 뒤에 있을게 너무 보고 싶고 사랑해 주혁아~♡

From. 니 동생 세연2






## 준혁아 안녕

나 유라다!  
오늘 수현이랑 또 왔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나 흘러갔네..  
어쩐.. 벌써 1주기나..  
작년에 너 하늘나라 갔을 때 믿고 싶지도 않았고 믿기지도 않았는데  
1년이 된 것도 안 믿겨  
생일 때도 들렀지만 내가 수현이랑 오늘도 온다고 약속했잖아  
약속 지켰다고..  
얼마 전에 설날이었는데  
너도 이번 연도를 잘 보내면 좋았을 텐데 너무 속상하고 그래  
나 오늘 휴무여서 들른 거야  
휴무 아주 잘 잡았네  
내년에 생일이랑 기일 때 또 들르게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 너도 많이 추울 텐데..  
준혁아 늦었지만 해피뉴이어라는 말해주고 싶었어  
너무 빨리 가서 너무 속상하지만 받아들여야겠지...  
준혁아 또 올게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





## 사랑하는 내 친구

거긴 어때?

이젠 잘 도착했지?

편안했으면 좋겠는데...

외롭지는 않나 걱정이 되네

너 그렇게 보내고 시간이 정신없이 흘렀어..

또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은 돌아가네.

나도 거기에 맞추어서 그냥 너를 마음에 접어두고 지내고 있는데

또 이렇게 바쁜 일상이 끝나는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네 생각이 난다..

힘든 항암 치료 때문에 아프고 힘든데도

속 깊은 너라서 주변 사람들에게 내색을 하지 않았을 뿐인데

나는 그냥 네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내 곁에 꼭 있을 줄 알았어 진짜 눈치도 없어 나 네 친구 맞니?

곳곳에 네 흔적이 많아서 자꾸 떠오르는 네 얼굴,

네 목소리 너무 그립다.

내가 미안하고 너무 사랑해

오늘 밤은 꼭 꿈에 나타나줘

안녕..... 내 친구



## 사랑하는 내 친구

선미야 보고싶다  
이제 너를 다시는 못 본다고 생각하니까 더 너무 보고싶어  
왜 그동안 자주 못만나고 통화도 자주 못하고 그랬을까  
너무 후회되고 내가 원망스러워  
이세상에 있었던 안좋은 기억은 다 버리고  
기쁘고 좋았던 기억만 가지고 가  
그곳에선 아프지도 말고 외롭지도 않았으면 좋겠어  
선미야 너 마지막 가는길에 갔어야 되는데 못가서 너무 후회돼  
좋은 곳으로 가고  
그 곳에선 행복해야돼 너무 보고싶다.  
선미야 사랑하는 내 친구 잘가

- 경숙 -





## 경원아

나 혜연이야 오랜만이지 나 이제 20살이야.  
시간 진짜 빠르다. 그치?  
나 진짜 웃긴 게 가끔 너랑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 지나갈 때마다 흠칫흠칫 놀란다.  
나는 아직 못 믿고 있나 봐 아니면 안 믿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너 떠나고 나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  
내가 정말 죄책감이 들어서 못된 짓도 많이 했다  
뭐 지금은 안 하지만 후회되네 나 심리학과 간다고 했잖아  
그때도 그냥 사람들 돕고 싶다는 일념 하나로 가는 거였는데 못 가게 됐어  
대신 진짜 사람들 돕는 간호사 될 거야  
경원아 정말 보고 싶다. 너무 보고 싶어  
가끔 내 꿈에 나와 주면 안 될까?  
너무 보고 싶어서 잠들 때마다 울어  
네가 아직도 고1의 모습인 게 너무 슬퍼 내 시간만 흘러가고 믿기지가 않는다.  
나는 열심히 사람들 돕다가 너 만나러 갈게  
경원아 너무 사랑해  
다시 볼 때까지 안녕

- 성인이 된 혜연이가  
고1 경원이에게 -



## 민지에게

안녕 민지.  
오랜만이야  
나는 혜수랑 오전 첫차는 타고 너를 보러 왔어.  
너도 우리가 보고 싶었지? 자주 못 와서 미안해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 하늘이 엄청 파래  
작년 오늘도 지금처럼 하늘이 파랬는데  
오늘 날씨가 좋아서 다행이야  
나는 전주에 혼자 남았어.  
미리언니가 광주로 가버렸거든 ㅜㅜ  
우리도 새로운 소식들이 많은데  
민지도 1년 동안 새로운 소식들 많았겠지?  
재밌는 소식, 네가 보고 들은 거 같이 공유하고 싶은데  
언젠가는 들을 수 있겠지?  
작년 오늘 너에게 꽃 한 송이 주지 못한 게 계속 마음에 걸려서  
작년의 네 머리색을 닮은 보라색 꽃을 가져왔어.  
다음에는 크리스마스 에디션으로 가져올게.  
우리의 29 살이 끝나기 전에 다시 올게 민지야  
항상 보고 싶어. 사랑해 ♡

- 지연 -





## TO. 태홍

태홍아 너 이렇게 가버리면 어쩌냐...

우리한테는 괜찮은 척하고 금방 퇴원하고 놀 것처럼 얘기하더니 진짜 너무하다.

내가 지금까지 잘못된 거 싸운 거 다 사과도 못하게 가버리면 나는.....

그래도 여기서 혼자 끙끙 앓고 아프고 힘들었어도

위에서는 안 아프고 잘 지내길 바란다.

너무 미안하다.

처음 발인할 때 눈물 나고 못 볼 것 같았는데 막상 얼굴이라도 보니

슬픔과 편안함이 느껴져서 조금은 마음이 편해졌어

너네 부모님 자주는 아니더라도 가끔 연락드리며

너의 빈자리를 조금이나마 애들이랑 채워볼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거기서는 꼭 아프지 말고 잘 지냈으면 좋겠다

진짜 미안하고 사랑한다.

- from.건호 -



to.준혁

준혁아 오랜만이야..  
너 생일 때 맞춰 오려고 했는데  
내가 감기가 너무 심하게 걸려서 당일에 못 왔다.ㅜㅜ  
그래서 오늘 수현이랑 왔는데 지금 눈 와...  
진짜 예쁘게 눈이 내려  
너도 같이 보면 좋았을 텐데 너무 아쉬워  
근데 준혁아 나도 곧 생일이다 알고 있냐?  
네가 바로 옆에 있었으면 같이 만나는 건데...  
박주덕 이놈은 요즘 연애하느라 바쁘다  
진짜 여자친구랑 이쁘게 만나느라 정신없어 보임.. ㅋ  
아무튼 내년 생일에 주현이랑 또 올 테니까 좀만 기다려줘  
중간중간에도 올 게 알겠지?  
준혁아 늦었지만 생일 축하해 많이 축하해  
답에 또 올게  
그리고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다!!  
- 울 -





##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내 친구 우진이에게

우진아 나야 민재!

드디어 내일이면 우진이의 생일이야

그동안 얼굴 한번 못 비춰서 정말 미안해..

우리 사회 나가도 생일은 꼭 같이 보내자고 했는데

그 흔한 약속하나 못 지켜서 미안해 우진아

벌써 네가 천국으로 간지도 4개월이 지났는데 나는 아직도 믿기지가 않네

내일 우진이 보고 올까 봐 걱정인데 그래도 이해해 줘 알겠지?

우진이 생일에는 친구들 많이 가니까 우리 보고 좋아했으면 좋겠다.

우진이는 참 잘 살았어 주위에 친구가 참 많아서 좋아

언제까지나 넌 하나뿐인 내 친구야 알지?

사랑하고 내 친구 거기서는 항상 웃으면서 지냈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생일 축하해 내 친구 우진아

- 친구 민재가 -





---

하늘로 보내는 편지  
- 선생님과 제자 -

---



## 승민이에게

승민아 선생님이야, 너희들 2학년 올라갈 때 편지 써주려고 했는데,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네...  
늘 밝고 재치 있던 네 모습이 문득문득 떠올라서  
아직은 승민이 자리를 보는 게 많이 힘이 드는구나..  
얼마나 많이 힘들고 무서웠을지 그 생각을 하면 선생님은 너무 마음이 아파...  
늘 밝다고만 생각했는데, 그런 모습 뒤에 수많은 고민과 괴로움이 있었던 거구나  
선생님이 미리 알았다라면 승민이가 이런 선택을 하지 않지 않았을까 하고  
후회가 돼.... 사실 우리 반에 다른 여러 가지 일들로 힘들 아이들이 많아서  
그 아이들을 신경 쓰느라 승민이가 힘들어하는 건 몰랐어. 미안해...  
어른이 된 지금 지나고 보면 당시에는 너무나 크고 두렵던 일들도 별게 아닌 일이  
되는 건데, 너에게 그 말을 너무 해주고 싶은데 할 수가 없네..  
정말 그 일은 어른들이 다 해결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너에게 아직 너무 어린 너에게 다 짊어지게 한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파..  
우리 반 분위기 메이커였던 늘 웃었던 우리 승민이..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고민도 하지 말고 편안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너도 봤겠지만 장례식장에 많은 친구들이 왔었어.  
모두가 다 너무 슬퍼하고 너를 그리워했어.  
그렇게 좋은 친구들이 있다는 걸 네가 알아주면 좋겠구나  
그 친구들이 이 이별을 잘 견디고 씩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승민이가 힘을 줘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우리 전자 기계과 1학년 1반!  
그리고 우리 승민이, 그동안 담임 선생님께서 자랑스럽고 행복했어, 고마워!

- 2021. 9. 27. 남지은 선생님이 -



## 권쌤 께

선생님! 저 윤지예요.  
어릴 적부터 저랑 같이 얘기해 주시고  
저희 항상 놀아주시고  
저희가 놀려도 다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저희가 선생님 덕분에 좋은 추억이 많아요~  
원 오면 선생님 보면 인사 열심히 하고 좀 더 얘기할걸.. 후회되네요..  
선생님은 저희 보면 항상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맛있는 아이스크림도 사주시고,  
옛날에 선생님이랑 차 안에서 얘기하는 게 정말 재미있었는데  
선생님! 선생님은 저희들의 영웅인 거 알고 계시죠?  
항상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하늘에선 꼭 행복해 주세요~  
항상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 백운지 올림 -





## 분위기 메이커 의리파 산이에게

산아 잘 지내고 있지?  
너무 우리 산이가 보고 싶어서 왔어.  
선생님한테 공룡 얘기도 안 하고  
공룡 스티커 관심 없는 척하더니  
인사도 안 해주고 훌쩍 공룡나라로 가버리다니!  
산이의 그 천진난만한 웃음이 너무 그립다..  
선생님이 항상 기도할게.  
또 선생님 꿈에 나오렴♡  
나머지 스티커들은 공룡나라 가서도 열심히 채워줘~!

- 엘리스 선생님이 -

---

# 하늘로 보내는 편지

## - 친인척 -

---





## 이모

얼마 전 언니 꿈에 이모가 나왔다 했어.

언니가 꿈에서 이모가 큰 집이나 가게 같은 곳에서 있었고,

뒤로 가서 우리 언니 상다리 부러지게 밥도 차려주고,

오랜만에 봐서 반가웠는지 밥 꼭 먹이고 보냈다고 하더라.

건강하고 행복해 보였대.

그곳에선 잘 지내고 있지?

내가 얼마 전에 오래된 편두통 원인을 찾으러 병원에 갔었어.

이모도 두통이 있었잖아.

그래서 나는 뇌파검사를 받으며 이모도 나랑 비슷한 증상을 겪지 않았을까 싶더라.

5분 채 걸리지 않았던 단순한 검사를

이모도 받아봤으면 지금 내 곁에 있지 않을까.

우울증이란 진단을 받고 나니 이모 생각이 많이 나서 그날은 한참을 울었네.

마음의 감기를 이기지 못하고 떠난 게 참 가슴이 미어지고,

누군가 도와주지 못 했던 게 괴롭더라고.

누군가 나처럼 검사받아 보라고만 했어도, 조금만 더 신경을 써줬어도

이모는 10대의 내 모습에서 기억이 멈춰있는 게 아닌

지금의 나를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었을 텐데

그래도 할머니와 같이 좋은 곳에서 지금의 나를 잘 지켜보고 있지?

엄마가 이모에게 항상 고맙고 미안하다고 써달라고 하셔.

항상 이렇게 나에게 대신 편지를 써달라고 부탁하는데,

엄마는 편지를 쓰기엔 담고 싶은 말이 너무 많고

이모에게 미안한 게 많다고 느끼셔서 아직은 펜을 들 수 없나 봐.



이모도 이런 엄마와 나에게 미안해서 우리 꿈에는 잘 나오지 못하는 걸까.  
요즘은 꿈에서도 볼 수가 없어서 이모의 얼굴이 잘 떠오르질 않아.  
시간이란 게 참 야속하게도 슬픔을 두고 가지만,  
좋았던 기억마저 빼어가잖아,  
이것도 이별처럼 어쩔 수 없는 인생의 일부겠지.  
요즘 참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다는 걸 부쩍 느끼고 있어.  
이모는 챙김 받을 수 없었지만,  
내가 아플 땐 날 챙겨줄 사람들을 곁에 항상 둘 수 있도록 해주려고  
이모가 보내준 좋은 인연들이겠지?  
앞으로도 나와 언니, 준영이, 엄마와 아빠에게 일어나는 모든 행운들은  
이모가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하며 씩씩하게 살아갈게.

- 우영이가 -





## 삼촌에게

삼촌 많이 보고 싶어요.

맨날 사진으로만 봐서 보고 싶어요♡

삼촌 생각하면서 지낼게요.

하늘에서는 아프지 마세요.

삼촌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 도올이가 -





## 막내 이모!

나경아야.  
이모의 셋째 조카!  
하나님 품에서 할머니랑 큰 이모부랑 잘 지내고 있지?  
아프지 않지?  
우리도 그럭저럭 지내.  
이모랑 더 많은 추억을 남기고 싶었는데..  
이모 너무 보고 싶다.  
울 예쁜 이모.. 이모한테 해주고 싶은 게 참 많았는데  
하나도 못 해줘서 미안해.  
이모.. 나 좀 힘들어.  
하나님께 나 좀 행복하게 좀 해달라고 말해주라. ㅠㅜ  
이모 미안해.. 잘 지내고 있어!! 행복하게..  
하나님이랑 할머니랑 큰 이모부랑 잘 지내고 있어.  
또 올게!!  
사랑해 이모! 사랑한다고 전해줘.  
이모가 나한테 매일 예쁜 경아라고 했는데..

- FROM. 예쁜 경아가 -





## TO. 사랑하는 우리 막내 이모♥

이모! 저 이모 조카 귀요미 썰라예요~~ 이모가 저한테 항상 썰라라고 불러주셨잖아요

ㅎㅎ 이모를 떠나보낸 지 벌써 15일째네요..

이모 정말 많이 보고 싶어요.

이모 웃음소리도 그립고 말투도 너무 그립고 계속 생각나요.

아직 이모가 우리 곁에 없다는 게 너무나도 안 믿기지만

지금의 아픔을 시간이 다 해결해 줄 거라고 믿고 있어요.

이모, 거기에서는 아프지 않고 잘 쉬고 있죠?

일 너무 하지 말고 편히 쉬어요.

저는 이모가 힘들고 아파하는 모습 보기 싫어요..

아, 그리고 지난주 화요일에 이모네 집 갔었는데

큰 이모랑 엄마랑 할머니께서 이모네 청소랑 이것저것 정리해 준다고

저도 옆에서 지켜봤는데 이모 물건이니 음식들이 보통 많은 게 아니더라고요~

다 같이 치우느라 조금 힘들어서 혼났어요 ㅋㅋㅋㅋ

아무튼 결국 집은 다 치워냈어요 ㅎㅎ

저랑 연우랑 쓰레기봉투 큰 거 엄청 날랐어요.

버릴게 많아서 한 5번 이상은 왔다 갔다 한거 같아요 ㅋㅋㅋㅋ

이것도 추억이죠 뭐~

아, 그리고 그날에 처음으로 이모부께 용돈 받아본 거 같아요.

엄마랑 집 가려고 택시 잡는데 이모부도 같이 내려와 택시 기다리면서

제 주머니에 오만 원짜리를 슬쩍 넣어주시더라고요.

이모가 항상 생각이 나지만 제가 우울해하면 이모가 하늘나라에서 많이 속상해하실까 봐

참고 있어요. 저 잘하고 있죠 ㅎㅎ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는 이모부가 와달라고 하셔서 이모네 집에 갔었어요.  
점심에 이모부가 김치볶음밥해 주셨는데 새롭고 맛있었어요.  
담에는 이모가 해주시는 김치볶음밥 먹어보고 싶어요.  
담에 꼭 해주실 거죠??  
우리 막내 이모 너무 보고 싶고 잘 지내고 있을 거라 믿어요.  
자주 이모 보러 올 테니까 아프지 말고 행복하게 쉬고 계세요.  
저 보고 싶어도 참으시고!! ㅎㅎ  
아, 마지막으로 연우는 걱정하지 마요. 이모.  
씩씩하게 잘 있어요.  
제가 잘 챙길게요.  
가끔은 혼도 내기도 하지만  
제가 챙겨줄 땐 누구보다 더 잘 챙겨주시는 거 아시죠?  
저만 믿어요. 이모.  
그럼 이모, 편히 쉬고 계세요♥  
사랑해요. 많이.

- 이모 조카 썰라 -





## 삼촌께

삼촌 안녕하세요. 저 유림이에요.  
삼촌 하늘에서 잘 살고 계시죠?  
삼촌 너무 슬퍼하지 말아요.  
저희도 언젠간 보러 갈게요.  
삼촌 저희 걱정은 하지 마시고,  
다음 생에는 꼭 부디 오래 사시길.  
사람들은 원래 우주란 곳에 살았는데 지구란 행성으로 소풍을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하잖아요.  
그건 이제 다 놀아서 집으로 돌아가는 거니  
너무 슬퍼 마시고  
행복하게 잘 사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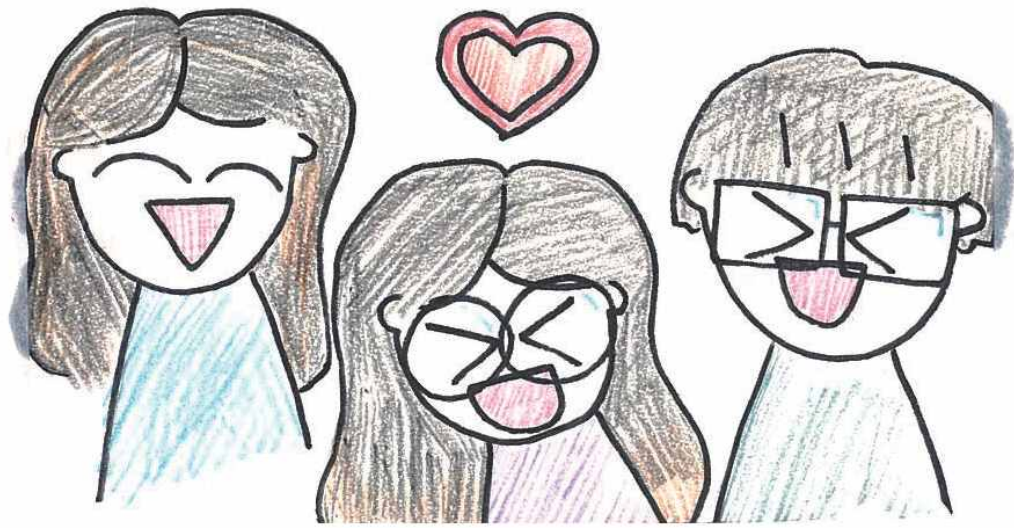
- 2022. 9. 10. 유림 올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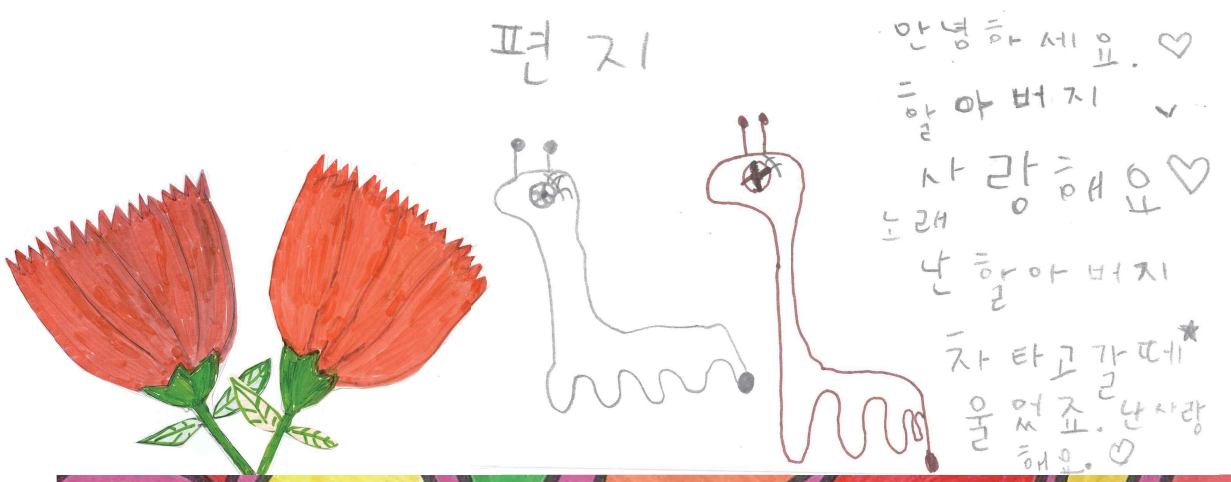


---

유족들이  
고인을 생각하며  
그린 그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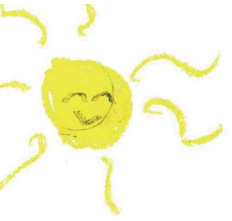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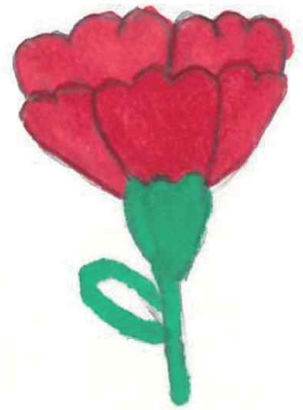
아빠 사랑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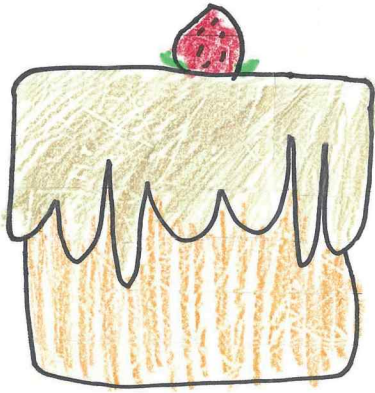


할아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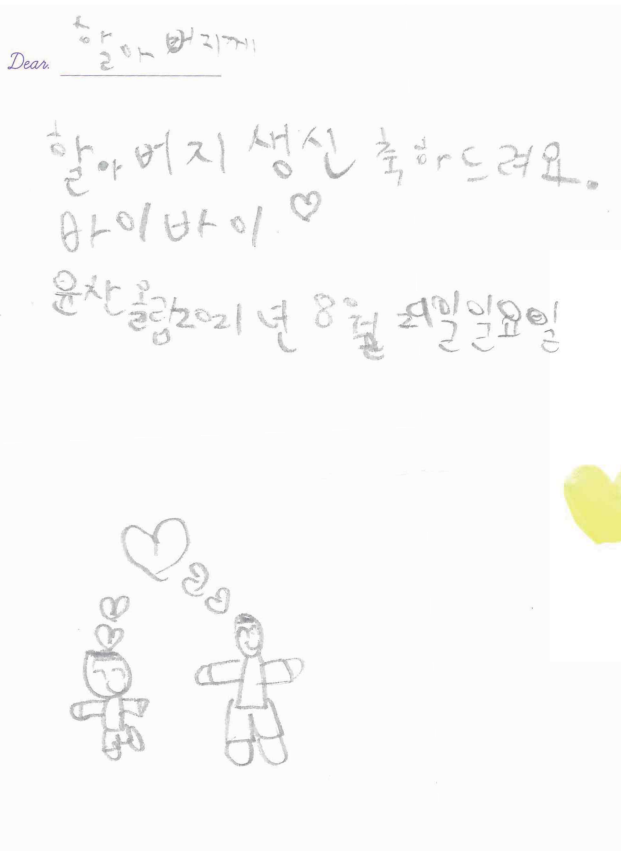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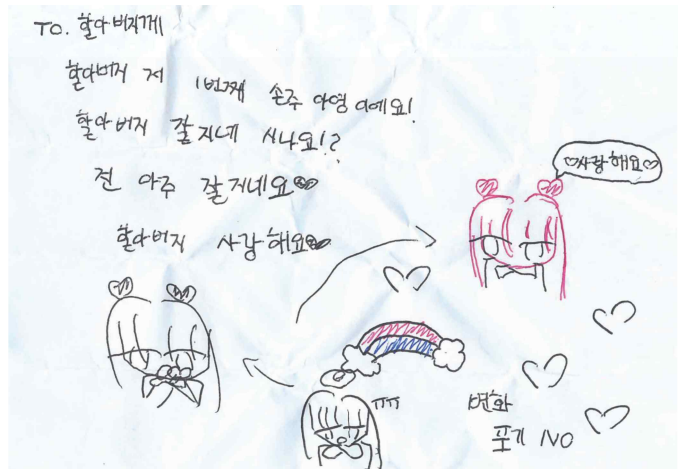
할아버지  
께서  
좋아하시는  
'참인'  
머리. ㅋㅋ

와 할머니 사랑  
부고 싶어요



사랑해요







그립고 보고싶은  
내 동생.....  
유천아빠.....  
유성아빠.....

하늘만큼

.....

땅만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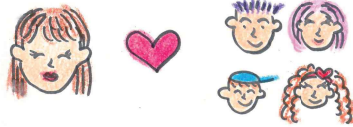
가슴 가득 하고싶은 말..... 사랑해.. 내동생....

할머니 사랑해요

하늘나라에서는

아프지 마세요.

- 9주기 -



기규태

어 배이 남



나 사랑해주서  
너무너무고맙고효도  
한다고는 말로만하구  
미안해.

하늘에서 하고싶은거  
다케? 항상우리 곁에  
있어줘서고이제  
찾아주세요

2022 04 17

이제 벚꽃 필는데  
같이놀러가고싶다.ㅠㅠ  
할머니랑사진도찍고,  
맛있는것도먹고,허름한  
놀이도하고싶어 너무보고싶다?

할머니품에 꼭안껴보고  
싶고,사진도찍고싶고,볼때  
해주고싶어.우리 곁에 언제  
올까요?

할머니를 너무 사랑하는  
-편지가-  
네일이 너무기대되는  
4/16

